



10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10호

(루계 제 708 호)

차례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우리 당의 첫 기슭에	4
《ㄷ.ㄷ》와 우리 수령님	5
잊지 못할 첫 사람들	5
화선의 작은 집	6
당창립대회장	7
《ㄷ.ㄷ》의 영원한 동지가 되리	7
《ㄷ.ㄷ》와 나	8
10 월의 붉은기	10
붉은기수호자	11
포화속의 전당	13
잊지 못할 10 월의 밤이여	22
당의 령도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문학의 빛나는 로정	23
한없이 은혜로운 품속에서(2)	27

매혹과 보답의 60 년	28
신념과 의지의 빛나는 로정	29
소설문학이 걸어온 빛나는 60 년	30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32
김일성장군찬가	33
어머니	33
나의 조국	34
내 나라 제일로 좋아	36
나를 부르는 소리	36
3 대장군의 총	36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37
뜨거운 진정이 넘치는 철학적인 시세계	37
백두의 이빨단풍	40
잊지 마시라	41
당창건기념탑을 바라보시며	42
우리 당의 첫 동지들	42
나는 청춘시절 병사였다네	42
가을날에 있을 일	43
시간과 내 한생	43
주체문학의 대강	44
한뜨락	44
교문앞에서	45
아 들	45

첫 수업	46
교정의 사계절	46
첫 대학생 복앞에서	47
소쩍새소리	48
신념에 대한 생각.....	49
하얀 붓나무	50
누런 이삭 물결치는 들	61
농민의 가을	61
가을 (외 1 편).....	62
상쾌한 아침	62
유모아.....	62
7 련보습	63
책바람 좋다	68
10 월 달력을 펼치고.....	69
림기응변의 시재	69
시는 시로 되여야 한다	70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는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당시 중국의 국경절인 쌍십절(10월 10일)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 회의를 열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한주일후인 1926년 10월 17일에는 김시우네 집에서 정식으로 조직을 무었다.》

《그 모임에서 나는 우리가 뭣는 조직을 라도제국주의동맹으로, 약칭으로는 <ㄷ.ㄷ>라고할것을 제의 하였다.

라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력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생 명체였다.》

《우리 당력사에서는 <ㄷ.ㄷ>를 당의 뿌리로 보고있으며 <ㄷ.ㄷ>의 결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하고있다. 그 뿌리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 태어나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되고 우리 당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였다. <ㄷ.ㄷ>가 조직된 때로부터 우리 혁 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였다.》

우리 당의 첫 기슭에

정동찬

노을이 피어나는
10 월의 아침
우리 당의 첫 기슭에
마음의 나래를 내리니

저 하늘 가득히
젊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러
타는 가슴 들먹이며
붉은기를 높이 추켜든
열혈의 그 눈빛들 어려와라

그날
10 월의 그밤 휘발하강변에서
누리를 향하여 가슴 풀어헤치며
결성선언의 축포인양
첫 청년전위들 두손 모아 뿌려올리던
환희의 물보라 물보라
그 걱정 of 물보라속에
이 한몸 한껏 적셔보노라

서로 굳게 결은 어깨성벽속에
나도 한몸이 되고
밤의 강반을 깨치던 힘찬 노래속에
나도 한 목소리 합치며
백두의 먼 하늘끝을 바라보노라

당이어
그대의 첫 세대들 붉은기 높이
손을 젖는 기슭이어
동지단결의 노래를 부르며
맑은 눈동자들 웃는 기슭이어
얼마나 순결한 모습들 일어서는 기슭이나
얼마나 고결한 숨결을 간직한 기슭이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내짚은 첫걸음에 천만년 세월을 내다본
《ㄷ.ㄷ》의 그 푸른 기슭에
피더운 내 가슴도 대이노라

그 어떤 사조의 타류에도 굽지 않은
《ㄷ.ㄷ》의 그 젊은 산아들
겨레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선군의 자욱을 떼던 그 기슭
사대와 굴종의 세월과 결별한 기슭이어
인민의 운명개척의 먼 향로에
력사의 새 닳을 올린 기슭이어

네 기슭에는 민족의 령도자를 받들어
가장 아름다운 인간세계를 다 가꿀 터전이 있고
네 기슭에 심은 《ㄷ. ㄷ》의 봄씨앗은 자라고 자라
내 나라 강토에 선군총대의 숲을 펼쳐놓았구나
네 기슭에서 뿔어올린 물과 향기로

내 조국은 울창한 숲의 숲으로 설레이고
네 가슴에서 높이 뜬 붉은기
세월을 넘어 오늘도 누리에 휘날리나니

오, 위대한 당이여
내 나라 수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인민의 수령을 모신 감격에 겨워
무산대중의 바다속으로 노를 저어간
《ㄷ.ㄷ》의 첫 가슴이 있어
오늘의 사회주의 내 조국이 있어라
위대한 장군님 높이 모시고 백승 펼치는
위대한 우리 당이 누리에 빛을 뿌려라

《ㄷ.ㄷ》와 우리 수령님

오필천

역사는 진실만을 기록한다
그 진실이 귀중해
수령님 자주 회고하신
《ㄷ.ㄷ》의 추억이여

감회가 깊으시여
잊지를 못하시여
뜨겁게 회고하신
수령님의 그 말씀
오늘도 우리 가슴에 뜨거워

《ㄷ.ㄷ》에 대해서는
해방후에 출판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ㄷ.ㄷ>와 김일성》이라고
서술되어있다고...

10 대의 그 시절에
혁명의 횃불을 밝히시는
민족의 태양을 모신
그 기쁨 얼마나 컸으면
역사는 특필했으랴

...김일성에 대한 기대와
이 단체들의 운동은 컸다고
열의인 정의인인
김일성에 대한 지지도 컸다고

아 조선의 한별
그이의 품속에서 태어난
타도제국주의동맹
수령님을 떠나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것이어서
역사는 새겼구나
《<ㄷ.ㄷ>와 김일성》이라고

아
20 년대에 붓을 들어
후세에 남긴 이 글발
2 천년대에 붓을 들어
오늘 역사는 쓰노라

달리는 부를수 없는 이 정의를 담아
달리는 쓸수 없는 이 진리에
붓을 적시여
《ㄷ.ㄷ》는 수령님!

잊지 못할 첫 사람들

박세옥

...몇사람이었다
머나먼 그날에
화전의 어두운 하늘에
우리 혁명의 첫 붉은기를 올리던
그때 그들은 몇사람이었다

백도 아니고 천도 아니었다
그들은 몇사람이었다
《ㄷ.ㄷ》의 강령을 선포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그날에 굳게 뭉치었던
그들은 첫 사람들이였다

그날에 그들이 그려보던
오늘에 우리 살고
그들이 그날에 들었던
그 붉은기를 우리 바라볼수록
그들을 먼저 생각하나니

그날에 수령을 모신 첫 사람들
 그날에 수령의 첫 령도를 받든
 잊지 못할 사람들
 눈덮인 광야와 설레는 밀림에
 그 환희와 그 걱정을 안고
 우리 혁명의 첫길을 낸 사람들

그들은 지금 없다
 그러나 백만 천만으로 어깨결은
 우리 혁명대오앞에 그들은 서있다
 우리 당의 첫 대오이며
 또 영원히 우리 당의 대오에 남아있을 그들은

아, 혁명의 려명이 비끼던 그날에
 천만산야를 주름잡으며
 그들의 피로 적신
 그 붉은기를 바라보느라
 그 얼굴들이 떠오른다

최창걸, 김리갑, 리제우
 강병신, 김원우, 박근원...
 그날에 지니였던
 수령결사옹위의 그 높은 뜻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가르쳐주는
 우리 당에 불멸할 그 이름들이여!

화선의 작은 집

박경심

내 나라 지명은 아니건만
 네 이름은 낯설지 않구나 화전이며
 우리 수령님의 《ㄷ.ㄷ》시절
 그 못잊을 추억으로 인연깊은 너만은...

그려보노라 내 마음은
 제국주의에 짓눌린 20 세기의 어둠을 박차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탄생을 선포한 10 월
 그 위대한 하루가 흘러간
 여든해전 화전의 나지막한 작은 집

금시라도 울려오는듯
 암운이 드리운 조선
 먹장으로 덮인 그 칠칠어둠을 벗겨내는 소리
 어지러운 강도의 발굽소리를 삼켜버리며
 온 방안에 울려퍼지던 그 웨침

일제를 타도하라!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너무도 작은 집에서
 너무도 위대한 선언이 울려가고있었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와 당당히
 맞선분
 강도 일본제국주의에 죽음의
 선고를 내린분은
 10 대의 우리 수령님이시였거니

허나 그날에 폐신 그 발자욱

일제와의 싸움에서
 단 한보도 물러섬이 없이
 혁명승리의 한길로 다져오신 수령님

백두광야의 눈보라를 헤쳐
 조국해방전쟁의 포화를 뚫고
 이 땅에 덤벼든 침략자무리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강철의 령장
 20 세기를 반체투쟁의 세기, 《ㄷ.ㄷ》의
 세기로
 도도히 흐르게 하신 우리의 수령님

20 세기는 흘러갔어도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장군이 이끄시는
 내 조국의 세월은
 오늘도 《ㄷ.ㄷ》의 세기로 흘러라
 이 나라 모든 아들딸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ㄷ.ㄷ》의 천만 산아들로 자라노라

아 10 월이 오니
 더더욱 잊지 못할 화전의 작은 집
 그 집에 울리던 그날의 웨침은
 삶의 진리로 이 가슴에 메아리쳐오누나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ㄷ.ㄷ》에 애국이 있고 민족번영이 있음을
 사무치게 사무치게 가르쳐주누나

당창립대회장

문동식

여기 해방산기슭
당창건기념관
위대한 우리 당 창립대회장은
너무도 작고 소박한 회의실

하지만
1945년 10월 10일
새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안으시고
대회장에 나오신 **김일성**동지
그이는 여기서 선포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우리 당 창건을

그이는
그날 이 집에서 보셨으리
대표들의 들먹이는 어깨와 어깨너머
어둠이 무겁게 드리운 광야에
한점 등불을 밝혀놓으시고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던
화전의 작은 추녀났은 그 집을

그이는 그날
이 대회장에서
깊은 감회속에 추억하시였으리
살기찬 감시의 총칼속에
우리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가 돛을 올리였던
카툰의 진명학교 그 작은 교실도

그이는 그날
여기서 높이 드는 대표들의 손길에서
마음속에 숨엄히 바라보시였으리
김혁, 차광수, 최창걸, 김원우...
우리 당 조직의 첫 성원들이
환희와 격동속에 눈굽을 적시며
맹세의 주먹 높이높이 쳐드는 모습도

그이는
여기서 귀전에 뜨겁게 들으셨으리
우리 당의 첫 뿌리에
자기들의 혈맥을 이어주고 떠나간
오중흙, 최희숙, 마동희, 김형권...
그 많은 열혈투사들이 힘차게 울리는
우뢰같은 박수소리 폭풍같은 환호성도

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 첫걸음 떴었던 우리 당의 첫 대오
아지치고 즐기어 대하를 이루며
피바다를 헤쳐 불길속을 뚫고
드디어 여기에 와닿았거니

아 나는 오늘 여기
해방산기슭의 작은 회의실에서
온넛으로
심장으로 노래하노라

항일대전의 피어린 20성상
백두의 산악들을 기둥으로 세우고
저 푸른 창공을 지붕으로 펼치며
자주의 새시대의 위대한 당
우리 당의 무적필승의 만년초석 마련하신
질세의 애국자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
그이의 위대한 불멸의 업적을

노래불러 길이 자랑하노라
무궁한 세월
조선로동당 그 붉은 주체의 기치로
광풍도 격랑도 휩쓸어버리시며
민족의 앞길에 승리의 해돋이만 불러오시는
탁월한 위인의 영원한 사랑을

가사

《ㄷ.ㄷ》의 영원한 동지가 되리

혁명이 떠나온 기슭에 울린
그날의 웨침이 가슴을 친다
한별을 위하여 한몸 바치자
《ㄷ.ㄷ》의 동지들 다진 맹세여

어버이수령님 한생 못잊던
《ㄷ.ㄷ》의 충신들 열혈의 모습
세월은 흘러도 우리 가슴에

인생의 철리를 깨우쳐주네

그날의 투사들 뿌린 붉은 피
우리 당 기폭에 물들어있네
오늘도 신념의 기수가 되어
천만의 심장을 불태워주네

아 내 조국 빛내는 선군의 길에
《ㄷ.ㄷ》의 영원한 동지가 되리

《ㄷ.ㄷ》와 나

리 명

바야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하신 력사적인 《ㄷ.ㄷ》결성 여든돌이 다가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 당력사에서는 <ㄷ.ㄷ>를 당의 뿌리로 보고 있으며 <ㄷ.ㄷ>의 결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하고있다.》

참으로 뜻깊은 기념일이다. 생각도 깊어지고 하많은 이야기도 쓰고싶다. 무엇부터 쓸것인가? 오늘과 《ㄷ.ㄷ》의 사이에는 80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공간이 놓여있다.

나는 《ㄷ.ㄷ》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밤을 궁싯거렸다. 먹물같은 어둠이 덮인 밖에서는 지붕과 창문을 마구 두드려대는 소연한 비소리가 나의 사색을 방해하고있었다. 장마비처럼 련 사흘째나 퍼부어대는 초가을의 때아닌 큰 비였다.

밤이 이속해서야 비소리가 좀 뜸해지는듯싶더니 뒤이어 세찬 바람이 터졌다. 련 사흘이나 하늘을 뒤덮고있던 구름장들을 찢어발기는 광풍인것 같았다.

아닌게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새벽하늘은 씻은듯 말끔히 개여있었다. 나는 한결 거뜰해지는 기분으로 연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동견하늘을 내다보았다. 그러던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의 집 창문으로 면바로 바라보이던 강녘의 은백양나무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제 눈을 의심하며 한동안 강변을 살펴보았다. 분명 밤사이 에 사달이 생긴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서둘러 문밖으로 나섰다. 설된 물김이 그 물거리는 질퍽한 길을 따라 강가로 다가간 나는 다시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시누런 강물이 폭을 넘을듯 사뭇치며 굽이치는 강녘에는 은백양나무의 거대한 몸통이가 뿌리채 들리어 땅바닥에 자빠져있지 않는가! 범람하는 탕수가 나무의 뿌리를 드러내자 뒤미처 들이닥친 광풍에 그렇게 된것 같았다. 나는 어망치만한 자연의 횡포에 아연하여 한자리에 굳어졌다. 얼마나 친근하고 정든 나무였던가. 바람이 불 때면 그 풍만한 잎새들을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불별이 쏟아지는 삼복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드리워 바둑승부에 신명이 난 늙은이들이 더위를 잊게 해주기도 하고 장미빛노을이 퍼지는 저물녘이면 빨강게 물든 잎새들이 하느적하느적 손저으며 보금자리를 찾는 새

들을 불러들이던 사랑스러운 나무! ... 아지마다 흰눈을 소복이 쓴 한겨울의 자태는 또 얼마나 순결하고 우아하고 운치로왔던가.

나 역시 그 티없는 깨끗함에 심신이 맑아지기도 하고 한여름 반짝이는 질푸른 빛에 이따금 피로를 가시곤 하였다.

나는 나무가 서있던 허공을 쳐다보았다. 만약 뿌리라도 살았더라면 다시 싱싱한 줄기와 잎새들이 자라 새들이 깃들려 찾아들련만...

뿌리라도 살아있었다면... 아쉬움이 밀물처럼 갈마드는속에 돌연 섬광과도 같은것이 뇌리를 쳤다. 뿌리?!... 뿌리는 생명을 싹틔우는 시원이고 그 생명에 끊임없는 자양분을 주는 원동력이다.

사람에게도 남아주고 키워준 생명의 뿌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나의 생명의 뿌리는?!... 불현듯 온몸이 전류에 감전된듯 부르르 떨렸다. 음울하고 어두운 그들이 나의 뇌리에 안개처럼 서리더니 나의 넋을 반세기전의 울씨년스리운 날로 끌고갔다.

초겨울의 진눈까비가 추근추근 내리는 밤이었다. 뼈속까지 얼어드는 음산한 날씨였어도 다리북구공사장은 《어기영차》소리로 뚫었다. 마을사람들은 인민군대의 채진격소식에 격동되어 적들이 도망치면서 폭파해버린 다리북구에 너나없이 뛰어들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달려나온 애젊은 녀인도 있었다. 녀인은 차디찬 물속에서 일하는 남정들을 도와 강가에 모닥불을 지피기도 하고 물을 끓이기도 하였다. 해방후 인민정권의 고마움을 누구보다 체험한 녀인은 인민군대의 걸음에 작은 성의라도 고이고싶어 스스로 공사장에 몸을 잠그었다.

날이 썰녘에야 다리가 복구되었다.

모두들 일손을 거두자 녀인은 황급한 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가슴속에 남모르게 깃든 불안이 또 머리들 쳐들었다. 녀인은 느닷없이 커만가는 그 불안에 쫓기듯 걸음발을 더 채우쳤다.

(혹시 그이가 간밤에 집에 와있을지도 몰라.)

며칠전에 말 한마디없이 집을 나간 남편의 일이 웬일인지 녀인의 가슴에 얼음덩이처럼 박혀있었다. 하루밤사이에도 만가지 불행이 겹친다는 이 전쟁시기에 무슨 일인들 없으랴.

등에 업힌 아이가 잠을 깰는지 칭얼거렸다. 눈만 뜨면 젖부터 찾는 애였다. 녀인은 불어난 젖두덩이의 짜릿한 촉감에 이내 마음이 진정되고

너누룩해졌다.

《온, 우리 착한 심술보. 어서 집에 가요. 아빠가 사랑 가져왔단다.》

그랬어도 아이는 귀청째는 울음을 터치며 아부재기를 쳤다. 너인은 가까스로 아이를 달래며 살짝문을 열고 집뜨락에 들어섰다. 첫눈에 뽕얇게 서리끼 자물쇠의 싸늘한 랭기가 눈에 마쳐왔다. 떡심이 풀렸다. 그런데 부엌문잠에 하얀 종이쪽지가 꽂혀있는것이 보였다. 얼른 그것을 뽑아들었다. 남편의 편지였다. 반가우면서도 가슴은 급하게 뛰었다.

너인은 보채는 아이는 감감 잇고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편지를 펼쳤다.

...여보, 미군이 38도선 이북에 《원자탄》을 투하하기로 했소. 백사를 제치고 《天》부두로 와주오. 시간이 급하오. 남으로 가는 마지막배가 출발을 서두르고있소...

너인은 와들작 놀라 편지종이를 떨어내쳤다. 소름끼치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온몸을 쭉 누볐다. 이젠 뭘가?... 악몽일가?... 너인은 비몽사몽간을 헤매는것 같았다.

전략적이며 일시적인 후퇴의 어느날 불쑥 집에 나타났던 남편, 안해와 아이가 보고싶어 조직의 승인을 받고 잠간 들렀다고 하여 너인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가. 그렇잖아도 남편과 노상 떨어져사는 몸이라 전쟁이 터지자 남편의 신상이 걱정되어 자나깨나 마음써오던 그였다.

그가 출가온 이듬해 남편은 새 인민정권과 로동당의 관심속에 평양에 새로 선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나있었던것이다. 너인은 남편에 대한 한없는 궁지로 하여 신흥생활의 단맛에 대한 갈망도 기꺼이 묵삭였고 힘에 부친 발일과 가정살림살이는 물론 남편의 뒤바라지마저도 성수나 하였다.

그런데 한주일의 말미를 받고왔다는 남편은 그날자가 훨씬 지났어도 떠날념을 안했다. 너인은 묻고싶고 알고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참하고 어진 성품을 지닌 너인은 아직 때문지 않은 남편이 서먹하고 어려웠던것이다...

너인은 통곡하고싶도록 안타까왔다. 기동처럼 민고살던 남편이 꿈에도 생각 못한 치욕스러운 마음을 먹은줄 알게 되자 그 하늘이 통채로 무너져내렸다...

(사람이 배은망덕하기로... 어찌면...)

울컥 치미는 배신감에 몸을 부르르 떨던 너인은 방바닥에 떨어진 편지에 다시 눈길이 미치었다.

...아마 당신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을거요. 아이때문에 나오기 힘들면 누구한테 말기시오. 마음을 모질게 먹읍시다...

너인은 심장이 터지는 고통에 악! 소리를 치며 까무라쳤다.

그렇게 아버지는 제 살점을 무자비하게 버렸다. 그렇게 아이는 자기를 낳은 생의 뿌리를 잃었다. 무엇이 다르랴. 뿌리채 뽑히어 땅바닥에 덩구는 은백양파. ...

세월이 흘렀다.

포연이 가셔진 이 땅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줄창 해비치는 푸른 하늘이 들렸다.

그러자 뿌리를 잃은 그 《버려진 아이》는 자라기 시작하였다. 마치도 기름진 땅에 심은 씨앗처럼 아무런 근심도 차별도 모르고 쑥쑥 키를 솟구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무료교육의 혜택아래 해마다 철따라 교과서와 교복까지 받으며 소학교와 중학교, 대학과정까지 마쳤다.

그후 벽찬 로동현장에 뛰여든 그는 기술혁신과 발명의 숨은 공로자로, 높은 급의 국가수훈자로 되었다. 그리고 그는 들끓는 로동현실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한 생활들을 글로 옮겨놓기도 하였다. 그지없이 미숙하고 서툰 글이었건만 그의 뿌리가 내린 대지는 그것이 대견하고 귀중하여 무성하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자양분을 부어주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가슴속에는 남모르게 하나의 소원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싶은 그 간절한 소원은 꿈결에도 자주 나타나 그를 못건디게 충동하였다. 그는 당원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 티없이 순결한 양심을 갖고싶어 때로는 발전조건설장에 몸을 잠그기도 하고 때로는 참된 당원의 모습에 매혹되어 낮과 밤을 이어 창작의 펜을 달리기도 하였다...

위대한 사랑은 가슴속 깊이깊은 곳에 묻어둔 그 소원마저 뜨겁게 헤아려주었으니 그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는 영광도 지니게 되었다.

당원증을 받아안던 날 그는 이렇게 심장의 말을 터쳤다.

...나의 아버지는 연필 한자루, 학습장 한권 위여준적 없이 나를 버렸어도 나는 오늘 선군혁명시대를 붓대로 웅위하고 빛내이는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이 되었습시다. 진정 어버이장군님의 품은 나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 키워주는 나의 삶의 은인이고 나의 꿈도 소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생의 뿌리입니다...

아버지가 버린 아이... 그 애가 바로 나였다. 한갓 숨쉬는 작은 생명... 위대한 사랑은 나를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최절정우에 세워놓았다.

수년전 나의 어머니는 뜻밖에도 해외교포조직을 통하여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전쟁의 와중에 무주고혼이 될 줄 알았던 남편, 북아메리카에서 사는 나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다.

여보, 불러도 불러도 대답없을 당신인줄 알면서도 부르고 싶어 또 부르오.

그리고 곱디곱던 당신의 까만 머리 이제는 내고향의 솜눈처럼 하얗겠지. 그리고 이쁘던 당신의 조그마한 손 이제는 주름투성이겠지. 그 손이라도 한번 잡고... 당신의 발부리에 얹드려 빌고 또 빌고 싶어 부르고 부른다오. 여보...

아버지는 어머니앞에 빌고있다. 무엇을 빌려는지 딱히 알수 없었다. 고향과 처자를 버린 속죄인지, 빈농의 자식이던 자기를 공화국의 어엿한 대학생으로까지 내세워주었던 당과 조국을 배신한 반성인지... 아무튼 분명한것은 옳게 살지 못한 사람이 옳게 산 사람한테 비는 용서였다.

《옳게 산다》는 이 말처럼 외우기 쉬우면서도 한생이 함축된 말은 없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좌표대로 살아온 아버지, 그판에는 《관직》도 있음직하고 먹고살아가는 재물도 넉넉한듯싶다. 그런 사람이 한갓 수수한 농촌의 로파, 한뼉 벌에서 살며 벌을 가꾸어온 어머니의 터갈라진 손을 잡고 얹드려 빌고있다.

인생의 《옳음》과 《그름》, 의로움과 수치, 성

패가 무엇이며 인간의 존엄높은 인격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심각한 극적대조이다.

나의 어머니 역시 옳게 살수 있는것은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 지켜주었기때문이며 어머니자신이 한순간도 그 품을 떠나지 않았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의 뿌리는 저 멀리 지나온 세월의 지평선너머 80 년전에 심여졌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화전땅에 심으셨던 《ㄷ.ㄷ》의 애어린 나무, 그것은 인간을 온갖 착취와 구속에서 해방할뿐만아니라 인간을 참되고 정의롭게 가꿔주는 나무였다. 나는 그 나무에 피어난 한송이의 꽃이며 열매다. 이 나라 수천만사람들의 운명도 다름이 없으리라.

문득 나의 머리속에는 좀전에 보았던 강변에 넘어진 은백양나무의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 억수로 쏟아진 비와 광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은백양나무...

세월의 눈비와 침략의 폐구름장들이 밀려오던 《고난의 행군》의 그 나날속에서도 끄떡없이 지심 깊이 뿌리내린 《ㄷ.ㄷ》의 거목은 김정일장군님의 열화같은 광복사랑의 숨결로 숨쉬며 그 억센 줄기와 풍만한 잎새를 온 나라와 온 누리에 펼치고있다.

무궁토록 푸르려 솟아있으라, 인간사랑의 뿌리로 높이 솟은 《ㄷ.ㄷ》의 거목이여!

10 월의 붉은기

리창식

10 월 8 일

력사의 그 아침에도

당중앙청사엔 숨엄히 나뭇겼구나

우리 당의 붉은기

불타는 마음과 마음이

우리 당 총비서로

장군님을 모신 날

그이는 저 붉은 기발로

천만심장과 뜨거운 말을 나누셨나니

붉은기

붉은기 너는

우리 장군님의 가장 성스러운 추억

혈전만리에 세차게 나뭇겨

그이의 뉘을 물들인

백두의 첫 빛갈

너의 기폭속에 있었더라

백두광야의 눈보라를 헤쳐

준엄한 혁명의 언덕들을 넘어

우리 수령님 바쳐오신 위대한 낮과 밤

고귀한 그 한생

그래서 영생하시는 아버지품에

장군님은 붉은 기발을 엮어드리셨던가

붉은기 너는

우리 장군님의 가장 열렬한 맹세

시련의 폭풍 날리는 고난의 언덕우에서

피더운 가슴에 말아안으신

우리 당

수령님의 조국

운명의 총대우에 흐른
 선군의 날과 날이
 너와 함께 있었다
 오성산과 철령의 굽이굽이가
 북방의 차디찬 눈길이
 너를 지켜 펼쳐져있었다

붉은기 너는
 우리 장군님의 가장 큰 사랑
 불타는 심장에 안고 사시는
 가장 아름다운 래일

저 기발이 나뭇기는 곳에

10 월의 하늘은 창창 열리고
 저 기폭아래 대지는
 풍요한 오곡백과로 설레여라
 번영의 기념비들을 떠이고
 눈부신 래일이 벅차게 달려와라

아 새 세기의 하늘아래
 변함없이 붉은기를 안고오신분은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 한분
 위대한 그 품에 안겨
 우리의 붉은기는 영원하리라
 우리 당의 세월은
 그이 심장의 박동으로 흐르리라!

붉은기수호자

-이 시를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삼가 드린다-

알렉산드르 브레쥬네프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봄을 기다리는 전야처럼
 기다렸노라 4 월 25 일이어
 혁명의 총대가 탄생한 날
 장하여라 총대여
 4. 25 에 영광을 드리노라

첫 싸움의 그날처럼
 열병광장에 울리던 철의 소리
 지금도 내 귀전에 울리여라
 최고사령관의 그 음성
 -영웅적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기쁨에 들먹이는 심장들의 분출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영광을
 내 보노라
 발걸음 드높이 나아가는 열병총대들
 답례를 보내시는 령장의 그 손길!

번쩍이는 서리발총창
 빛을 뿌리는 군모의 붉은 별
 그것은 정녕 백두산에 불타는 태양

그 태양의 빛발이런가
 가장 광휘롭고
 가장 존엄높은
 이 나라의 성산에서 비쳐오는것!

장하여라 무적필승의 군대여!
 불덩이같은 병사들의 발걸음이어!
 승리만을 안아온 땅크들의 대오
 지축을 흔드는 무한케도소리여!
 그것은 정녕 정일봉이 터치는
 우뢰소리가 아니더냐

병사들의 얼굴마다에 비낀
 승엄한 맹세
 자동총을 틀어쥔
 병사들의 억센 손길
 빛나는 그 눈동자엔
 억년 드눌지 않는
 백두산악의 기상이 어렸는가

내 들노라
 정의의 수호자의 목소리
 -사랑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 없이는 살지 못한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강철의 대오
 총대로 붉은기 지키리라!
 총대-
 그것은 빵보다 더없이 귀중한것!
 마치와 낫, 붓우엔 언제나 총대
 총대가 있어
 평화로운 로동의 력사가 빛나거니
 총대는 진리의 광원
 모든 승리의 상징!

그대 장군의 손길 한번 쳐들면
 온갖 검은 세력들
 살길을 찾느라 아우성치고
 자비를 모르는 총대앞에
 공포에 질려 벌벌 떠다

그대 장군의 안광
 그것은 원쑤의 머리우에 번쩍이는
 장검!
 그대 장군의 시선
 저 멀리 콩크리트장벽도 녹여내고
 총포탄의 퇴성을 불러
 불바람을 안아오거니
 그대 장군은
 온 나라 수백만총검의 숲을
 일떠세우고
 그대의 병사들 장군과 함께
 총대의 승리를 안아오리라

적을 지척에 둔 관문점
 안개도 그대를 정답게 감싸주고
 그대 어뢰정갑판우에 나서면
 사품치는 격랑도
 그대 장군을 성새인양 옹위하여라

최고사령관은 언제나
 최전방감시초소
 총포탄이 미치는 그곳에 계시나니
 하여 이 나라 아이들

즐거운 노래속에 야영소로 떠나고
 사랑하는 이 나라 인민들
 평온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여라

조선의 풀 한포기
 건드리려는자 누구냐?
 조선의 맑은 하늘
 더럽히려는자 그 누구냐?
 평화로운 바다에 기여드는
 해적의 무리
 동서해 심연속에 수장되리라

백두의 용사들 지켜선 나라
김정일조선-
 그것은 정녕 강철로 다져진 나라
 조선을 건드리려는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온갖 원쑤들이여
 -우리를 건드리려는자
 이 행성우에 피할 자리가 없다!

병사들의 총대가 있어
 머리우에 푸른 하늘이 있고
 병사들의 총대에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렸거니
 조국의 병사들
 언제나 총대의 기상으로 숨쉬고
 언제나 최고사령관과 일심동체!

병사들의 군복에 붉게 타는령장
 그것은 그대 장군이 수호한
 붉은기의 한부분!
 병사들의 군모에 빛나는 오각별
 그것은 백두산장군별들의 반짝임

축포여 오르라!
 최고사령관께 영광을
 군악이여 울려라!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영광을!

로씨야



1

적후의 깊은 밤, 군단지휘부가 자리잡은 골안에 눈보라가 사납게 휘몰아친다.

어둠속에서 맹수마냥 으르렁거리던 눈보라는 갑자기 쇠된 포효성을 지르며 창문가로 덮쳐들었다.

쉬임없이 울부짖으며 태질하는 눈보라, 눈보라... 성애가 두툼하게 내불린 창밖 어디에서 나무 얼어터지는 소리들이 쩡쩡- 메아리친다.

그렇지만 최현은 수류탄깍지로 만든 석유등을 작전지도에 비쳐가며 밖에서 울려오는 온갖 불안스런 소음을 감감 잊어버렸다. 그의 온 신경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최근 인민군부대들에 하달하신 평양해방작전방침을 연구하는데 집중되어있었다.

탁탁탁, 불꽃튀는 소리와 함께 난로에 올려놓은 군용밥통에서 김발이 푸푸거리며 뿜어나와 옷바람에 흩날리었다.

찬기운을 막으려 휘장처럼 쳐놓은 출입문가의 모포가 들썩했다. 이어 부관이 들어서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군단장동지.》

최현은 이마말의 수북한 장미를 한번 움썹거릴 뿐 지도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묻는다.

《무슨 일이요?》

부관은 앞에 다가가 비로도천으로 정히 썬것을 헤치더니 작전탁우에 내놓았다.

《경계초소에서 늦게 후퇴한다는 사민들을 단속했는데 일행중에 이런 사진을 가진 사람이...》

무심결에 쏘프려졌던 최현의 눈이 별안간 크게 흠뻑졌다.

(?!...)

조국개선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식인체취가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서계시는 사진이었다. 배경으로는 눈익은 공산당청사(당시)의 뽕죽지붕이 우뚝이 솟아있었다.

《알아보니 남조선에 정치공작대로 나갔던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라고 합니다.》

순간 최현의 뇌리에서 섬광같은것이 평꽃하였다.

《빨리 사진의 임자를 데려오오... 어서!》

부관이 문밖으로 급히 사라지자 그는 흥분된 걸음으로 작전탁두리를 성급히 오락가락하였다. 고산진에서 헤어질 때 수령님께서 거듭 부탁하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

최현의 눈앞에는 최고사령부에서 있는 일들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락동강계선에서 천만뜻밖에 받아안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명령, 그때로부터 부대는 가렬처절한 격전을 벌리며 아군 기본집단의 리탈을 보장하기 위해 마감까지 버티다 맨 나중에야 북으로 발걸음을 내짚었다.

계속되는 적과의 조우전에 이은 강행군, 굽주림에 곁싸이는 피로... 끝내 최현은 최고사령부가 있는 고산진에 가닿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무실로 쓰시는 ㄷ자형의 아담한 농가.

최현은 나는듯이 토방에 올라서서 문을 당겼다.

《장군님!》

《...》

집무실은 비어있었다. 자주색책상보와 전화기만이 눈에 확- 안겨들었다.

허전함이 일순 갈마들던 가슴노리가 후둑 높뛰

기 시작했다. 대문밖에서 들려오는 귀익은 발자욱소리를 거의 본능으로 느꼈던 것이다.

《아, 장군님!》

최현은 토방에서 다시 뛰어내려 트랙을 가로지르다가 비칠하였으나 그냥 달려갔다.

《최현동무!》

수령님께서는 걱정을 터뜨리는 그를 뜨겁게 포옹하였다.

삽시에 마당가는 넘치는 정과 환희로 들끓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는 최현을 집무실로 손잡아 이끄셨다. 손수 의자를 권하시고 자신께서도 자리에 앉아 전사의 터갈라진 입술과 병색질은 얼굴을 아픈 눈길로 살펴보시었다.

최현은 마치 10년만에 부모를 만난 자식마냥 흥분을 억제 못하며 부대의 후퇴정형을 보고드리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최고사령부의 연락군관을 만나던 대목에 이르렀을 때 전화종이 울렸다.

수령님께서는 랑해를 구하시고 송수화기를 들자 웬일인지 안색이 심중해지시었다. 인자하고 다심한 정이 봄빛처럼 어렸던 눈가에서 서늘한 번개불이 일었다.

《총참모장동무, 그곳에서 가까운 8사에 명령하여 적들을 즉시 포위섬멸케 하시오. 종합대학의 교원, 학자들을 머리칼 한오리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선생들의 당면한 교수준비를 각방으로 도와주어야겠소.》

그이께서는 짙어졌던 송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눈길을 이쪽으로 돌리시었다.

《적들이 종합대학이 소개된 곳을 노리고 기여든다고 합니다.》

이제 3계단작전이 끝나면 일시 중단되었던 대학교육을 계속 하려는데 무슨 냄새를 맡은 모양이요.》

최현은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키다 도로 앉으며 의혹어린 눈길을 들었다.

《예?... 대학공부를 말입니까?》

《그렇소. 나는 종합대학을 비롯한 모든 대학들에서 지체없이 전시교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최현의 벌거우리하게 피발이 선 눈동자가 급기야 화등잔만 해졌다. 수북한 장미오리들이 푸들 뒤채이였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사가이다. 때문에 조국앞에 부닥친 위기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15개 추종국군대를 조선전쟁에 끌어들이던 미제 우두머리들은 랑동강계선에서 거의 《포위섬멸》되고 살아난 공산군의 《잔여부대》는 적어도 《감은절》전으로 《피멸》시키고 전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할것이라며 세계에 대고 떠벌였다. 실제

로 어마어마한 대병력이 압록강가에서의 《전승축배》를 기정사실화해놓고 총공격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런데...

최현은 가쁜 물숨을 토틔었다. 그 소리를 놀려버리듯 밖에서 문풍지가 뒹뒹 울었다.

문득 비상한 그 무엇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였다. 지금껏 수령님을 모시고 싸우면서 남달리 체험하였던 사실들이 불현듯 되새겨졌다.

우리 혁명이 가장 준엄한 난국들에 처했을 때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천품적인 락관을 지니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셨다. 뿐만아니라 탁월한 선견지명과 령도로 당시에는 누구도 생각 못한 래일의 일을 바로 오늘에 설계하고 실천에 옮기시였다.

인류사를 거슬러보면 전쟁과 교육사업이 병행된적은 고금동서에 없었다. 나라의 모든것을 전쟁에 총동원하기때문이다. 여기서 교육자와 학생도 례외없이 그 모든것에 속하였었다. 고대의 트로이전쟁때부터 가깝게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침략자들의 어지러운 군화소리가 거의 전역을 휩쓸고있는 이때 상상밖의 전시교육을 결심하신것이다. 범속히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가슴벅찬 일이었다.

《아니, 왜 그러오?》

수령님께서는 연신 두눈을 슴벅거리는 최현에게 다심히 물으셨다.

《장군님, 제... 그만 담배생각이 나서...》

최현은 급히 호주머니를 뒤졌다.

《참, 내가 애연가를 마주하고도 만난 기쁨속에 잊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책장으로 다가가 서랍을 여시였다.

《반공격에 나선 병사들에게 공급되는 담배데 맛이 어떤가 해서 몇갑 건사했던거요. 어시 피우시오.》

최현의 총이 센 장미오리들이 또 한고패 꿈을 하였다. 벌써 반공격이 준비되었고 담배까지 병사들에게 공급되다니... 그렇다면 전시교육문제도 벌써 껍 이전에 구상하고 결심하신것이 아닌가!

그는 수령님께서 손수 터뜨려주신 담배곽속의 한대를 정히 뽑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호박물부리를 꺼내여 끼워들었다. 아득한 빨찌산시절에 수령님께서 첫 상봉의 기념으로 주신 사연깊은 물부리였다.

《제 그럼 담배를 피우겠습니다.》

이어 벌스레 구수하게 느껴지는 담배연기를 폐장에 들이켰다. 련거퍼 맛스럽게 담배를 빨던 최현은 감회어린 눈길을 들어 수령님을 우러렸다.

《장군님, 공부말이 났으니 거 백석탄에서 군정 학습을 하던 나날이 생각납니다. 그때 쪽발이들

이 우리 조선인민혁명군모두가 <동태귀신>이 됐다구 오죽이나 떠들었습니까. 하지만 우린 병실마다 군불을 뜨곤하게 때놓고 조국해방을 위한 공부를 하고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으루 놈들을 기절초풍케 했었지요.》

어느사이 신심과 담이 커지며 부풀어오른 가슴을 술술 어루쓰는 그를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호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100만이냐 되는 관동군의 포위속에서도 올방자를 틀고앉아 군정학을 했는데 당과 군대가 있고 정권과 인민대중이 있으면서 전쟁이 어렵다고 교육사업을 미룰수가 있겠소?》

이때 인기척이 나며 강부관이 방에 들어섰다.

《장군님, 홍명희부수상이 뵙자고 왔습니다.》

수령님께서 반색하여 몸을 일으키셨다.

《아, 내가 만나자 했소.》 하시며 열른 나들문을 여시고 서류가방을 낀 홍명희를 방으로 이끄시었다. 그리고서는 최현과 인사를 나누게 하셨다.

잠시후 홍명희가 그이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교육부문 일군협의회 참가자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수고들이 많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책상우에 놓인 서류철에서 문건 하나를 뽑아 그에게 내미시었다.

《교육성과 대학들의 소개정형에 기초하여 내가 생각해본 전시교육내용들을 요약한겁니다. 오늘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더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홍명희는 한조항 한조항씩 활달히 적어놓으신 문구들을 감동어린 눈길로 뜯어보더니 이어 몸가짐을 정중히 했다.

《장군님, 그럼 곧 협의회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흥분으로 떨렸다.

《허헌 총장선생의 말에 의하면 종합대학에서 정치공작대로 나갔던 박형석학부장네 조가 아직도 도착하지 못했다는데 무슨 소식이 없습니까?》

수령님의 각근한 물으심에 홍명희는 대답을 못드리고 그저 발방아만 짚었다. 그런 문제까지 깊이 알아보지 못하였던것이다.

못내 죄송스러워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워진 그에게 수령님께서서는 다정히 밀씀하셨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보겠으니 부수상선생은 곧 협의회를 일정그대로 내밀어주십시오.》

홍명희가 정중히 인사드리고 나간 후에도 그이께서는 창가에 서서 남쪽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추운 날씨에 몸들이나 성해있는지 모르겠구만.》

혼자소리로 뇌이시는 수령님을 젖은 눈길로 우러르며 최현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그이께서는 아직 소개지에 당도하지 못한 박형석이네때문에 무척 근심하고계셨다....

이튿날 수령님을 따라 소로길을 걸던 최현은 노래소리가 울려오는 골안에 눈정기를 모았다. 양지바른 기슭에 청석기와를 얹은 교사가 자리잡은것이 보였다. 흰눈이 조금 깔려있는 운동장에서는 소학생으로 짐작되는 대오가 씩씩하게 목청을 뽑고있었다.

꽃동산 삼천리 새동이 튼다

새로운 아침에 광명이 왔다

...

저도 모르게 눈곱이 쿵 저러났다. 너무도 숨결처럼 몸에 배였던 정든 생활화폭들이 지그시 감은 눈앞으로 꿈결처럼 흘러가고있었다. 당창건,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정규무력의 창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포 그리고 입단하는 어린 학생에게 소년단넥타이를 매여주던 그날의 가슴짜릿한 기쁨...

통탕거리는 모터찌클소리가 가까이에서 울리자 최현은 편뜻 현실로 돌아왔다. 보초소쪽에서는 만탄창을 한 모터찌클병들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군단장으로, 제2전선련합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최고사령부를 떠나고있음을 비로소 의식했다. 준엄한 결사전의 전구가 그를 부르고있는것이였다.

《최현동무, 한가지 긴한 부락을 들어주오.》

작별에 앞서 수령님께서서는 전사의 손을 감싸주고 힘들게 말씀을 꺼내셨다.

《이제 적후로 가면 여러가지 원인때문에 후퇴가 늦어지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 특히 정치공작대로 나갔던 종합대학의 박형석선생을 비롯한 교원, 학자들을 우선 찾아내어 최고사령부로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믿음에 찬 눈길을 들어 말씀을 이으셨다.

《어려운 임무를 안고 떠나는 동무에게 정말 미안하오만 어찌겠소.

교육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사업이요. 우린 전쟁국면이 아무리 엄혹해도 나라의 역군들을 키우는 일을 잠시라도 늦춰선 안됩니다.

재삼 말하지만 전쟁을 이기는건 시간문제요. 그러나 교육사업을 늦추면 부강조국의 래일이 묘연해진단말입니다.》

《장군님!...》

최현은 목이 꺾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2

박형석은 사진에서의 모습 그대로 중년나이에 키가 훗칠하고 얼굴이 갱끗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영거주춤하고 방에 들어서는 그를 최현이 난로 가까이로 이끄는데 씩씩거리며 쫓고 동여맨 지하측과 불에 그슬려 송송 구멍들이 뚫리고 찢기여진 바지가랭이에서는 얼음버께가 와삭거리어었다.

최현은 난로앞에 그를 앉히고 군용밥통의 더운 물을 뚜껑에 따라 내밀었다. 형짚으로 싸맨 두손에 군용밥통뚜껑을 받쳐들고 한모금 한모금씩 힘들게 들이마시는 거동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던 최현의 가슴노리로 전류같은것이 지나가며 심장부위를 아프게 자극한다. 불현듯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근심어린 모습이 떠오른것이다. 전쟁의 모든 중하를 안으시고 하실 일이 오죽 많으랴만 미처 후퇴 못한 저네들까지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이이시였다.

《으-음...》

피로운 신음소리가 입밖으로 새어나갔다. 뚜껑을 다시 덮은 군용밥통에서는 물방울이 칙칙 떨어져 부적거린다.

언몸이 다소 풀린 박형석은 그제야 눈총기를 모아 방안을 둘러보다가 군단장의 푸들거리는 불편에 흠칫 시선을 멈추었다.

(?...)

자기를 지름떠보는 최현의 입가에서 당장 줄옥이 쏟아질것만 같다.

아닌게아니라 최현은 정찰병들이 적후를 종횡무진하며 그들을 찾았는데 어디서 해메이다 이제야 나타났느냐고 다물아세우려 했었다. 그렇지만 갖은 고생의 흔적들이 력연한 행색끝에 눈길이 붙잡히자 뺨-입맛을 다시였다.

《정말 한심하구만...》

그는 노기를 애써 누르며 말을 잇는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아직 소식이 없는 선생들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계시는지 알기나 하오?》

박형석은 화뜰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제 귀를 의심하듯 잠시 멍하니 돌부처마냥 굳어졌던 그는 마른침을 삼키고나서 작전たく으로 바투 다가와 되묻는다.

《군단장동지, 이자 뭐했습니까?... 장군님께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저희들때문에 근심하신단 말입니까?》

최현으로부터 고산진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과 헤여질 때 자기네의 행처를 찾아 최고사령부로 보내달라고 거듭 신신당부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난 형석은 그만 목메여 부르짖었다.

《장군님! 나라가 생사기로에 놓인 때 저희같은 것이 뭐길래 그다지도 마음을 쓰십니까?》

급기야 겨칠해진 량볼로 락수같은 눈물이 흘러 내려 작전지도에 덧무늬를 그려놓는다.

최현은 주섬주섬 장작가치를 집어 난로에 집어 넣으며 학부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아궁속에서 불길의 세찬 열기를 내뿜는다.

이윽해서야 그는 사진을 비로도천에 다시 정성스레 싸서 형석에게 내밀며 그 사연을 물었다.

삼천리강산이 해방의 환희속에 들끓던 그해 11월초순이었다.

그때 평양공설운동장에서는 광주학생사건 16돐을 계기로 청년학생들의 집회가 큰 규모로 준비되고있었다.

박형석이 가설무대형식으로 꾸리는 주석단을 책임지고 일군들과 함께 드바삐 돌아치는데 누군가 그를 찾았다. 돌아보니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청년이 거수경례를 하고 묻는것이였다.

《교육국에서 일하는 박형석동지가 뵙습니까?》

《그렇소.》

그가 어정쩡해서 대답하자 청년이 속삭이듯 알려주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에 나오시였습니다.》

순간 형석은 손에 들었던 망치를 떨어뜨리며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주석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장군님을 어떻게 모시겠는가?

《장군님께서 동지를 부르십니다.》라고 젊은이가 귀엣해서야 그는 옷매무시를 급히 바로잡으며 모두에게 일손을 다그치라고 소리쳤다. 그러고나서 청년을 따라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실실한 아지들이 초겨울 바람에 설레이는 큰 버드나무밑에서 수행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계셨다.

형석이 당도하여 인사를 올리자 그이께서 반가이 손을 잡아주시였다.

《마침 교육국의 부부장동무가 왔습니다.》

《저... 장군님, 아직 주석단을 미처...》

《그럼 기다리면서 그사이 교육문제를 토론했시다. 참 부부장동무, 교육국이 세우고있는 새 조선의 교육발전계획을 좀 들어봅시다.》

박형석은 대번에 몸이 굳어졌다. 불우물을 짓고 자기를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눈길에 속이 줄어드는듯싶었다.

명색이 교육국이라고 하지만 아직 누구 하나 푹푹한 일가견을 내놓지 못하였고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후과를 가져내기 위한 방도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형편이었다.

감히 말문을 열수 없어 바채이기만 하는 그에게 수령님께서는 너그러운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한심한 현 교육실태를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실례로 40만의 인구를 헤아린다는 평양에도 대학은 교사하고 기껏 중등학교와 전문학교 몇개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새 나라를 일떠세우자니 어디서나 요구되는 것이 민족간부와 인재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는가, 우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봅시다.》

그 말씀에 박형석은 용기를 내어 얼굴을 들었으나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씀올렸다.

《머칠전 당과전원동지가 새 조선의 교육문제를 연구해볼데 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교육국에 포치한후부터 어제 밤 늦게까지 감론을박을 하며 토론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죄스럽지만 솔직히 털어놓으니 긴숨이 나갔다. 좌중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수령님께서는 팔을 엇걸으시고 앞뒤로 거니시다가 혼자소리조 조용히 뇌이시였다.

《정녕 방도가 없겠는가?》

수행원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속후련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장군님, 건국사업에서 가장 어려운것의 하나가 교육문제라고 합니다. 당장 달라붙는다구 해서 똑딱거리며 만들어낼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이지 장구한 나날속에 해결되는것이 교육인것 같습니다.

더구나 갓 해방된 지금 형편에서...》

박형석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수령님의 안광에서 번개와 같은 강렬한 빛을 보았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모두의 가슴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분위기를 순간에 걷어내시려는듯 준절한 어조로 말씀하였다.

《오늘 새 나라를 일떠세우는데서 초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육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민족간부와 인재육성입니다. 민족간부와 인재가 많아야 국가의 기틀이 든든하게 다져지고 정치, 경제, 문화도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게 됩니다. 교육사업은 곧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입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는 평양에다 자체로 각 부문의 민족간부와 인재를 육성해낼 종합대학부터 지체없이 내와야 한다고 봅니다.》

《?...》

거대한 퇴성소리를 들은듯 박형석은 순간에 귀가 멍멍해졌다. 그만이 아닌 수행원들모두가 천만뜻밖으로 울리신 수령님의 확신에 넘친 말씀을 꿈결처럼 받아안은듯 커다래진 눈에서 까만 동자들이 바르르 떨고있었다.

한참만에야 형석은 가쁜 숨소리를 내며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저... 말그대로 빈터인 형편에서 어떻게 종합대학을 세... 세운단 말입니까?》

수령님께서 너그러이 웃으시면서 모두를 둘러보다가 그에게 되물으셨다.

《왜, 불가능하다는겁니까?》

그때 한 일군이 한발 나서며 말씀올렸다.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어서... 또 아직은 세계적으로 그런 실례를 찾아볼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수령님께서는 심중하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하시더니 오래전부터 사색하여오신듯 의논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물론 인류사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종합대학부터 내와야 한다고 보는가.

그것은 종합대학이 있어야 새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맡아안고 일해갈 역군들을 동시에 양성할수 있고 이것에 토대하여 빠른 기간에 여러 대학을 내올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합대학은 새 조선 교육사업의 원종장으로 되며 민족간부와 인재육성의 중심기지로 될것입니다.》

형석의 눈앞에서 번개불꽃이 평곳 하였다.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그 빛발로 하여 아찔해졌다. 저도 모르게 감았던 눈을 떠보니 창창하니 열린 만리대공이 망막에 확 안겨들었다.

《장군님! 어찌면... 어찌면 그런... 력사에 전무후무한 명안을 순식간에 내놓으십니까?!》

그는 목메여 부르짖으며 수령님을 경탄에 찬 눈길로 우러렸다.

매를 같이하여 공설운동장에서 와- 환성이 터져올랐다. 헤아릴수없이 모여든 청춘남녀들모두가 다 꾸러진 주석단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높이 모시자 손을 흔들며 연방 환호를 울리고 있었다. 바로 얼마전 개선연설을 하시는 그이를 뵈고 감격에 울며 모란봉이 들썩하도록 만세소리를 터치던 그 광경을 방불케 했다. 저 젊은이들은 이 시각 자기들의 앞길이 어느분에 의해 창창히 열려지고있는지 아직은 모르고있다.

부지중 박형석의 뇌리에 엉뚱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상의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교육과정을 거치신게 아닐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이께서만이 새 조선의 교육이 틀어쥐고나갈 그토록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가장 빠르고 옳은 진로를 명철하게 밝혀주실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핑- 젖어드는 눈을 슴벅이며 세차게 솟구치는 흠모감으로 가슴들먹였다....

창밖의 어둠속에서 눈보라가 여전히 맹수처럼 울부짖고있었다. 군용밥통에서는 세찬 김발이 푸꾸거리며 뿜어나왔다.

형석의 이야기에 심취된 최현 군단장은 어깨에 걸치었던 외투가 벗겨진것도 모르고 앉아있다.

그의 눈앞으로는 해방된 이듬해의 가을날 김일성종합대학 창립을 선포하실 때 수령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거룩하게 떠올랐다.

《…그날 집회에서 청년들에게 격려사를 하시고 난 장군님께서 저를 데리고 집무실로 가시어 장시간 교육사업과 종합대학창립준비를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헤어질 때 정원까지 나오신 그이께서는 우리 오늘을 기념으로 사진을 한장 찍자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광을 받아안았습니다.》 하고 형식은 품속에서 사진을 정히 간수한다. 아마 그때부터 늘 가슴에 품고있었을것이였다.

그는 종합대학의 창립과 함께 교육자로 되었고 서울시가 인민군대에 의해 해방되자 정치공작대를 이끌고 그곳에 새로 일떠설 대학들의 교수진영을 꾸리였었다.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져간 교원들을 찾아 광주까지 나갔던 형식이네 조가 서울에 돌아오니 적들이 다시 기여든 뒤끝이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남조선에서 따라나선 교원 여러명을 이끌고 뒤늦게야 후퇴의 길에 올랐다. 은밀히 시가지를 빠져 밤에만 산발을 타고 행군했으나 준비되지 못한 남조선출신의 교원들이 무척 힘들어하며 애를 먹었다. 좌절감과 불안, 굶주림과 동요, 추위와 병마… 얼마후에는 변절자가 생기여 적의 포위속에 들었다. 적수공권으로 포위속을 빠져나가자니 그 간난신고는 어찌했으며 사선의 고비들은 또 몇번이나 넘었겠는가. 한걸음 한걸음씩 그대로 결사적이었다. 하여 끝내는 아군 제2전선부대를 만났던것이다.

최현은 몸을 일으키며 형식의 두어깨를 짚 그럭잡았다가 놓았다.

《그 어려운 속에서두 남조선출신의 교원들까지 이끌고오자니 정말 수고했소. 장군님께서 무척 기뻐하실거요. 지금 교육자 한사람이 정말 귀한 때란 말이요.》

그는 부관을 불러 형식이네 일행을 더운 방에서 휴식시키라고 일렀다.

《가서 한두시간이라도 눈을 붙이시오. 날이 밝으면 출발하도록 합시다.》

박형식이 부관을 따라 나가자 최현은 곧 지휘관들을 불러 작전회의를 소집하였다.

새날이 밝자 제2전선련합부대는 평양해방을 위한 진출계선으로 출발준비를 서둘렀다.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는 박형식이네 일행은 중무장한 소대의 호위속에 별도로 움직이였다.

3

풍을 벗기고 위장그물만 씌운 군용차가 건지리

를 향한 갈림길로 꺾어든다. 전선동부의 여러곳을 돌아본 남일총참모장과 그의 군용차를 함께 타고 오는 최현이 뒤좌석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늦장마철의 찜물쿠는 폭양이 위장그물을 뚫고 그들의 장령모와 어깨를 볶음판인양 지저댄다. 그렇지만 몸들을 등받이에 파묻고 하나같이 심각한 얼굴색을 풀지 못하였다.

요즘 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저돌적으로 번져간다. 최현이 군단장으로 있는 전선동부의 1211고지에서만도 하루에 수십차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지를 빼앗으려는것이 놈들의 속심이었다. 쫓겨난 맥아더대신으로 《유엔군사령관》의 자리에 들어앉은 릿지웨이는 한동안 정전담판장에 대표를 내보내지 않더니 1211고지를 목표로 대규모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획책하고있었던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때문에 남일과 최현군단장을 급히 부르신게 아닐가?

마침내 꼭 다물렸던 최현의 입이 열린다.

《우리 군단에 예비대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

두 장령의 고뇌어린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쳤다.

남일은 쥐고있던 담배가치를 줌안에 넣고 부스러뜨리며 애써 시선을 피하였다.

《지금 산악전에서 구실 못하는 직사포들을 철수시켜 동해안방어대로 돌리자니 전선의 여러군데가 뭉텅뭉텅 끊어질 형편이요.》

백전로장이 오죽하면 예비대소리를 끄집어냈으랴만 우는 소리밖에 다른 대답을 할수 없게 된 그의 입가에서 피로운 한숨소리가 터지였다.

최현은 끄 하며 자리를 고쳐앉는다. 부질없는 말을 꺼냈다고 후회하는듯 이후로는 눈까지 지르 감고있었다.

군용차는 숨가빠 고개길을 뚫아오르더니 물매가 급한 내리막에서는 뒤꽂무니를 몹시 들추며 미끄러졌다.

그들이 최고사령부에 도착한 때는 석양녘이였다. 직일군무인 작전국의 대좌가 땅에 내려서는 장령들에게로 달려와 거수경례를 하였다.

《장군님께서 계시오?》 하고 남일이 옷매무시를 바로 잡는다. 최현군단장도 모자를 벗어 군복의 먼지를 털고 복장을 정돈했다.

《내각으로 가셨습니다. 저녁전에 돌아오겠다고 하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직일관의 전달을 받고 천천히 대기실로 향하던 두사람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어졌다. 귀익은 경적소리를 동시에 들었던것이다. 이어 수령님께서 타신 수수한 야전차가 굽인돌이에서 불쑥 나타난다.

장령들은 급히 마주달려갔다. 그들이 차렷하고 거수경례를 올리자 야전차에서 내리신 수령님께

서 《오느라 고생들이 많았겠습니다. 요즘은 장마철인데도 격기들이 기쓰며 날친단 말이요.》 하시며 성큼성큼 다가오셨다.

그이께서는 장령들을 량옆에 대동하시고 나란히 집무실쪽으로 향하신다.

《새학년도 교육문제때문에 내각동무들을 만나 보고 오는 길이요. 전시조건에 맞게 준비를 모두 착실히 했더구만. 아니, 그런데...》

다심한 수령님의 눈길이 두사람의 얼굴색을 번갈아 살피신다.

《기본들이 그닥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 무슨 일때문이요?》

남일이 머뭇머뭇 입귀를 실룩거리다가 말씀올린다.

《장군님, 전선형편이 여의치 못합니다. 특히 동부와 같은 산악지대에선 직사포가 은을 못내여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화력공간이 문제로...》

수령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자 그는 말마디를 삼켰다.

《직사포는 어째서 철수시키요? 총참모장동무, 바로 그 교조주의가 정말 문제입니다.》

《...》

(?...)

두 장령의 휘둥그래진 눈길들이 서로 마주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심중한 안색으로 다시 걸음을 내짚으며 말씀을 이으신다.

《우리는 전선동부의 산악지대에서 직사포를 철수할것이 아니라 몽땅 고지로 끌어올려놓고 덤벼드는 적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안겨주어야 하오. 알겠습니까? 최현군단장동무!》

최현은 하늘에서 쇠성이 울리는듯 하여 걸음을 흠뻑 멈추었다. 눈앞으로는 무수한 환영들이 얼른거리더니 샅시에 가슴벅찬 전투장면으로 크게 확대되는것이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곧 총참모장동무와 함께 토론해봅시다.》

그 말씀에 필쩍 정신이 든 최현은 수령님의 앞선 걸음을 급히 따랐다.

(적과 대치한 고지마다에 직사포를 올려다놓고 직접조준사격으로 화력효과를 최대로 얻는다는 말씀이다. 그것도 육안으로 보이는 근거리에서...)

전호가에서 난데없이 터져나가는 직격포탄벼락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돼버린 적진들과 빼도 못추리는 침략자들의 물결이 선히 떠오른다. 눈알을 희뜩 뒤집으며 전를하는 릿지웨이의 꼴불견은 또 어떠할것인가?

남일대장도 최현과 다름없이 몹시 흥분되였다.

이것은 아직 세상에서 누구도 생각해본적없는 위대한 발견이며 세계의 전쟁력사에서 있어본적

이 없는 희한한 전법이다!

그는 막히였던 가슴이 확 열린듯 크게 물숨을 들이키였다. 전선에서 돌아올 때는 최현에게 말하기조차 피로왔던 난감한 문제들이 수령님께서하신 단 한마디의 말씀에 모두 풀리자 꿈이 아닌가싶어 어리둥절까지 해졌다.

두 장령은 그이께서 지니신 천리혜안과 비범한 령군술에 경탄의 숨소리만 겨끝내기로 높이었다.

어느덧 최고사령부의 서쪽 산마루와 잇닿은 하늘가로 저녁노을이 곱게 피어나고있었다. 구질구질한 장마철치고는 보기드문 진감색노을이였다.

집무실에서 당면한 직사포문제가 론의된 후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최현에게 던지시 물으셨다.

《동무네 군단에서 한개 대대가량의 인원을 뽑아가도 별일 없겠소?》

《...》

뜻밖의 물으심에 최현은 선뜻 대답을 못드리고 총이 센 장미를 쭈뼛 일궈세웠다. 아까 이곳으로 오면서 남일에게 인원을 보충해달라던 그였었다. 얼핏 결눈질해보니 총참모장의 기색도 굳어지는 것이 알렸다.

《즉석에서 대답을 받자는것은 아니니 생각해보시오. 앞으로 1211고지를 비롯하여 군단장동무가 주력을 맡은 전선동부의 정세가 더욱 어려워질것을 생각해서말이요.》 하고 그이께서는 남일에게 말씀을 돌리신다.

《오늘밤중으로 수도방위사령부에 명령서를 내려보냅시다.》

남일은 급히 받아적을 준비를 했다.

《이곳에서 가까운 백송리에 있는 부대의 지휘부와 병실을 전부 내도록 하고 새학년도 개학전으로 대학을 운영할수 있게 준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돌연 마루바닥에 만년필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남일의 오른손이 빈채로 허공에서 굳어져 움직일 줄 모른다.

백송리에 있는 부대들은 최고사령부호위를 기본으로 평양방어의 요진동을 맡은 군부대여서 그 위치를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변경시킬수 없는 것이였다.

《장군님, 그건...》

남일은 거의 울가망이 되어 입술을 깨물었다. 느닷없이 최현의 가슴속에서 심장이 후드득거린다.

집무실에는 잠시 숨가쁜 침묵만이 흘렀다.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작전탁에서 허리를 펴시더니 절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너무 심각해서 그러지 마오. 총참모장동무도 얼마전까지는 교육자가 아니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것 못지 않게 민족간부와 인재

육성사업을 놓쳐서는 안되오. 만약 전쟁에만 신경쓰면서 승리한 다음 나라의 복구건설을 생각지 않는다면 후대들앞에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에-에?... 후대앞에 말입니까?》

《그렇소, 우리 혁명가들이 나라와 민족앞에 책임을 다한다는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제침략자를 쳐부신 이 강토에 부강번영하는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행복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자는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나는 종합대학을 먼 곳의 림포면에서 최고사령부와 가까운 백송리로 옮기고 새학년도부터 전면적인 강의를 시작하자는거요.》

《장군님!》

남일은 눈물이 글썽해서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다시 만년필을 들고 명령서를 걱정예 떨며 적어 내려간다.

불현듯 최현의 눈앞에서 고산진에서와 직후의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있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전후사연이 한곳으로 흐르는 물줄기처럼 선명해진다.

조국과 인민앞에 부닥친 난국들을 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헤치며 부강번영할 래일을 설계하시는 불세출의 위인!

우주의 천래만상을 평정하고 다스렸다는 전설속의 《조물주》도 무색케 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과연 무엇으로 뜨겁고 거룩하게 고동치는것일까?!

최현은 그 크나큰 심장을 지니신분을 수령으로 모신 행복감으로 무아경이 되었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그는 심호흡을 하며 힘있게 한발 나섰다.

《장군님, 제 생각해보았는데 고지에 직사포를 끌어올리면 한개 대대만이 아니라련대인원을 최고사령부의 예비대로 돌리겠습니다.》

막상 말씀을 드리고보니 가슴이 후련해진다.

《역시 최현동무가 통이 크단 말입니다. 최고사령부의 예비대라... 그 말 또한 결작이요.》

수령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남일을 돌아보신다. 그러시고는 두팔을 엇걸으시고 말씀을 이으셨다.

《최고사령관이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이 남일동무가 의견을 부린다면 어찌겠소? 그러지 말고 한개 대대가량의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내 간부국과 대렬국에 알아보았는데 동무네 군단에는 대학생출신의 군관, 병사들이 그 정도뿐이라오.》

《아니- 그러면?!...》

《그렇소. 내가 최현동무를 부른것은 가장 어려운 모퉁이를 맡은 동무에게서 솔직한 말을 들어보고 결심하러 그랬습니다.》

이젠 마음이 거뜰해지오. 동무들, 이제부터 새학년도전으로 대학생출신의 전체 군관, 병사들을 전선으로부터 소환하도록 준비합시다.》

《장군님! 알았습니다.》

남일대장과 최현은 한동작으로 군화뒤꿈치를 모으면서 목매여 대답올렸다.

《자 그럼, 시장들 하겠는데 가서 저녁이나 같이 듭시다. 최현동무가 좋아하는 올챙이국수도 상에 오를거요. 부관동무가 아직 옛상관의 식성을 잊지 않았더군요만...》

그 말쑤에 최현군단장은 불쑥 솟구치는 눈물을 어찌할수 없었다. 자기 식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분은 다름이 아닌 최고사령관동지이시였다.

4

생활에서는 그럴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했던것이 사실로 되여 놀라움을 자아낸 생뚱같은 일들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림포면으로 가던 허헌총장이 장마비에 불어난 대령강을 건느다 미군비행기의 폭격통에 잘못됐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천만뜻밖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으시였다. 아무튼 폭격당시에 그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이께서는 기적을 바라시였다. 행방불명이라는 한가닥의 실오리같은 보고에 운명적인 기대를 걸며 군부대와 보안서원들, 해당지역 당조직들까지 발동하여 허헌총장의 생사를 알아보도록 하셨다.

그러하셨건만... 희생은 사실이였다.

10여일만에 허헌선생의 시신을 끝내 찾아냈다는 엄연한 사실앞에 부닥쳤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억이 막히여 가슴속이 모두 내려앉는것 같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떻게 집무실을 나섰는지도 의식하지 못하셨다. 그저 발길이 닿는대로 내쳐 걸기만 하다 수림속의 오솔길가녁으로 키높이 자란 소나무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다.

경위대의 열려진 창가에서 추도곡소리가 흐느끼듯 울려나오더니 방송원의 비통한 말마디들이 고막을 저릿저릿 울린다.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이며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인 허헌선생은 지난 8월 17일 ...시경 직무수행중 적기의 폭격으로 애석하게도 희생되었음을 알립니다. ...선생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께서서는 모진 고통으로 가슴을 움켜잡으며 소나무에 기대시였다.

《허헌선생-》

쏟아지는 눈물을 건잡기가 힘드셨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던 총장선생인가.

얼마전 내각청사에서 만나본 그의 감격어린 모습이 떠오르시었다. 종합대학을 백송리로 옮기고 새학년도부터는 전면적인 교수를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도 기뻐 어쩔 줄 몰라하던 허헌이다.

자신께서 그토록 거듭 만류하셨는데 개학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여야 한다면 부득부득 기별도 없이 림포면으로 떠나다니 이런 아픔을 안겨주리라고 상상이나 하시었던가.

더없이 야속하시었다. 분하시었다. 한번 작정을 하면 고집이 하늘소뉘발통인 로인에게 미다한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설마 자신께서 하신 만류도 마다할줄이야...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놓지 못하신것이 더 후회막급하고 통분스러운 심정이시었다.

(아!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강요된 이 전쟁은 얼마나 저주로운것인가?...)

전쟁이 빚어내는 희생과 비극, 고통과 슬픔들을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게 된것이 기막힌 현실이다. 그이의 가슴아픈은 도수를 넘어 저려드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수령님께서서는 줄곧 오솔길을 따라 걷고걸으시었다.

또다시 눈앞에서 허헌의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와 무릎을 마주하고 나라의 크고작은 문제들의 논하시고 교육에 대한 일가견을 서로 터놓으시던 가지가지의 추억들... 특히 종합대학의 초대총장 임명문제를 두고 일부 사람들이 머리를 내흔들 때 자신께서와 김책이 보충하던 일이며 전쟁통에 예순둘생일은 무슨 예순둘생일인가고 본인이 고집쓰며 미루던것을 겨우 설복하시어 예순둘생일상을 받게 한 그날저녁의 눈물짓던 모습도 떠올리시었다.

문득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셨다. 뒤에서 나는 조심스런 인기척 소리를 들으셨던것이다.

돌아보시니 남일이 몇보가량 사이를 두고 비감에 잠긴 표정으로 따르고있었다. 그도 허헌총장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교육국의 책임일군으로 일할 때부터 인간적으로나 사업상에서 매우 가까왔었다.

남일은 몹시 바재이는듯 갑자르다 힘들게 입을 놀리며 말씀드린다.

《저...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제서야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허헌의 장례를 주관하게 됨을 의식하셨다.

그래, 영결식을 오후 다섯시에 시작하자고 했었지... 허헌선생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들 하고있을가? 아마 슬픔을 묵새기며 나를 기다릴것이다. 까무라쳤던 허정숙동무에게 누가 죽이라도 한술 권했는지 모르겠다.

영결식에 종합대학의 교직원들은 물론 박사원생들도 모두 참가시키라고 일렸는데... 인원수송이 제대로 되었겠는가? 대학의 당조직을 책임진 박형석은 드팀이 없는 사람이다.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문득 소스라치며 몸을 떠시었다. 가슴을 허비는듯 한 피로움이 또다시 갈마드신다. 이제 포연서린 전호마다에서 돌아오는 허헌선생의 술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한단 말인가...

이윽하여 수령님께서서는 모질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걸음을 돌리시었다.

이 전쟁마당에서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만을 감수하는것이 아니다. 사랑과 증오의 참된 의미를 체험으로 똑똑히 깨닫는다. 그리고 자기들의 존엄을 지켜 더욱더 분발하게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이런 심리를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 미래에 살고 그 미래를 앞당기는 능력을 가진 인간만이 진정한 승리자로 될수 있다.

이 일은 위대한 사업이다. 여기서 중추적인 몫을 담당한것이 바로 교육이다. 허헌선생도 이것을 잘 알고있었기에, 그리도 장달음을 놓다가 장렬하게 희생된것이 아닌가.

그렇다! 교육사업이야말로 부강조선의 천하지대본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성과여부는 물론 당면하여 미제를 쳐부시는 우리 군대의 정치도덕적우월성도 교육에 의해 안받침된것이다.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수령님의 이마에 드리워진 머리카락을 흔들며 지나간다. 이어 수령속의 나무잎들이 가볍게 술렁거렸다.

그이께서는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드시었다. 언제 나왔는지 남일의 뒤견으로 여러 일군들이 그 린듯 서있었다. 홍명희와 박형석의 침통한 얼굴 모습도 보였다.

《아! ... 기다리게들 해서 미안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애써 우선우선한 표정을 짓고 그들에게로 다가가 한사람씩 손을 잡아주신다. 그러시고는 일군들과 함께 영결식장으로 향하시었다.

하늘은 언제 소낙비를 쏟아부었나싶게 매지구름을 헤치고 창창 맑아졌다. 눈부신 해빛이 열매풍성한 전야에 물방으로 내려쬐인다.

상실의 아픔속에도 시간은 멈춤없이 흘렀다.

어느날 수령님께서서는 집무실에서 박형석의 이야기를 듣고계셨다. 방에는 홍명희와 남일이 자리를 같이하고있었다.

림포면에서 백송리로 김일성종합대학의 이동전개가 끝났으며 지금은 새학년도 교수안집필을 다그친다는 보고를 들으시자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하시어 웃음발을 피워올리신다.

《정말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해주시오. 한 가정의 세간살이도 이사품이 많은데 종합대학이라는 큰 살림을 빠른 시일에 옮길라니 교생인들 오죽했겠소!》

박형석은 바빠 결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닙니다. 대학이동과 꾸리기는 모두 군인동무들이 맡아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슬그머니 돌리는 남일에 게 정찬 눈길을 주시었다. 총참모장이 어느새 그 일을 주관하였는가?!

《그건 대단히 잘한 일ियो. 그 동무들도 다음 기부터는 대학생이 되어 선생들의 신세를 질것이 아니겠소. 그렇지요? 총참모장동무.》

《웁으신 말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일과 박형석에게 앉으라면서 홍명희에게 눈길을 돌리신다.

《내각에서는 전선에서 각 대학으로 돌아오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아, 앉으십시오. ... 필요한 학용품과 생활필수품들 그리고 식량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합시다.》

그이께서는 다시 일어서려는 홍명희를 제지하시고 종소리가 울리는 전화기에서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아, 최현동무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기가 올라 직사포로 적진을 목사발처럼 답새긴다!

뭘, 놈들이 1211고지를 두고 상심령이라고 하고 그 아래골안들을 함정골이라고 부른단 말이지요? 그것 참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하!

릿지웨이가 혼이 쑥 빠질만도 하오.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톡톡히 보여주어야겠소.

아, 그것말ियो. 지금 그 문제를 토의하던 중입니다. 여기에 홍명희선생이랑 박형석동무도 와있소.

응? 빨리 소환장들을 보내달라? 허허, 우물에서 승능을 찾겠습니까.

이제 곧 최고사령부의 명령서가 내려갈것입니다. 그럼... 한명도 빠짐없이... 군단에서 환송의식을 크게 하겠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없소. 내 걱정은 마시오.

그럼 전투를 바랍니다.》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었다.

X

《차렷, 가운데로 뵙!》

군단대렬부장이 정보로 걸어왔다.

《중장동지, 군단은 대학으로 가는 군관, 병사들을 환송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

최현은 손을 들어올리며 답례를 하였다.

《쉬어하십시오.》

그는 부관에게서 명령서를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목이 갈리며 한참이나 갑자르다가 조선인민군 룡해공군부대들과 인민경비대 부대들에서 대학생 출신 군관, 하사관, 병사들을 모두 소환하여 대학으로 보낼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전달하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소리가 터지었다. 어찌나 우렁찼던지 주변의 모든 산악들에 뿔뿔 울리며 메아리친다.

이윽하여 대렬부장이 소환되는 군관, 병사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대렬앞으로 씩씩하게 나오는 군인들을 한사람, 한사람씩 여겨보던 군단장의 눈앞이 탁 흐려졌다. 이름할수 없는 걱정이 밀물처럼 차오르더니 가슴 벽을 세차게 두드린다.

세계전쟁사에는 학생출신병사를 다시 배우라고 적아가 판가리를 짓는 싸움터에서 학교로 돌려보낸 실례가 없다. 하물며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대학생들을 한낱한시에 소환한다는것은 상상이나 했으랴!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만이 대용단으로 실행하실수 있는것이였다.

최현은 북받치는 감개를 누를수가 없어 창창하게 열려진 평양하늘을 경건히 우러렸다. 예이제 다름없이 그곳에서는 따사로운 태양이 세상만물에 눈부신 빛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있었다.

○가사○

잊지 못할 10 월의 밤이여

최충웅

열정의 불길인가 밤하늘 불태우며
수령님 높이 드신 《E.C》의 붉은 기발
주체의 기치높이 자주의 한길 따라
위대한 우리 당이 첫자욱 힘있게 뻗
아 잊지 못할 10 월의 밤이여

불타는 노을인가 온 누리를 물들이며
《E.C》의 붉은 기발 오늘도 휘날리네
총대로 내 조국을 기어이 찾으리라

수령님 우리 당의 첫자욱 떼여주신
아 잊지 못할 10 월의 밤이여

력사의 준령 넘어 백승만을 떨치며
《E.C》의 붉은 기발 영원히 휘날리리
위대한 우리 당의 초석을 다쳐주신
수령님 혁명업적 만대에 추억해갈
아 잊지 못할 10 월의 밤이여

당의 령도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문학의 빛나는 로정

-조선작가동맹 창립 60돐을 맞으며-

김순림

오늘 우리 작가들은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오는 희망찬 시기에 조선작가동맹 창립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주체35(1946)년 10월 13일 조선작가동맹을 창립하여주신것은 참다운 민족문학건설의 새장을 열어놓고 유구한 민족문학사에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었다. 이때로부터 우리 작가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으면서 자기 운명과 창작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보람찬 작가적삶을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대오의 형성과 성장발전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와 잇닿아있으며 우리 당 지식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집대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작가들은 시대정신의 대변자, 사회 력사적운동의 추동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들이 스스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지식인들이 3개의 기둥으로 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여기에서도 특히 작가들은 선전교양자적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하리라는 굳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작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믿음과 사랑의 인력으로 하여 작가들이 주저없이 자기의 운명을 수령님께 의탁하고 당을 따라 나아갔으며 남조선에서도 수많은 작가들이 적들의 위협과 공갈, 회유를 물리치고 사선을 넘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품을 찾아왔다.

참으로 지난날 믿을데 없고 의지할데 없는 식

민지작가로서 온갖 굴욕을 강요당하며 수난많은 민족의 설움을 시가에 엮으며 방황하던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수난에 찬 인생행로에 종지부를 찍고 참다운 민족문학건설의 주인으로, 당의 어엿한 동행자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 작가동맹이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가장 정확한 문예방침을 제시하여주시으로써 작가동맹으로 하여금 주체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문학운동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문학운동과 관련하여 주신 수많은 로작들은 우리 작가동맹의 강화발전과 주체문학건설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우리 문학이 명실공히 우리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작가동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6(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반당수정주의자들이 끼친 사상독소는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 봉건 유교사상이며 이 사상독소는 몇해동안에 걸쳐 뿌려졌고 깊이 뿌리박혀있기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정력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사랑에 의하여 조선작가동맹은 당사상전선의 강력한 보루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가 구현된 혁명적문학작품을 수많은 창작하도록 작가들을 조직동원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서사시 《백두산》, 단편소설 《개선》 등을 비롯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과 가사 《애국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장편소설 《땅》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은 당과 수령

의 품속에 안겨 재생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에서 나온 창조물이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전쟁의 시련 속에서도 작가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이 더욱 자애롭고 뜨거워졌으며 그것은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해방후 처음으로 자기 조국의 품속에서 새로운 민족문학건설의 주인이 되어 혁명적작가의 보람찬 삶과 행복을 체험한 우리 작가들은 침략자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종군작가로 용약 전선을 탄원하여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영웅한 인민군대오와 함께 멀리 락동강계선까지 나가 전투적인 문학작품으로 화선선전활동을 벌리고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는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적후천리 험산준령을 넘어 당의 품으로 찾아왔다. 이 사상정신적바탕에는 수령과 조국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확고한 신념이 놓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문학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시어 우리 작가동맹이 수령의 문학, 당의 문학건설의 믿음직한 거점으로 되도록 힘있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56(1967)년 5월 25일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작가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1972년 9월 6일 문예총산하 창작가들의 모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는 일대 사변적인 의의를 기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예총산하 당원들과 창작가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문예총안의 당조직들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가 있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폭로비판된 일부 나쁜놈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철저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6(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작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주체적인 문예방향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문학예술분야에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복고주의적경향을 철저

히 없앨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동무들이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관철해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동무들은 어떻게 하면 당과 수령에게 더 충실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당조직생활과 사상수양을 더 잘하겠는가 하는것을 늘 생각하여야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을 수령의 문학으로 강화발전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이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받은 참말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개화발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하여 우리 문학은 인류문예사상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수령형상문학인 총서 《불멸의 력사》를 창작하여 수령형상문학의 빛나는 성공답을 쌓았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문학은 문학의 모든 형태와 형식에 걸쳐 기본의 기본으로 주류를 이루고 발전하고있다.

일대 전성기를 빛내이며 개화만발하는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는 최상의 영예와 특전을 누림으로써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이미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과 시가작품들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형상한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어 주체문학의 위력을 더욱 과시하고있다.

수령형상문학의 찬란한 발전은 전반적인 문학운동의 비상한 추동력이 되였으며 우리 문학에서의 창작적비약을 이룩하게 하는 근본담보로 되였다.

지금 우리 문학은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평론 등 모든 분야에서 류례없는 혁신적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시대의 명작들로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더우기 우리 문학은 여러차례의 큰 형식의 작품 100편 창작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수백여편의 장중편소설과 서사시를 비롯한 기념비적인 명작들을 창작함으로

써 우리 문학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치고있다.

우리는 문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전반적인 예술발전에 힘있게 기여하고있다. 우리 문학은 오가자에서 혁명의 꽃씨, 자주의 꽃씨를 뿌리기 시작한 꽃분이의 걸음이 혁명가극의 무대를 타고 지구의 동쪽과 서쪽 한끝으로 이어져 세계를 격동시킨 경이적인 사변을 비롯하여 《20세기 문예부흥》의 대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우리 문학발전에서 이룩된 그 모든 놀라운 성과들은 우리 작가들이 일찌기 천출위인이시며 희세의 정치가이시고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애로운 아버지, 스승으로 높이 모시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였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잊을수 없는 주체61(1972)년 9월 6일에 그처럼 바라마지 않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 영광의 시각은 우리 작가들이 당의 작가로 새롭게 태어난 운명 전환의 역사적인 계기였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대오는 당의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당과 수령의 작가부대로 더욱 성장발전하였으며 수정주의, 사대주의, 봉건유교사상,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의 잔재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도식과 류형, 구태의연한 창작태도를 비롯한 형상의 낡고 진부한 묶은 때를 말끔히 벗김으로써 주체문학건설의 힘있는 역량으로,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자라났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신념과 의지였고 사랑과 믿음이었으며 창작적열정의 영원한 저수지였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우리 작가들을 당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고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작가와 작품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운명의 아버지이시다.

작가들이 창작과정에 일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따듯이 일깨워주고 가르쳐주어 혁명대오에 변함없이 굳건히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가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시련속에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계속하며 적들과 총포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엄혹한 때에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과 사회주의건설장들을 찾으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늘 우리 작가들

을 생각하고계셨으며 전선길에서 울리는 병사들의 노래소리와 속보판에 나붙은 한편의 시구절을 보시고도 작가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면서 우리 작가들을 가까이 세워주시였다. 사실 우리 작가들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살고있으며 천출명장의 체취를 가까이에서 뜨겁게 느끼며 창작하는 이 세상 최대의 행복을 누리고있다.

돌이켜보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초기에 우리 일부 작가들이 일시나마 창작부진을 가져왔고 동면하려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작가들은 순결한 량심의 필봉을 들고 글을 써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면서 작가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결사관철의 투철한 자각을 간직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고전적으로작 **《문학예술부문에서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자》**를 제시하시어 작가들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명작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제5차 큰 형식의 작품 100편 창작전투와 당창건 55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을 비롯한 주체문학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선군령도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작가들의 창작을 친히 지도하여주시어 시대의 명작으로 되게 하시였고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을 풍부히 하여주시였다.

작가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작가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여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전위대오에 세워주시는 은정에서 더욱 뜨겁게 표현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창작적 성과를 이룩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청년작가들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안겨주시는 커다란 사랑과 믿음을 돌려주시였다.

참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령도자와 한마음한뜻이 되여 운명을 같이하며 주체문학운동을 더욱 즐기차게 벌려왔으며 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는것으로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창작실적으로 보답하였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받아안으면서 문학창작의 길을 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문학으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받드는것은 의리이고 량심이고 삶의 전부이다. 이러한 숭고한 자각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작가들은 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켰다.

특히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실록이 엮어지던 잊을수 없는 나날 우리 작가들의 신념과 의리는 더욱 뜨겁고 순결하게 발양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그 나날에 선군혁명문학운동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정정서를 반영한 수많은 시대의 명작들로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였다.

서사시들인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국이며 청년들을 사랑하라》를 비롯하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높이 들자 붉은기》, 《대홍단 삼천리》, 《우리 집은 군인가정》 등 수많은 시가문학이 선군시대의 다양한 생활을 깊은 서정으로 노래한것은 선군혁명문학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것이다.

선군혁명문학의 특징과 생활력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60여편의 장편소설창작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났다.

제5차 큰 형식의 작품 100편창작전투와 당창건55돛기념 문학축전은 선군혁명문학의 우월성과 빛나는 성과를 담보한 중요한 계기였으며 령도자의 정치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의 본성을 뚜렷이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선군혁명문학운동을 통하여 모든 작품들의 문체성과 시대성이 강화되고 형상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소설, 시, 아동문학, 극문학 등 문학의 모든 분야에서 창작적양양이 일어났으며 평론, 고전, 외국문학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군중문학운동이 활기를 띠고 힘있게 벌어졌다.

이 모든 사실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우리 작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총적인 면모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의 창작기풍에서도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선군혁명문학운동은 령도자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당적작가의 성장과정이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의 사상미학적리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와 완전히 일치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하게 극복타개하면서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한다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헌신분투하고있으며 심혈을 다 바치고있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걸음걸음 따르며 지난 우리 혁명사에 아직 인류문학이 체험해보지 못한 위대하고 격동적인 사변들과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의 줄기찬 격류를 타고 20세기 마지막령마루에 긍지높게 올라

서서 지난 세기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주체문학운동에서 이룩된 이 모든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60년전에 작가동맹을 창립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시였으며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작가대오를 주체문학건설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빛나는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 다.

조선작가동맹창립 60돛을 맞는 우리 작가들은 새 세기에도 영원히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문학창작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새 세기의 사회미학적리상과 사람들의 미학적정서적요구에 맞게 문학창작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혁신과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격동적인 우리의 현실이야말로 작가들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현실에 몸을 폭 잠그고 땅냄새, 기름냄새가 나는 작품을 써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탁상문학을 하는 책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의 몸에서 도시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특히 군인가족예술포조공연작품들이 보여준 높은 사상에술적성과들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작가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군중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내듯이 인민대중속에서 자라나는 문학적재능을 계발육성하여 작가대오를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그 어떤 어려운 창작의 요새도 점령할수 있다는 수령 흠모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가지고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새 세기 문학운동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당면하여 위대한 수령님 탄생 95돛과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창작전투를 면밀하게 작전하고 모든 창작력량을 집중함으로써 승리적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모두다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21세기를 주체의 선군문학세기로 빛내이기 위한 문학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의 작가로서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자.

한없이 은혜로운 품속에서(2)

박춘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인간애로 우리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 한사람한사람을 따듯이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장편소설 《땅》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리기영은 것처럼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수령님께 기어이 보답하리라 맹세다지고 《땅》보다 더 좋고 큰 작품을 쓰리라 마음먹고 3부작 장편소설 《두만강》 창작에 착수하였다. 이 작품의 1부가 완성되어 출판된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두만강》 1부를 읽으시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영화로도 만들도록 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인민상》이 제정되였을 때에는 첫 《인민상》 계관작품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장편소설 《두만강》 2부와 3부(상, 하편)까지 다 완성출판되기에는 10여년이 걸리었는데 이 10여년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리기영의 창작조건과 생활조건을 보다 원만하게 보장해주시기 위하여 온갖 사랑을 아낌없이 돌려주신 사랑의 서사시로 충만된 10여년이였으며 수령님의 사랑에 훌륭한 작품창작으로 보답하려는 그의 뜨거운 마음과 높은 도덕의리가 발현된 10여년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리기영의 취재조건을 보장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인원들과 고급승용차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장백지구와 백두산지구, 두만강류역과 북부지대의 혁명전적지들을 성과적으로 답사할수 있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년로한 작가의 건강을 위해 사냥할 때 쓸 사냥총까지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리기영에게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당시) 등 중임도 안겨주시고 경치좋은 석암호수가에 창작실까지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7(1958)년 6월 어느날 이 창작실을 찾으시여 리기영선생은

한생을 농민들속에서 살았기때문에 농촌주제의 좋은 작품을 많이 쓴 작가라고 고무의 말씀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처럼 극진한 사랑속에서 3부작으로 된 장편소설 《두만강》이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장편소설의 창작이 끝났을때에는 배천지구 한 협동조합(당시)의 녀성관리위원장의 기막힌 운명을 가지고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을 리기영선생이 써야겠다고 새 창작과제를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중편소설 《한 녀성의 운명》이 완성되자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기영의 작품을 적극 보호해주시였다.

한때 일부 사람들이 장편소설 《두만강》 제3부에 서울의 유지부인들이 조직한 《녀자고학생상조회》를 미화하였다고 하면서 작품을 회수하자고 한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설 《두만강》 3부에 결함이 있기때문에 회수하자고 제기하였는데 그대로 두는것이 좋겠다, 회수리유로서 서울의 유지부인들이 조직한 《녀자고학생상조회》를 미화한것을 들었는데 그러한 실례는 그당시에 사실 있었다, 만일 그러한것을 다 나쁘게만 본다면 민족허무주의에 빠질수 있다, 또한 주인공들이 《동만청총》의 영향하에 있었다는것을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안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다, 《동만청총》에 속했지만 잘 싸운 사람들도 있었다는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평론이 지나치게 편협해서는 안된다, 소설 《두만강》 3부는 그대로 두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작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작가들자신이 뉘우치고 손질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여 다시 출판할 때에 개작한것을 내놓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대책이 없이 거저 작품을 회수하는 식

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당에 충실한 우리의 작가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이 창작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이렇듯 아버지수령님의 은정깊은 조치로 하여 회수의 운명에 처했던 장편소설 《두만강》 3부가 우리 나라 문학사에 자랑높은 성과작으로 아로새겨지게 되었고 세월과 더불어 빛을 뿌리게 되었다.

이처럼 작가 리기영은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당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믿음속에서 작가로서의 성장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 리기영에게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혁명소설로 쓸 창작과제도 맡겨주시었다. 이 신임과 기대속에는 리기영의 말기의 창작을 빛나게 장식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의도가 뜨겁게 깃들어 있으며 작가가 장수하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었다.

실로 리기영이 조선문학앞에 기여한바는 크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 리기영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시었으며 작가가 받아안을수 있는 최고의 명예칭호인 《김일성상》도 안겨주시었으며 생존시에만 아니라 그

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리기영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었으며 영생의 언덕-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저서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작가 리기영을 뜨겁게 회고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잘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리기영의 현실체험을 회고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리기영은 농촌에 나가 천막을 치고 농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고, 흙냄새를 맡기 좋아하는 작가의 적극적이고 실속있는 현실체험자세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리기영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영생하고있다.

작가 리기영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 우리 장군님의 품이야말로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그의 참다운 성장의 요람이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혹과 보답의 60년

언뜻 불어오는 바람결에도 구수한 낱알향기가 실려오는 10월.

무거운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르익은 온갖 열매들이 해빛과 마주 웃는 풍요한 계절이어서 생각도 깊은 10월이다.

해방된 조국의 첫 기슭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선작가동맹의 60년사의 한해 한해속에는 실로 그 얼마나 가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으며 그 얼마나 영광넘친 행복의 순간들이 이어져있는가.

뜨거운 추억과 감회속에 가슴젖는 이 시각, 나의 눈앞에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만이 가득 차오른다.

위대한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을 모시고 궁지높이 걸어온 행복과 영광의 60년 세월은 진정 위대한 수령,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매혹과 보답의 60년이다.

추억도 뜨거운 이 시각, 그 불타는 매혹과 보답, 그 심정을 그대로 형상해온 작가로서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더더욱 가슴 부풀어 오름을 금할수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 할수 있다.》

《1932년》, 《고난의 행군》, 《맞은 올랐다》, 《조선의 힘》, 《영생》을 비롯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수많은 장편소설들과 《력사의 대하》, 《전환》, 《별의 세계》등의 수많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명작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꼽자면 실로 그 하나하나의 책마다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사랑과 믿음, 세심한 가르치심이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인 소설책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고 하시면서 글을 팔아서라도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더 많이 찍어내야 한다고 교시하시고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한 소설책들을 쓰는 작가들이라고 아낌없는 사랑을 다 돌려주시었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수령형상문학의 창작방향과 그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로 수령형상문학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을뿐만아니라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서형식의 소설창작력량과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

하나하나의 혁명소설들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열렬한 혁명투사로 키워내는데 참답게 이바

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울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령도의 그 낮과 밤이 뜨겁게 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수령형상문학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고귀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을 안겨주었으며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기할 만 한 업적을 쌓았다.

참으로 지난 60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매혹의 60년, 신념과 의리로 보답해온 자랑스런 영광과 행복의 60년이다.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창작단의 모든 작가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걸음걸음 따르며 뜻도 하나, 숨결도 하나가 되어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불타는 신념의 맹세로 이날을 맞이하고있다.

4. 15 문학창작단 부단장 안동춘

신념과 의지의 빛나는 로정

조선작가동맹창립 60돐을 맞으며 우리 시인들이 걸어온 자욱자욱을 뒤돌아보는 나의 마음은 지금 한없는 자부와 긍지로 벅차오른다.

지난날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탓에 빼앗긴 조국을 불안고 몸부림치며 《울밑에 핀 봉선화》를 처량하게 노래부르던 이 나라의 시인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피터지게 웨쳐도 보았고 산기슭에 곱게 핀 진달래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선구자의 불행을 먼저 노래해야 했던 우리 시인들이었다.

그러던 이 나라의 시인들이 조국을 해방하고 내 나라를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 안긴 그날부터 행복한 삶의 길, 참된 시인의 길을 걸어들어갈 수 있었다.

해방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애국가》로 반만년 민족사에 그리도 애타게 소원하던 탁월한 수령, 위대한 조국의 탄생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하며 새 삶의 첫 자욱을 내디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60년!

그것은 그대로 자랑과 긍지의 60년, 영광과 행복의 60년이었으니 그 나날을 돌이켜보는 우리 시인들의 마음이 어찌 레사로울수 있으랴.

더구나 문학예술의 탁월한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우리 시가

문학이 걸어온 자랑스런 력사는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주체사실주의 시 문학이 탄생하던 나날이었다.

시인들은 자기의 령도자를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받들고 령도자는 시인들을 영원한 동지로 불러주며 조국앞에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함께 헤쳐온 선군혁명의 날과 날들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들은 선행한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진정 세계 그 어느 나라 문학사에 자기의 령도자가 시인들을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세워준적이 있었으며 그 어느 나라 시인들이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을 누리며 창작활동을 벌린적이 있었던가.

이런 위대한 사랑, 절대적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주체문학사에 길이 남을 시들을 낳게 한것이다.

서정시들인 《나의 조국》, 《어머니》와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동지애의 노래》, 《신심드높이 가리라》를 비롯한 명시, 명가사들이 쏟아

저나왔고 민족이 가슴아픈 대국상을 당하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헤치던 1990년대의 그 준엄한 시기에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조국이며 청년들을 사랑하라》를 비롯한 기념비적인 서사시들이 련이어 창작발표되었으며 가사 《우리의 김정일동지》,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2월은 봄입니다》, 《승리의 길》을 비롯한 국보적인 수많은 명가사들이 태어났다.

이런 창작성과는 우리 시인들의 뛰어난 재능이나 노력의 열매이기전에 전적으로 우리 시인들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것이다.

우리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일어날수 있었고 취재배낭을 어깨에 메고 철령과 오성산, 대덕산으로 자강도와 대흥단, 백두산으로 오를수 있었겠는가.

우리 시인들을 나의 선군혁명동지라고 불러주시며 최대의 사랑, 최상의 믿음을 다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과 시련의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신심과 락관을 잃지 않고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를 즐기차게 불러올수 있었던것이다.

오직 우리 장군님 한분만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자! 이 하나의 신념이 가슴속에 억척같이 자리잡고있었기에 붓대를 틀어잡은 우리의 손은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들의 신념과 의지를 새롭게 가다듬으며 단

순한 창작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전투를 벌려가던 그 나날에 사랑하는 철부지 딸애를 평양에 남겨둔채 취재가방을 메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로정을 따라 부전령을 넘었던 녀성시인도 있었고 불편한 몸이지만 흰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젊은 시인들을 이끌고 철령과 칠보산으로 지평이를 질고 올랐던 로시인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위대한 장군님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이것이 우리 시인들의 자랑이였고 행복이였으며 신념과 의지였고 배짱이였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문학이 걸어온 60년력사의 총체, 신념과 의리의 빛나는 총화라고 생각한다.

우리 앞에는 강성대국력명이 찬란히 밝아오는 격동적인 이 선군시대의 벽찬 숨결을 보다 새롭고 참신하며 혁신적인 시형상으로 구현해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놓여있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대변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할것이다.

시인들은 앞으로도 시가의 붓대를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의 붓대로 더 역세계를 어잡고 그어떤 역경이 닥쳐온다해도 오직 우리 장군님의 노래, 선군혁명승리의 노래만을 계속 멈춤없이 그리고 영원히 부르고 또 부를것이다.

한세대가 부르다 못다부르면 또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가 대를 이어 부르며 우리 장군님의 시문학대오는 자기의 승리적인 전진을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그날까지 즐기차게 이어나갈것이다.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

위원장 변흥영

소설문학이 걸어온 빛나는 60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소설을 읽으면서 생활의 진리를 체득하고 혁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도 키우게 된다. 소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려명을 맞이해가는 오늘 우리 작가들은 조선작가동맹창립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소설가들의 가슴가슴에는 일찌기 해방직후 여기저기 흩어졌던 우리 작

가들을 한사람 한사람 불러 문화전선의 투사로 내세워주시고 친어버이사랑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우리 소설문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다.

돌이켜보면 세기를 넘어 장장 60년을 헤아리는 우리 소설문학이 걸어온 자랑스런 력사는 우리 소설문학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더없이 친근한 길동무로 참된 삶의 교과서로 될수 있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

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의 력사이며 우리 소설문학이 주체의 선군문학건설에서 큰 몫을 담당수행해 온 공지로 자랑찬 력사인것이다.

피어린 항일혈전의 나날에 우리 문학의 혁명적 문예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우리 소설문학이 첫걸음을 내디딘 그 첫시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설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주시였다.

해방직후부터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소설가들이 써내는 소설작품들을 수많은 보아주시면서 소설문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정신적량식으로 투쟁의 무기로 될수 있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우리 소설가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

아직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살며 싸워나가도록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는 수많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이처럼 아버지수령님의 우리 소설문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은정속에 태어난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소설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그들의 창작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알아보시며 크나큰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였으며 소설창작에서 지침으로 될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곤 하시였다.

이처럼 우리 소설문학은 자기의 첫걸음을 땀때로부터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 자기의 혁명적사명과 본분을 다해올수 있었으며 주체의 문학건설에서 문학의 대표적형태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과시해올수 있었다.

이렇게 아버지수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속에 영광찬 로정을 달려온 우리 소설문학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더욱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나라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고 하시면서 소설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적문예사상과 문예리론을 창시하심으로 하여 우리 소설문학이 나아

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 소설문학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하여 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소설가들에게 6차례에 걸치는 장중편소설 100편창작전투에로 불려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을뿐아니라 60여편의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창작에 우리 소설가들을 내세우시여 우리의 소설문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도록 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소설가들이 거둔 자그마한 창작성과를 크게 내세워주시면서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하여 온 우리 소설가들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선작가동맹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년력사우에 우리 소설가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소설문학작품들은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우리 소설가들이 오늘과 같은 자랑찬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에 목메이게 하고있다.

조선작가동맹 창립 60돐, 이날을 뜨거운 흥분속에 맞이하고있는 우리 소설가들의 가슴가슴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높은 창작성으로 받들어나갈 일념에 불타고있다. 어제와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더 높은 창작적열정을 지니고 우리 소설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붓대로 더 역세게 받들어나가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로서의 값높은 이름을 빛내여 나가겠다는것이 오늘날 우리 소설가들의 한결같은 맹세이기도 하다.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덕철**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아름드리 거목도 애 어린 나무로부터 시작되듯이 사람도 어린 시절을 거쳐 성장한다.

마냥 즐겁기만 하고 꿈 또한 많은 어린 시절...

그 시절에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는가에 따라 후날 조국과 민족의 장한 아들딸로 되는가 아니면 조국과 인민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바로 그러한 인간육성에서 아동문학이 노는 사상정신적역할이 자못 중요하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에 솔직품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조선작가동맹창립 60돐을 맞는 오늘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우리 아동문학이 명실공히 어린이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열렬한 선군혁명투사로 키워내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두고 깊은 감회에 젖어있다.

돌이켜보면 조선작가동맹창립과 더불어 우리 아동문학이 걸어온 60년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우리 아동문학발전을 위하여 기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꽃봉오리로 불러주시며 혁명적아동문학전통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첫걸음마를 땀 우리 아동문학이 어린이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의 참된 교과서로, 친근한 길동무가 될수 있게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일의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 영화 한편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면서 주체적아동문학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여 우리 아동문학작품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미래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우리의 아동문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년시절에 친히 불후의 고전적명작 동시 《우리 교실》, 《한초가 한시간 되어줄수 없을까》를 발표하시여 우리 아동문학의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아동문학에

어린이들의 동심을 잘 그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우리 아동문학이 들고나 가야 할 강령적지침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그 시절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주제로 한 아동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어린이들에게 민족적 긍지를 높여주기 위한 아동문학작품, 계급교양주제작품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동화나 우화작품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작가동맹의 창립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아동문학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여올수 있었으며 어린이들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내는데 큰 몫을 담당할수 있었다.

주체적아동문학발전의 60년.

이 장구한 기간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다른 성인문학작가들과 당당히 어깨를 같이 하고 선군문학건설의 길로 줄달음쳐올수 있었으며 수만편의 사상예술성이 높은 아동문학작품들을 창작해낼수 있었다.

아직도 우리 어린이들의 기억속에 생생한 아동문학작품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친근한 길동무로 간직되어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아동문학발전의 60년력사!

그것은 아동문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의 력사이며 우리 어린이들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담당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온 자랑스러운 승리의 력사였다.

조선작가동맹 창립 60돐을 맞는 오늘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우리 아동문학이 걸어온 영광넘친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들이 후대교양에서 맡은 본분과 사명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혁명적인 아동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갈 훌륭한 혁명인재로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아동문학분과
위원장 박찬수

김일성장군찬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읊은 즉흥시-

리 찬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우리의 절대의 환영에 장군은
장군이 아니신듯
우리의 무쌍의 광영에 장군은
《위원장》만으로도 족하신듯
장군은 인민을 위한 한때도 심히 귀중히
여기시고
장군은 인민속에 특별한 인민됨을 완강히
거절한다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혈전혈투의 과거가 그렇고
오매불망턴 재건조국의 오늘은 더욱!

장군의 파사로운 초양은 이미 령세한 논밭우에
이제야 중천에 혁혁한 장군의 백광은
온갖 불순물을 불사르며 불사르며
얼어붙었던 굴뚝마다 칠연을 치솟군다

아, 장군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바야흐로 무르녹으려는 북조선의 란만한
봄을 보아라!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기억하자, 장군은 우리만의 장군이 아니요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아, 삼천리 전 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주체 35(1946). 4

어머니

김철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 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잠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깊도록 내 얼굴에 머물러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나니
이 어머니 정말
나를 낳아 젖먹여준 그 어머니가...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우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를 굽어보나니

그 시선 한번 강토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저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 나는
 아 이런 어머니를 내 지금껏
 아이적 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었던가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인류력사 백만년에 수억만의 어머니들이
 그리도 애달프게 기원하던 아침이
 오직 그대의 예지 그대의 신념

그대 필승불패의 향도를 따라
 이 땅우에 찬연히 밝아왔나니

응석과 어리광만으로야 어찌
 그대 사려깊은 눈빛을 마주볼수 있으랴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대 현명한 스승의 시선
 그대 로숙한 사령관의 안광이
 저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언덕으로
 내 걸으리라-
 그대 나를 위하여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걸으리라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흠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살아!

주체 70(1981). 2. 12

나의 조국

김상오

알지 못해라 언제부터
 나의 가슴에 깃들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나의 첫 삶과 함께
 이미 조용히 자리잡은것이리

언제나 나의 심장에 가득차있어
 기쁨과 아픔
 그 모든 운명을 함께 사는것

조국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어질 듯 젖어드는것이냐

어찌하여, 때로 이국의 거리를 거닐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안는것이냐

조국은
 고향마을 정든 집이라더랴
 동구밖 오리나무숲
 그 정겨운 설레임
 새벽녘 들가에 피는
 너인들의 웃음소리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지줄대며 흐르는 여울물소리

조국은
그리운 얼굴들이라더라
다심하신 고향어머니
모래불에 덩굴던 어릴적동무
물결치는 이랑속에 벼단을 안고
땀을 씻는 처녀의 그윽한 눈길...

지난날 네 그리 가난하고 억눌려
슬픔과 고통만을 줄 때에도
너의 운명으로 내 가슴이 아팠고
살길 찾아 너를 떠나면서도
눈물속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거니

조국이며, 너는 무엇이기에
저 눈덮인 이국의 광야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면
두고온 네 하늘이 그리도 푸르려
살아서 너를 떠나간 이들
죽어서도 돌아오길 소원했더냐

한번 너를 잃으면
네게로 돌아가는 길 그리도 멀어
피로써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야 했고
죽음과 함께 불바다를 건너야 했거니

조국이며, 진정 너는 무엇이기에
너의 한치 땅을 위해
애어린 청춘들 웃으며 꽃처럼 졌고
쓰러지면서도 못잊어
두팔가득 너를 그리안고 잤더냐

한줌 흙속에
너를 싸안고 간 투사들도 있었더라
한떨기 진달래 꽃향기에
눈감고
너의 모습 그려본 너대원도 있었더라
아마도 조국은 어머니...

그렇다 조국은
더없이 신성하고 숭엄한 그 무엇
위대하신 수령님 한생을 바치시는
겨레의 삶이며 그 무궁한 미래
죽어서도 안기여사는 영원한 품

그것은 그대를 바라보는 깊은 눈동자
맑은 거울앞에서처럼
부끄러움없이 그앞에 서기 쉽지 않으리
오직 그의 영광속에 그대의 삶이 있고

그를 저버림은 곧 그대의 죽음인
조국이란 그러한것

뜨거운 심장없이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없이 부를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 전에는!

오, 조국이며, 조국이며
너는 손이 많도록
쓰다듬고싶은 우리의 땅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더 바라보고싶은
우리의 푸른 하늘

조국이며
그때문이 아니냐
일을 해도 일을 해도 더하고싶어
하루를 십년으로 살고싶은 이 갈망은
지혜와 힘과 뜨거운 열정을
있는껏 다 쏟아바치며
바치는것이 기쁨인 이 아름다운 삶은

가는 곳마다 들끓는 생활과
끊임없이 탄생하는 환희의 노래
강토를 굽이치는 철의 흐름우에
소용돌이치는 열풍을 안고

조국이며,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온갖 시름 잊은 얼굴들이
로동의 기쁨안고 돌아오는 락원의 거리
무수한 배움의 창문을 비쳐드는 해살과
보육원들이 지켜선 아기들의 고요한 숨결...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 품이여라!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최준경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노래도 아리랑 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 물도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곳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나를 부르는 소리

전동우

나무잎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시내물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먼길을 갈적엔 속삭이는 그 소리
쉬지 말고 가라고 쉬지 말고 가라고
누가 누가 나를 부르네 귀속말로 다정히
쉬지 말고 가라고 쉬지 말고 가라고

비방울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찬바람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험한 령 갈적엔 속삭이는 그 소리
길을 곧추 가라고 길을 곧추 가라고
누가 누가 나를 부르네 귀속말로 다정히

길을 곧추 가라고 길을 곧추 가라고

이 마음 지치면 그 소리를 못들어
더운 피 식으면 그 소리를 못들어
낮에도 밤에도 속삭이는 그 소리
큰걸음을 떼라고 큰걸음을 떼라고
누가 누가 나를 부르네 귀속말로 다정히
아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당이여 그대 아니면 누가 나를 부르랴
그대가 아니면 누가 나를 부르랴

3 대장군의 총

김만영

백두의 폭풍을 삼천리에 날리며
《지원》의 뜻 어린 권총 드셨네
전설의 김대장 불벼락 내려
내 조국을 찾아준 총이여
백두산 3 대장군의 무적의 총이여

백두산시절의 설한풍을 헤치며
혈전의 언덕에 높이 드셨네
항일의 녀장군 번개를 치며

사령부를 보위한 총이여
백두산 3 대장군의 무적의 총이여

백두의령봉에서 넘겨받으셔
대대로 승리를 떨치시었네
김정일장군님 세기의 영웅
주체위업 지키는 총이여
백두산 3 대장군의 무적의 총이여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류동호

사랑의 이랑에 씨앗 뿌리며
서둘러 그 수고 말하지 말자
아 그 진정 꽃피어 향기 풍길 때
어머니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행복의 열매가 주렁질 때에
땀흘린 보수를 바라지 말자

평론

아 잘 익은 이삭은 머리숙인다
어머니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한생을 불타는 애국에 살면
영원한 태양이 축복을 주리
아 그대의 눈빛은 세상을 본다
어머니조국이 너를 알게 하라

뜨거운 진정이 넘치는 철학적인 시세계

-시묵음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하여-

김해월

10 월의 하늘가에 태양이 눈부시다.

우리 당 기발이 휘날리는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조선작가동맹창립 60 뚝을 맞는 우리
작가들의 격정과 흥분이 짙게 어렸다.

조선작가동맹이 걸은 자랑찬 60 년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의 60 년이며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
의 노래로 차넘친 60 년이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있는 수많은 송가들
중에는 시묵음 《어머니 우리 당》(류동호작, 《조
선문학》 잡지 주체 94(2005)년 12 호)도 있다.

...

내 너무 쉽게 불러왔구나
어머니 우리 당이라고
그 뜻은 참으로 깊고깊어
그렇게 부를수 없으리
이 땅의 전선길에 심장을 대보기 전에는

보렘도 꾸밈도 없는 시인의 이 심장의 고백에
는 참으로 심오한 생활철학이 담겨져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 세상을 보는 눈도 마음
도 커질수록 너무도 쉽게 당을 어머니라고 스스
럽없이 불러온 자책감에 사로잡혀 더친 시인의
심장의 웨침, 깊은 사색속에 울리는 그 진실성과
순결성에 시묵음 《어머니 우리 당》의 커다란 시
적감화력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시는 시묵음 《어머니 우리 당》

을 보시고 진정이 느껴지는 시라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것이 바로 시문학의 서정
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당창건 60 뚝에 드리는 헌시인 《어머니 우리
당》에는 백두의 선군령장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을 안고 우러러 따르며 그이의 혁명전사, 백두산
시인으로 살려는 서정적주인공의 한생의 체험이
비껴있으며 그 한생의 총화를 거쳐 어머니당에 다
지는 전사의 숭엄한 맹세가 절절히 노래되어있다.

로동계급출신의 시인, 우리 당의 친근한 길동
무라고 불러주시며 이 세상 가장 큰 사랑과 믿음
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의 운명과
온넛을 맡기고 선군혁명령도의 자옥자옥을 그리
움속에 따른 시인의 심장의 열정은 순간도 꺼질
줄 몰랐다. 하기에 그의 시들은 가식과 분식이
없는 깨끗한 량심의 분출 그대로이다.

진심, 진정을 노래하는것이 서정시의 참된 시세계
이다. 진심을 노래한다는것은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느낀 정서세계를 소박하고 솔직하고 친근
하게 심장으로 노래를 부른다는것을 의미한다.

생활을 진실하게 노래하면 할수록 서정시의 철
학성이 더욱 깊어진다.

시묵음 《어머니 우리 당》은 민족의 운명과 우
리 장군님, 그 장군님과 총대, 당과 전사의 관계

속에서 력사적으로 체험된 진실한 감정을 심오한 시적형상으로 밝힘으로써 선군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새로운 경지에서 독특하게 형상한 서정시로 되고있다.

...

마치와 낫과 붓으로 반들어올린
인민의 세상에 나의 집을 세워주고
보람찬 행복의 노래를 안겨주었건만
그 사랑으로만은 삶의 요람 지켜줄수 없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줄수 없어
어머니당은 총을 잡아야 했구나

이 땅우의 사랑을 위하여
아들딸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진 시련 두렵없이 헤쳐나가는
그 헌신을 누구도 대신 못하기에
총을 잡고 풍찬로숙의 전선길에 나선
우리 어머니, 우리 당

천만고생 그 누가 모른다 해도
사생결단의 첩첩준령을
웃음으로 헤쳐 넘고 넘으며
끝없이 정을 주는 그 마음
그 진정이 고마워 눈물지으며
인민이 심장을 맡긴 운명의 품이어
...

(시 《어머니 우리 당이여》중에서)

총을 잡은 어머니 우리 당, 참으로 시에는 원수들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닥친 준엄한 시련속에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운명을 총대로 지켜가는 우리 당의 피어린 투쟁력사와 함께 전선길에서 풍찬로숙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가슴 저리게 안겨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의 공세를 더욱 강력한 선군정치의 열풍으로 불태워버리시며 적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받아 공격하는 이것이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붉은기를 수호하는 길이기에 우리 장군님 전선길도 최전연길에 서신것이다. 결사의 의지를 지니지 않고서는 단 한걸음도 내짚을수 없는 혈전의 선군장정의 길에 오르신것이다.

서정시는 이렇듯 숭고하고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가슴을 불태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달리는 야전차에서 고생을 겪는 인민들을 보시며 마음속에 피로움이 쌓일 때도, 참으로 건디기 힘들울 때도 폭우가 쏟아지고 찬눈바람이 휘몰아치는 고난의 준령을 넘으시면서 우리 장군님 믿으신것은 병사들이였고 인민이었다는 생동한 표상을 불러일으켜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과 귀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백두산야를 종횡무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선군혁명의 총진격의 모습, 사회주의 내 조국의 모습, 백전백승의 당의 모습을 보았고 사랑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태양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선군령장을 우러러 걱정을 토로하는것이다.

아 해빛, 해빛
우리 운명을 다 맡아
꽃피워주고 빛내여주는
김정일장군님은 이 땅의 태양
그 정으로 뜨겁고
그 사랑으로 은혜로운
우리 당의 해빛이여
...

(시 《해빛》중에서)

사랑과 정을 다하여 우리 인민의 운명을 꽃피워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위대한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인품, 그 인덕에 매혹되어 터친 시인의 심장의 토로는 시목음 《어머니 우리 당》의 사상적핵이다.

어머니가 하나이듯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우리 장군님의 모습은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다.

서정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이 어머니당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진정으로 노래하고있기에 고향집 어머니를 생각하듯 우리 당의 품을 가슴뜨겁게 감수하게 한다.

어머니란 그 부름은 아이적이나 백발이 성성한 인생말년이나 달라지는것이 아니라 한목소리이며 따르는 마음도 한마음인것이다.

바로 것처럼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리, 사상감정에는 그 누구에게 있어서 깨끗하고 변함이 없고 가식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것이다. 그것은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이 우리 당의 위대성과 자애로움을 생활을 통하여 심장으로 터득한것이 기때문이다.

서정시의 시형상의 커다란 감화력은 생활체험의 총화로부터 흘러나온 심장의 고백을 시형상의 생활적인 본성에 맞게 노래함으로써 얻어진것이다.

서정시는 어머니 우리 당이 천만군민이 심장을 맡긴 운명의 품임을 간고한 《고난의 행군》시기 생활체험과 당의 해빛속에 사나운 역풍도 맞받아 이긴 승리자의 긍지넘친 정서로 느끼게 한다.

서정시는 이 귀중한 어머니당을 심장으로 받드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의 참다운 의리와 량심의 세계라는것을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고있다.

...

이 땅의 전선길에 심장을 대보기 전에는
...
선군령장의 보폭에 발걸음을 맞추기 전에는
당을 우리 어머니라고 부를수 없으리
...

참으로 서정시에는 참다운 생활철학과 생활의
진실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이 나라 아들딸들의 행복을 위해 전선길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다 헤아리기
전에는 자신을 그이의 아들이라고 자부할수 없다
는것은 우리가 한생을 다해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우치며 심장으로 간직해야 할 생활의 진리, 삶의
철리인것이다.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순정으로 시대앞에, 군대
와 인민앞에 이 고귀한 생활의 진리를 토로한 바
로 여기에 이 서정시의 참다운 철학적인 시세계
가 있다.

시목음 《어머니 우리 당》은 피어린 격전의 폭
풍우를 헤치며 인민의 운명을 지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눈물겨운
생활체험은 령도자에 대한 깨끗한 의리와 불타는
그리움, 정으로 굳게 결합된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
체를 낳았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른새벽 새날의 첫걸음을 땀 때면
저 멀리 해쫓는 전선길로
그리움안고 달려가는 내 마음속에
불덩이처럼 솟구치는 심장의 부름
-나는 선군시대당원이다
...

우리 당을 따르는 천만리길에
오늘처럼 래일도 한목소리로
땀땀이 궁지높이 웨치고웨칠
영원한 심장의 선서여
-나는 선군시대당원이다

김정일 장군의 선군혁명전사다!

(시 《나는 선군시대당원이다》 중에서)

《나는 선군시대당원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
혁명전사다!》 시인의 이 웨침은 그대로 선군시대
의 웨침이며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으로 된다.

그것은 선군령장을 받들어 고난도 이기고 강적
도 이기고 죽음도 이긴 궁지드높이 경애하는 장
군님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믿고 따를 강의하
고 진실한 열혈의 투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본새로 선군혁명대오의 선봉에서 변함없이 걸어
갈 순결의 인간,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혁명가
가 될 한생의 언약이다.

서정적주인공의 투철한 신념의 세계를 양양된
철학적주정으로 토로한 이 결구가 생활적표상과

함께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키며 깊은 여운을
안겨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혁명전사에게 베푸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끝없는 동지적사랑을 가슴깊
이 새길줄 아는 전사의 자각이 철학적인 정서로 분
석되며 그 정서적축적을 타고 진정이 넘치는 맹세
를 담은 결구가 토로되며 승화되었기때문이다.

오 고귀하다 신성하다

그 녀 그 신념을 이어받은 세대

우리 장군님 선군혁명동지라 불러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피줄기로 고동치는 심장을

결사옹위총대에 불로 재운

선군시대 조선로동당원

(시 《나는 선군시대당원이다》 중에서)

혁명전사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
지로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준 더없이 고마운 위대한 당을 어
머니로 모신 이 행복감과 긍지는 당의 믿음을 가
슴깊이 새길줄 아는 전사의 높은 자각이 없이는
간직할수 없는 참된 인간의 사상감정이다.

이런 행복감과 긍지, 참된 삶의 진미는 수령,
당과 전사사이 한마음한뜻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룰 때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위업이 성취된다는것을 깊이 인식
한 전사, 그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사람만
이 느낄수 있는 값높은 철학적인 주정세계이다.

력사적체험으로 이것을 터득한 서정적주인공은
선군시대 당원, 위대한 **김정일**장군의 선군혁명전
사라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것처럼 격조높이 노래
할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선군혁명전사는 《저
하나의 안락과 일신의 공명》은 추호도 용서가 없
으며 《좋은 날엔 길동무가 되어 한길을 가다가》,
《준엄한 날엔 갈라지는 그런 배신은》 아니며 《오
직 티없는 량심과 의리만을》, 《그 이름우에 목
숨같이 없고》 사는것이다. 선군혁명전사는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데서 끝없는 행복과 긍지를 느낄
줄 아는,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당의 부름에 한
몸을 내대여 헌신하는 결사옹위의 전위투사를 의
미한다. 그러기에 서정적주인공은 선군시대당원,
선군혁명동지답게 언제나 당앞에 진실하고 열렬
하리라는것을 맹세하며 《그대 인도하는 강성대국
승리봉에》, 《그대의 붉은 기발 휘날릴 첫 기수
가 되리》라는 걱정을 토로하는것이다. 이것은 서
정적주인공의 진정에 넘치는 호소이며 가슴에 끓
어오르는 충동에 의해 다지는 심장의 맹세이다.
서정시의 시적정서는 여기서 더욱 승화된다. 그
리하여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행복만을 찾는 철
없는 자식을 보는것이 아니라 선군시대 열혈의
혁명전사가 지닌 삶의 철리를 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참으로 시뭇음 《어머니 우리 당》에서 우리는 백두에서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드시고 고난과 시련을 헤치시며 선군의 한길을 걷고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하신 모습을 우러르며 그 이를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선군시대 혁명전사들의 대오의 도도한 흐름을 본다.

시련속에서 나누는 정이 더 두텁고 열렬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의 병사들과 인민이 하나의 선군혁명동지로 억척같이 결합되어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가는 혼연일체의 격랑을 본다.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래일을 보며 10 월의 대축전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일심단결의 대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의 거류를 본다.

×

이 땅에 강성대국의 려명이 동터온다.

해빛이 없는 려명을 생각할수 없듯이 당이 없는 조국의 앞날과 강성대국을 생각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안고사는 당은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서정시에서는 자신의 운명과 온넛을 맡기고 따르는분, 떨어져서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은혜로운 어머니 우리 당, 세상에 당은 많아도 어머니 우리 당은 하나이라는 것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참으로 이 정답고 운명적인 부름에 우리 당의 백전백승이 있고 무궁변영할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백두의 이깔단풍

정성환

이깔나무 초리끝에 들린 하늘은

금시 물들듯 파아란데

깊은 명상속에 장군님은 거니시네

단풍든 이깔숲 금빛세계를

추억도 많은 고향의 이깔숲

해빛에 무르익어 금빛인가

그리움에 불타올라 그 모습 금빛인가

아침이슬 반짝이는 이깔단풍은

금싸락이 내리는듯 내리네 내려앉네

있있에 휘감았던 하많은 사연을

줄줄이 풀며 또 풀며

백두의 아들은 해빛에 빛나는 수림의

아름다운 절경에 밝은 미소 보내시네

원쭉칠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그날의 귀틀집에 커시였던

빨찌산 김대장의 등불빛이 어리어

이깔은 금빛으로 타는듯싶네

어머님의 정깊은 그 목소리

나무마다 있있마다

스미고스미여

지금도 귀전에 들리는듯싶네

어린 시절 룡마바위우에서

오늘의 이 조선을 그려보신 우리 장군님

또다시 오시기를 기다려가다려

금빛으로 불타는 이깔단풍

선군의 천만리길가시는 장군님께

전선길에 쌓인 피로 잠시나마 푸시라고

있있을 떨구어 금빛주단 펼쳐드리나니

그 길을 거니시네 우리 장군님

끝없이 아름다운 래일을 안고 거니시네

투사들의 념원 꽃핀 내 조국에

강성대국 일떠세울 구상을 안고

사색깊이 거니시네 이깔숲을 거니시네

백두산을 무궁토록 받들어갈

인민의 그 마음 담아

천하절경 황홀하게 펼쳐며

장군님 우러러 불타는 이깔숲

이 조선에 안아오실 휘황한 미래를

그려주네

아, 그려주네

잊지 마시라

김명익

무수한 해를 두고
흐르는 달을 두고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집행 못하고있는
당정치국결정서가 있노라

백발의 당원들, 떠나간 당원들
오늘의 새세대당원들
결사의 붉은 당원증을 지녔어도
오랜 날을 두고 관철 못하는
조선로동당의 결정서

당이 결심하면
천하도 움직이고
수백만 당원들 손을 들어 결정하면
만사가 다 성취되건만

오, 이 결정만은
이 결정서만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휴양을 보장할데 대하여...

이 나라 하늘은 인민이라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강산도 덮을 그 많은 당결정 세워
다 관철하게 하시면서
최고사령관 명령도 주시면서
국방위원회 명령도 내리시면서
천만군민의 이 의사만은 밀어놓으신
김정일장군님이시여!

내 아노라
-온 한해 삼백에순다섯날에
새벽별을 제일 먼저 보시는분
한뼉 인민밖에 모르시며 일하시는분이
인민때문에 기쁨도 눈물도 많으신 그분이
다름아닌 우리의 아버지시나니

우리 아노라

오로지 인민의 총복으로 사시는것
이는 그분의 호흡
그이의 고귀한 생의 전부
불변의 령도철학이거니

내 일을 더 하련다
위인의 뜻을 받들어
인민을 받들어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많은 일을
이것만이 우리 당 결정을 집행하는 길
인민의 령도자의 그 휴양을
보장하여드리는데있을

진정 인민을 꽃방석에 앉히시고
언제나 만백성을 받드시는분
오늘도 그이 타신 인민행렬차여
천리전선길을 달리는 야전차여
삼가 고요속에 달리여다오
산수 좋은 곳에 잠시라도 멈춰서다오
그러면 그이 잠시 쪽잠에라도 드시련만

바라노니 이 땅의 사람들
슬하의 당원들이
언제이면 그 언제이면
축원의 꽃방석에
우리 장군님을 모시여보라

동지들이여!
로동당원들이여!
동시대 사람들이여!
그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 하라
그리고 크나큰 공훈을 세웠다 하라
허나 잊지 마시라, 잊지를 마시라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년년이 집행을 못하는
당결정서가 있음을!

오, 두 세기를 이어가며
집행되지 못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당결정서여!

당창건기념탑을 바라보시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기념탑들이 있는가. 그러나 당의 창건자인 수령을 칭송하고 그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기념탑은 오직 이 땅에만 솟아있으니 그 탑이 바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으며 건립된 당창건기념탑이다.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며칠 앞둔 어느날 준공을 앞둔 당창건기념탑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하신 미소를 담으시고 숭엄하게 일떠선 당창건기념탑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E.C》를 뿌리로 하여 자라난 우리 당의 역사를 상징한 폭넓고 거대한 화강석기단, 그우에 하늘을 떠이고 높이 솟은 거대한 탑신 그리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상징하는 대원형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당창건기념탑이 아주 멋있다고, 당창건기념탑건설을 아주 잘하였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멸의 탑과 더불어 길이 전할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창건기념탑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철

◇가사◇

우리 당의 첫 동지들

박전걸

화전의 언덕에 타오른 불을 안고
《E.C》의 기발아래 뭉친 전위들
수령님 우러러 심장을 합친
아 그들은 우리 당의 첫 동지들이었네

한사람이 열백사람 묶어세우며
혁명의 폭풍만리 앞장에서 헤쳤네
동지애의 노래 안고 수령님을 옹위한
아 그들은 우리 당의 첫 동지들이었네

선군의 총대높이 나가는 앞길에
영생의 그 모습 우리를 불러주네
장군님 따라서 영원히 함께 갈
아 그들은 우리 당의 첫 동지들이었네

석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지닌 우리 당과 인민만이 창조할수 있는 대기념비입니다, 당창건기념탑은 주체혁명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상징이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상징입니다, 당창건기념탑은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당의 자랑스런 투쟁력과 불멸의업적을 보여주는 증언자로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며 길이 빛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떨치며 길이 빛날 당창건기념탑!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되새겨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끝없는 긍지와 환희의 웨침이 터져올랐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떨쳐가시려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며 김일성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찬란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

나는 청춘시절 병사였다네

림철

청춘이 인생의 봄이라며는
너는 무엇을 꽃피웠느냐
피뿜는 가슴에 총을 잡고서
이 땅을 지키여 전호에 썼네
아 나는 꿈많은 청춘시절에
장군님 보위하는 병사였다네

청춘이 위훈의 시절이라면
너는 무엇을 빛내였느냐
청춘의 어깨에 총대를 메워
눈비를 맞으며 행군길 갔네
아 나는 꿈많은 청춘시절에
장군님 보위하는 병사였다네

한생에 귀중한 청춘시절에
너는 무엇을 남기었느냐
조국의 수호자 긍지를 안고
먼 후날 값높이 추억하리라
아 나는 꿈많은 청춘시절에
장군님 보위하는 병사였다네

가을날에 있을 일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는 늘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신 인민의 참된 딸의 모습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였다.

주체36(1947)년 가을 어느날 점심무렵이였다. 시내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에 나오시였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집을 가득 이고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로인내외를 목격하게 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급히 그들에게 달려가시였다. 어디로 가는 길손들이기에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가고 물으시는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며 로인내외는 아들네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대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로인들이 무겁게 짐을 지고 땀을 흘리며 다녀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할머니의 짐을 무작정 받아안으려고 하시였다.

함께 동행하였던 일꾼들이 뒤미처 달려와 김정숙동지를 만류하며 짐을 얼른 받아안았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짐을 끝내 받아안고서야 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인데다 낮모를 길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긴다는것이 송구스러웠던지라 할머니는 계속 짐을 도로 달라고 재촉하였다.

로인들의 속마음을 헤아리신듯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처럼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가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그냥 가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혼연하게 대답하시는데였다. 그러시면서 나이 많은분들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시는가고 또다시 친근하게 물으시였다.

로인내외는 아들결혼식에 쓸 물품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해방전같으면 밥잔치도 변변히 차리지 못할것을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신 덕분에 이렇게 힘겹도록 이고지고다니며 잔치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진정어린 말을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잔치를 잘 차려주어 그들이 앞으로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도록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기 시작하였다. 그 모습을 본 로인부부는 더는 참을수 없었는지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가겠으니 어서 짐을 달라고 거듭 조르는것이였다.

잠시후 로인내외가 짐을 받아안았을 때였다. 할머니는 얼른 짐을 헤치고 과즙을 여러명 꺼내놓으며 어서 시원히 좀 마시고 땀을 들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대사에 쓸 물품을 우리가 축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짐속에 넣어주시는것이 아닌가.

로인부부는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세상에 이처럼 고마운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고 허를 차며 보아하니 보통분들 같지 않은데 어디서 사시는지 집주소나 대달라고 하였다.

그들의 청을 들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젊은이들이 로인들을 도와드리는것은 응당한 도리인데 뭘 미안해 그러는가고, 어서 가서 잔치를 잘 차려주라고 다정하게 이르시는것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짐을 목적지까지 가져다주지 못하는것이 오히려 마음에 걸리신듯 짐이 무거운데 몸주의하여 잘 다녀가시라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로인내외는 멀어져가는 길손들을 배웅하며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정녕 그들이 어찌 알았으랴. 것처럼 살뜰하고 마음씨 고운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백두산 줄기줄기를 주름 잡으시며 강도 일제를 전률케 하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신줄을.

가사

시간과 내 한생

서진명

어릴적엔 몰랐네 세월이 빠른줄
철이 들어 알았네 시간의 귀중함을
한생은 길지 않고 할일 많거니
분과 초를 아껴가며 바쁘게 살리

되찾지 못하리 헛되이 보낸 시간
무엇도 못메꾸리 인생의 공백을

두번 다시 못사는 삶 후회가 없게
날과 달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리

추억에 남아있네 불같이 일한 날
조국이 잊지 않네 이 땅에 남긴 자욱
애국으로 불태운 아름다운 삶은
선군의 내 조국에 길이 남으리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문학에서는 우리 인민을 힘있고 존엄있는 위대한 인민으로 키운 당의 업적에 대하여서도 생동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당을 형상할 때에는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당으로 그려야 한다.》

《송가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력을 무게있게 노래하는것이다.》

《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작품에서는 형상을 격식화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무게있게 보여 준다고 하여 요란한 수식사와 현란한 미사려구를 랍발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을 직선적으로 노래하거나 사실을 분식하고 공허하게 웨쳐서는 안된다.》

《당의 위대성을 노래한 작품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에 대한 신뢰와 경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 있으며 우리 당은 커다란 고무와 격려를 받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60돐 기념작품○—

한뜨락

리영철

교실의 창문을 열면
금수산기념궁전 람홍색국기가
손끝에 닿을듯 안기여오고
수려한 정원의 목란꽃향기가
목메이게 풍기여오는 프락

태양의 집과 나란히
높이 솟은 나의 교사
아침이면 이 땅의 그 누구보다
먼저 수령님을 우러를수 있는 곳

나의 아들딸들을 곁에다 두고
글읽는 소리를 듣는것이
그 어떤 음악소리보다 좋다고 하시며
산책길도 시험포전을 지나
이 교사의 앞에까지 내셨던 수령님

하늘높이 지붕을 엮고
별무리처럼 비껴진 창문의 불빛들
배움의 그 불빛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며
현지지도 먼길의 피로가 다 풀린다고
오래도록 거닐어보신 이 프락

룡남산의 이슬젖는 풀덤불을 밟으시며
해방의 첫기슭에 세워주신
김일성종합대학
그날부터 수령님은 한평생
우리 대학과 함께 계셨나니

아버이의 정으로 날마다 주신 그 사랑
과학도서관과 자연박물관
그 어디에 들어서도 가득차 넘치고
시간을 아껴가며 타고 오르는
고속승강기에도 뜨겁게 어리어있어라

아, 불어오는 바람결도
수령님의 음성으로 흘러들고
창가의 눈부신 해빛도
수령님의 미소로 안겨오는 여기

무궁토록 내리는 어버이사랑과
영원히 따르는 자식의 진정어
가장 뜨거운 정으로 이어지는 곳
태양의 성지와 한뜨락에서 나는
수령님과 언제나 가까이 있어라

교문앞에서

유련희

그리며 달려온 길은
수백리...
기다린듯 품 벌려 반기는 교문은
아, 눈앞이건만

어이하여
어이하여 이 몸은
주춤이다
주춤이다 벗어나는가

울렁이는 가슴아!
눈 시글게 비쳐드는 해살아!
나래치는 룡마의 기상이런가
친필현관 숭엄한

교문!
아버지 우리 장군님 나를 불러주신
룡남산마루
김일성종합대학교문이어!

벌써 몇번을 그 몇십번을
나는 다시 파란 증서 펼쳐보네
고향마을사람들도 다 모르던 내 이름
또릿또릿 마주보는 입학통지서...

아, 천리 먼 전선길 야전차안에서
심심산골 로동처녀
애어린 꽃망울의 소원까지 헤아려
아버 이수령님 존함 가까이
이내 이름 이내 한생 들여세워주시니!

꿈만 같아...
교문을 들어서도 교문을 나서도
태양의 존함 그 존엄과 더불어
이어지고 빛날 나의 삶...

때가 와서... 내
그 어느 먼곳으로 떠나가도
숭엄한 글발은
성실한 내 삶의 빛을 더해주시니

사랑으로 열린 교문
보답의 한생을 기약하는
오, 가슴치는 그 맹세없인
쉽게 들어설수 없어

수백리길 단숨에 달려온 몸
한발자욱 교문앞에 무겁게 서서
한생을 다 기울여
삼가 절을 드리네

아 들

위명철

이 아침도 거울앞에서
대학모 쓰노라니
번쩍이는 대학모표와 함께
우렁이 떠오르는
자애론 그 모습

건국의 그날
새조선의 첫 애국미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세워주신
아버 이수령님

룡이 났다는 이 룡남산에서
나라의 기둥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며
몸소 붓을 드시고
대학모표의 도안을 그리실 때
수령님 바라신 뜻 무엇이던가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잎속에
펼쳐진 책
《대학》이란 글자를 크게 새기실 때

정녕 바라고바라신 뜻 무엇이던가
그 념원
대학기발에 뿔뿔 휘날리고
내 소중히 간직 한 학생증에도
모자에도 뜨거이 새겨졌나니

년대와 년대를 이어
내 조국의 기둥으로 자라난
수천수만의 머리우에
해살처럼 빛나온
김일성종합대학모표

오늘도 우리 장군님 받들어
선군조선의 대들보가 되라고
말없이 나에게 속삭이시니
아, 나는 아버 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하늘처럼 머리에 이고사는
룡남산의 아들이다!

첫 수업

최정옥

내 어릴적부터
꿈의 나래를 펴고 오르던 룡남산
오늘은 푸른 대학생교복 입고
나는 서있다 명제비앞에

《조선아 너를 빛내리》
해빛밝은 교실보다 먼저
여기 룡남산마루
위대한 장군님의 명제비앞에서
신님의 글발을 새겨안은 이 시간은
대학생 나의 첫 수업

흐르는 바람결
설레이는 나무잎도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승엄한 이 산정에
장군님 남기신 력사의 그 맹세
오늘도 메아리쳐 울려오나니

그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며
애국의 큰 뜻 키워갈
배움의 날과 날이 여기에 있다

끝없는 독서와 사색과 노력으로 걸어갈
과학탐구의 먼길이 여기서 시작된다

아 말없이 말없이
심장마다에
뜨거운 박동으로 채워주며
세월의 한끝까지 변치 않을 량심과 의리
배움의 지향과 삶의 목적을 주는
룡남산의 첫 강의
《조선아 너를 빛내리》

대학생의 첫걸음
입학의 첫 수업도 여기서 시작하는 우리들
인생의 먼길을 가고가다
내 때로 마음 지치며는
룡남산 이 언덕에 다시 오르리니

아, 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삶의 순간순간을
룡남산의 첫 수업으로 이어가리라

교정의 사계절

우 순

봄

연록색 봄물오른 수림속으로
급계도 뻗어간 가리마길은
내 정든 사색의 등교길이랍니다

살랑이던 나무잎 노래하던 못새들
나만 오면 소곤히 얄전해지는 여기로
까르르... 물려오는 류다른 웃음소리

따가운 해별 무더운 삼복철이건만
싱싱한 푸르름속에 미쳐 느끼지 못합니다
아지아지 커다란 푸른 부채로
가벼이 책장을 번져주는 교정의 학습터
뽕죽뽕죽 솔잎들은
어서 잉크를 찍으라고 나를 쳐다봅니다

아, 갓 입학한 신입생들인가 봄니다
김일성종합대학학생이 된 기쁨
너무도 가슴에 크고 아름답

우리 장군님의 명제비앞에서
룡남산의 냇을 새기며 잠못들던 봄시절이
인제는 졸업반인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름

번개인양 사라지는 령감의 불꽃
농칠세라 꺼질세라 적어두라고...
아,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을 안고
아낌없이 뽐는 룡남산의 정열속에
내 심장의 박동 거세차치고
탐구의 아지도 무성해지는 여름입니다

가을

푸르른 여름은 하루밤새 가는걸가요

노을빛수삼나무 황금빛은행나무

달라진 모습으로 나를 마주합니다
 커다란 새인양 달아내리는 오동나무잎
 내 어깨에 내려앉아 가만히 물어봅니다
 너는 이 한해 무엇을 했느냐
 애써온 논문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 어버이수령님 나를 굶어보시고
 온갖 열매로 무거워진 룡담산에
 나의 열매도 소중히 있어야 할
 걸음걸음 생각깊은 가을입니다

겨울

소복소복 내리는 함박눈은
 온 교정을 책장처럼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빼곡이 채워온 탐구의 한해를 번지고
 더 높은 세계의 새 페이지를 펼쳐라...
 끝없이 속삭이는 함박눈을 맞으며
 숲눈길에 새겨가는 나의 발자욱
 가야 할 탐구의 길 멀고
 엄혹한 눈보라 휘몰아친대도
 달리는 살수 없는 나는 룡담산의 딸이거니
 아, 머나먼 인생길에 언제나

룡담산의 뜻으로 이어갈 내 삶의 자욱입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교정의 산
 룡담산의 사계절은 자연의 계절이 아닙니다
 탐구와 열정 용기와 성공으로
 조국앞에 끝없이 이어가야 할
 내 한생의 영원한 계절입니다!

첫 대학생복앞에서

방금석

청신한 푸른빛
 약동하는 젊음이 넘치는
 첫 대학생복앞에 서니
 따스한 봄빛이
 내 몸을 감싸는듯

언제나 맑고 푸른
 내 나라의 하늘 빛인가
 넘실대는 조국의 바다
 그 푸른 정기 어렸는가

해방된 조국의 첫기슭에서
 김정숙어머님 지으신 첫 대학생복
 나래치는 꿈 활짝 펼치라고
 청춘에게 안겨주는 나래인가

푸른 대학생모
 바지며 치마의 주름주름...
 항일의 녀이 가슴마다 맥박치라고
 한참한참 어머님은 지으셨으리

마안산 아동단원들의 혈벗은 어깨
 포근히 감싸안던 그 손길

그 따스함이 스며있고
 밀영의 밤 군복을 지으시며
 조용히 부르시던
 《사향가》의 노래소리도 들려오는듯

백두의 강설도 품안에 녹이시고
 비발치는 적탄도 한몸으로 막아서시던
 빨찌산녀장군의 숭고한 녀
 뜨거운 체온이
 그대로 어려있는 첫 대학생복

아 그 몇번째인가
 나도 마음속에 정히 입고 나서노라
 어머님의 따뜻한 그 사랑이 감싼 몸
 가장 불타는 사랑이 샘솟고
 가장 열렬한 열정에 넘쳐
 내 나라를 빛내일 크나큰 나래를 내 지닌듯

새 조선의 첫기슭에서부터
 어언 60년 세월
 그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이 옷을 입고 자랐던가
 머리흰 저 로교수도

오늘도 마음속에 정히 입고있으리

얼마나 많은 신념의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이 옷을 마음속에 벗지 않고
어머님의 숭고한 뜻으로
우리 땅을 받들고

내 조국을 빛내여왔던가

아 내 나라의 첫 대학생복
어머님은 오늘도 입혀주고있구나
백두산녀장군의 자애깊은 그 손길로
세월을 넘고넘어
수천만의 아들딸들을 키워주고있어라

소쩍새소리

럼형미

교정의 숲속에서 울려 오는
소쩍새소리
너무도 귀익은 저 소리...
고향의 숲에서 날아온 새 아닐가

이젠 밤도 깊었으니
그만 책을 덮고 자거라
먼곳의 어머니 나를 불러
따뜻이 이르는 속삭임은 아닌지

언제나 웅심깊은 아버지
잠못들고 뒤척이는 생각은 아닐가
이름높은 배움의 성지에서
내 딸이 뉘에게 뒤지지는 않는지...

아 소쩍새소리
소쩍소쩍...
룡담산에 깃들인 이 마음에
고향의 뜻 전해주는 유정한 소리

바깥구나
분초를 다루는 강의와 강의
끝없이 펼쳐지는 학문의 세계
무한한 그 세계에 황홀히 빠져
바빠도 살았구나

시위를 힘껏 떠난 화살처럼
꿈에도 달음쳐온 탐구의 나날
교정의 청청한 측백나무처럼
내 지식의 잎새 무성해지고
사색의 뿌리는 깊어만 가나니

소쩍소쩍
이밤 나를 부르는 소쩍새소리
두고온 산촌을 잊지 말거라
부디 조국의 큰 딸이 되거라...
고향의 말없는 당부 새기여주는
아 룡담산의 소쩍새소리!

신념에 대한 생각

손광수

인생을 하나의 과정안이라고 볼 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수료증이 아니라 최우등졸업증을 받고 싶어한다.

하다면 인생의 최우등졸업증은 과연 누가 줘서 어떤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가.

대학과정안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결코 인생의 최우등졸업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어머니, 나 전과목 최우등을 했어요. 이렇게 표창장도 타고...》

《축하한다. 끝내 소원을 성취했구나.》

이 말은 얼마전 대학과정안을 최우등으로 마친 나의 딸애와 안해가 한 대화이다.

딸애는 서재에서 책을 보는 나에게도 달려와 여간 기뻐 어쩔 줄 모르며 푸른빛의 졸업증과 졸업회장을 펼쳐보이며 아버지의 축복을 기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증과 졸업회장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기쁨보다도 오히려 근심이 앞섰다.

(사람마다 대학최우등졸업증은 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빛내가지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진리를 딸애가 알가?)

나는 딸애에게 물었다.

《애야, 너 왜 우리 장군님께서 그 바쁘신 전선 길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새 졸업증과 졸업회장을 제정해주시고 수여해주셨다고 생각하느냐?》

《호호, 아버지두 참, 뭘 그리 심각해서 그러세요? 그건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들을 무한히 기쁘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표시지요 뭘. 김일성종합대학이 아버지장군님께서 다니신 모교라는걸 아시는 아버지가...》

《...》

딸애의 말이 옳다.

정녕 김일성종합대학 창립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태양상을 모신 졸업증서를 한낱한시 받아안던 졸업생들이 그 얼마나 감격에 목매여 했던가.

거기에는 백발의 1기졸업생들로부터 40여년을 옥중생활로 보낸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 《사랑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이여! 무궁민영하라!》하고 웃으며 적진으로 뛰어든 졸업생들의 혈육들도 있었고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학우들의 몫까지 합쳐 백송리에서 전선에서 못지않게 치열한 학습전투를 벌려온 그날의 영예군인들도 있었다.

새 졸업증의 제1번을 전체 졸업생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눈물에 젖은 만장일치의 목소리가 아직도 나의 귀전에 생생히 남아있다.

돌이켜보면 고려의 성군관으로부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교육에서 앞섰다는 일류급 대학들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력사가 바로 선군혁명시대의 룡남산기슭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새 졸업증과 졸업회장은 우리들의 기쁨의 증서이고 사랑의 증표였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짓기에는 딸애의 졸업증과 졸업회장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고 《나는 백번 죽었다 살아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다!》라고 웨치며 원쑤들을 전률케 한 선배들의 모습이 가슴을 파고든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고 온 세계앞에 떳떳이 웨쳤던가.

순간 나의 뇌리를 세차게 때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신념, 신념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도 혁명은 곧 신념이고 신념은 곧 혁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바로 자기 수령과 제도를 목숨바쳐 옹호고수하려는 절대불변의 신념이 없이는 혁명의 승리를 바랄 수 없다는 진리를 력사앞에 새긴 나라도 있지 않는가!

나는 하마트면 딸애의 물음에 좋은 대답을 주지 못할번 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김일성종합대학 새 졸업증과 졸업회장은 단순한 기쁨의 증서가 아니라 바로 룡남산의 공기와 물을 마신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자기 수령에 대한 변심없는 신념을 목숨처럼 간직하라고 보내주신 증표가 아닌가?

돌이켜보면 해방후 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의 의도대로 대학의 첫 과정을 완성하여 민족교육의 첫 돌과구를 열어놓은 로세대교수들, 리수복영웅의 지휘관으로 용감히 싸운 교수며 적들과의 격전에서 한팔을 잃고도 백송리로 돌아와 세계적인 발명으로 수학계에 이름을 남긴 원사, 교수도 있다. 수백여명의 부상병들을 혼자서 후송하며 최고사령부를 향해 천리길을 걸으면서도 혁명적라관주의정신으로 전지가요를 창작한 녀류시인 등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연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는 교수, 연구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만이 고동치고 있다.

주체의 선군대오는 력사의 오물들을 쓸어버리며 신심의 나래를 펴고 도도히 전진할 것이다.

나는 딸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대학졸업증은 결코 그 어떤 명예를 위한 증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공부시켜주고 키워준 어버이수령님과 사회주의제도를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하는 신념과 옹위의 증표라는 것을...

바로 이 신념을 목숨바쳐 배교주를 때 력사는 그 졸업증을 인생의 최우등졸업증으로 인정하지만 그 신념을 버리거나 흔들릴 때 최우등의 졸업증이라고 하여도 력사는 그 졸업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그래서 혁명은 곧 신념이고 신념은 곧 혁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하얀 뽕나무

뽕나무 한그루

《사람들이 병을 만나는 과정은 각이하다. 선천적인 요인이며 무절제한 생활, 주위환경에 대한 적응력부족 그리고 불의적인 사고 등등... 하지만 그 병이 어떤 사람의 무책임성으로부터 생겨났다면, 즉 병을 유발시킨 인자가 사람이라면 그 인간은 마땅히 모두의 지탄을 받아야 할것이다!...》

이것은 리영애가 그날밤에 쓴 일기의 한구절이었다. 그 《인자》- 한길수대대장에 대한 노여움을 종일 누를수 없었던것이다.

그날... 약품집수차로 혜산에서 며칠간 지체하고 돌아온 영애는 저오기 당황했다. 그사이 그가 속한 강원도려단이 독산물길공사장으로 모두 옮겨갔기때문이었다. 감탕과 부사가 뒤섞인 《흔들레판》에 전기생산을 위한 물길굴을 뚫자면 7년이나 걸려야 하기때문에 암거식우회물길을 만들자는 6. 18건설돌격대 중앙지휘부의 결심이 채택되어 모든 돌격대들에 비상동원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겨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공사를 와닥닥 끝내자는 의도였다. 그것이 벌써 나흘전이라고 했다.

온밤 자동차안에서 흔들리우며 수백리길을 달려온 영애였지만 실수가 없었다. 려단이 나흘동안이나 군의장일이 전투를 벌리다니! ... 그는 아침밥이 곧 잤다는 군의소취사원의 만류도 뿌리치고 또다시 길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바로 그때 독산해서 실려온 구급환자가 군의소에 들이닥쳤다. 향금이라는 날씬하고 눈매 아름

정영종

다운 처녀였다. 서둘러 상처를 헤쳐본 영애는 깜짝 놀랐다. 환자의 두발이 모두 동상을 입어 푸르죽죽한데다가 한쪽발목은 개방성분쇄골절까지 겹쳐 몹시 위독한것이 아닌가.

분노로 하여 영애는 입술이 막 떨려났다.

《누가... 겨울이 방금 시작했는데 누가 벌써... 이런 동상자를 냈어요, 예?》

《접니다.》

킁킁하게 질린 얼굴로 한발 나선것은 려단참모회의 때 낮을 익힌 젊은 대대장이었다. 영애는 속눈섭을 한껏 치켜올렸다. 려단의 유일한 총각 대대장으로서 늘 경쟁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하여 온 공사장에 혁신자지휘관으로 소문난 한길수였다. 놀랍게 훑어보는 영애의 시선에 위축된듯 한길수는 벗어든 털모자속에 두주먹을 쑤서넣고 애꿎게 주물럭대기 시작했다.

《그러니 동무네 대원이란 말예요?!》

《그렇습니다.》

침울하나 역시 주저없는 대꾸, 그만에야 영애는 속이 왈각 뒤집혔다. 향금이의 동상으로 미루어 그의 대대에 좀 경하기는 해도 동상자들이 있을수 있는데 어쩌면 저리 태연할수 있는가.

《나좀 봐요!》서리발을 뽕기며 진찰실밖의 복도에 나선 영애는 대뜸 날카롭게 따졌다.

《아무리 전투기로서니 대원들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환자를 냈어요? 도대체... 무얼 바라가요?》

마감말은 어떤 명예를 노려 대원들을 혹사시키지 않았느냐는 모욕적의미의 힐난이었다. 한길수

도 그것을 의식했는지 몸을 부르르 떨며 감때사 나온 눈길을 책 쳐들었다. 그러나 인차 외면하며 힘겹게 중얼거렸다.

《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치 말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장동지, 우선 향금동무의 처치부터 시작해주시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다간…》

《벌써 늦었어요!》

영애는 짐짓 냉담하게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예? 그건…》

《어쩌면 향금인 발목을 잘라야 할지도 모른단 말예요!》

《아…》

한길수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뿜으며 머리를 싸쥐었다. 그 서슬에 털모자가 떨어져 복도에 굴렀다, 영애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렇다. 한길수는 괴로움의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향금인? 정말 그의 발을 살려낼 방법이 없을가?

갑자기 한길수가 후닥닥 앞을 막아서며 영애의 손목을 집게처럼 틀어잡았다. 그의 목에서 울대뼈가 경련하듯 꿈틀거렸다.

《도와주십시오, 군의장동지. 그 동문… 향금동문 자신을 바쳐 동지들을… 아, 내가 그때…》

《그만해요! 지휘관이라면 후회하기 전에 모든 걸 내다놔야지요!》

《그러니까… 군의장동진 끝내…》

《날 원망할 건 없어요!》

순간 한길수의 눈이 번쩍했다. 그는 험한 숨을 쉰으며 집어삼킬듯 영애를 노려보더니 지금껏 움켜잡고있던 손을 책 뿌려던졌다.

《그러니까 끝내… 발목을 자르겠다는 겁니까?!》

혈떡거리며 그가 사납게 내뿜었다.

《그럼 군의장동진 뿔때메… 뿔때메 여기 백두산에 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려고요? 온도에 오진을 모르고… 수술에서도 실패를 모르는 명의라고 떠들썩 소문내고는 고작… 뭐 발목을 자르겠다구요?》

한길수는 별스레 시커먼 주먹을 댄다 흔들었다.

《그따위로 우릴 대하려거든… 집으로 돌아가기나 하시오!》

젊은 대대장은 복도에 떨군 모자를 집을 생각도 있고 술취한듯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영애는 돌미륵처럼 굳어졌다. 고막이 왕왕 울었다.

(집으로 돌아가라? 누구를?... 나를?...)

종일 영애는 삼지연군인민병원에 가서 동상자 치료를 위한 의사협의회를 조직한다, 자신의 오랜 립상경험에 토대하여 효과적인 치료대책안을 세운다 하며 긴장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지긋게 고막에 매달려 울리는 한길수의 목소리와 싸웠다.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려는가요? 동문 마치 백두산돌격대원들은 특수한 인체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역시 특수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정신적면에선 옳아요.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개의 상징인 백두산지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훌륭히 꾸린다는 그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남다른 각오와 열정! ... 하지만 의사에겐 그 장한 돌격대원들도 일단 앓게 되면 하나의 환자일뿐이에요. 어디서건 똑같은 병명으로 불리우고 똑같은 치료가 적용되는 똑같은 환자!... 애초에 그런 위독한 환자를 낸 동무의 무책임성이 문제인거예요, 무책임성이!...)

그랬으나 도저히 모욕감은 묵새겨지지 않았다. 얼마나 소원했던 6. 18건설돌격대입대였던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처음 그 소원은 두해 앞서 백두산지구건설장으로 달려간 남편 김정수에 대한 그리움에서부터 싹트었다. 전기석탄공업성 강원도대대 대대장인 남편은 편지나 전화마다에서 자기들의 위훈이며 백두선경으로 황홀하게 전변되어가는 삼지연지구의 모습 등을 그려보이곤 했는데 영애가 무엇보다 신기해한것은 남편당자의 놀라운 변모였다. 너무 마음 착하고 어질기만하여 때로 (아이, 사내씨게 얹히고 과격한 맛은 왜 없담. 내가 못되게 굴면 뽀이라도 좀 칠게지!) 하는 괜한 불만까지 품게 되던 남편이 홀연 무게 있고 배짱도 드센 정력적인 사나이로 바뀐 것이었다. 남편의 묵중한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어떤 위압감으로 영애의 기를 질리게 만들었다.

(어쩌나! 이젠 내가 그이앞에서 밤낮 설설 기계 될가 봐, 무엇이 이런 조화를 부렸담?...)

자부심이 강한 영애였다. 한때 강원일보에 《우리결에 이런 의사가 있다》 라는 기사로 크게 소개될만치 그는 의술이 높고 환자들에게 정성스러워 의대병원의 보배로 떠받들려 지내왔다. 혹시 그것이 자기의 허영심을 잔뜩 키워준 건 아닌지?... 그렇다면 중학시절부터 즐겨 읊어온 주옥양의 시구절처럼 《네우에 한번 오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나거니》 ... 나 역시 백두산에 올라 새로 태어나야 할가봐!

물론 쉬이 집을 떠날 몸은 아니었다. 그 자신 시부모를 모신 맏며느리였고 어린 두 자식의 어머니이자 백두산에 간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해야 할 세대주였던 것이다. 또 병원구급과에서는 그를 대신할 의사가 없다고 늘 외우느라였다.

그러나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것 역시 그의 기질이었다. 그저 이젠 몹시 어려워진 남편만 반대없었으면!

한데 정작 지원물자를 듬뿍 마련해가지고 백두산지구건설장을 찾아간 영애에게 남편 김성수는 헌헌하게 말했다.

《난 절대찬성이요. 물론 당신의 속병때문에 걱정되긴 하지만 여기 백두산바람은 누구나 꼭 쏘여야 할 <제1차건강요법>이거든!》

의미심장한 말이였다. 그러나 영애는 그 말뜻을 깊이 음미해보기도 전에 눈물부터 쏙 나왔다. 소원

을 성취할 가장 유력한 지지를 얻은 것이었다.

한달후에는 벌써 그의 이름이 강원도려단 군의 장으로 올라있었다. 그날 영애는 기념으로려단 군의소앞마당에 애어린 봇나무 한그루를 떠다심었다.

마침 짬을 내어 함께 일손을 거들어준 남편은 눈부신 하얀 자태를 드러내고 한들거리는 봇나무와 안해를 번갈아보고나서 떠보는듯 한 웃음을 입가에 담았다.

《여보, 이 고장 사람들의 말이 봇나무는 떠울기면 3년안팎에 죽기 쉽다고들 하던데... 아마 백두산땅이 나무가림을 몹시 해서 나온 소리같아. 어디 우리 고집쟁이가 꽤 풍토순화시키는지 두고볼가?》

《보시라요. 내 꼭 살려내잖나!》

그렇게 뿌리를 박은 땅, 바로 그것을 한길수라는 감때사나운 젊은 대대장이 떠나버리라고 강박하였다!

(그렇게는 안될걸. 이제 누가 누구를 규탄하게 되겠는지는 두고봐야 해!)

3차에 걸친 의사협의회는 향금의 발목을 살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영애는 느닷없이 배부위에 마쳐오는 예리한 아픔을 감촉했다. 완화추세를 보이던 속병이 종일 무리한때문인지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이 건 향금이의 신상에 대한 고통스러운 의식일뿐이야! ... 그는 몸부림치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향금인... 백두산에 올라 새로 필 자리를 찾은 귀한 꽃이예요. 절대로 스러지게 해선 안돼요. 수술은 제가 하겠어요!》

눈부신 무영등아래에서 절개를 시작하자 곧 영애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키려고 이를 악물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서진 골편들이 살속을 온통 파고들어 혈관들을 죄다 끊어놓은 것을 본 것이었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허물어져버렸다.

의분이 온몸을 짓태우기 시작했다. 아아, 처녀를 이런 지경으로 만든 한길수, 넌 대체 어떤 인간이냐? 만약 이 처녀가 너의 애인이였대도 어떤 《전투》라는 명분으로 사고방치대책도 없이 마구 다물아쳤을테냐?

그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아침하거나 아래사람들의 헌신을 유도하여 얻은 성과로 출세의 발판을 다지는 인간을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영애였다. 이 순간 그는 한길수가 그런 비렬한 부류의 인간이 아닐가 하는 추측에 불쾌감을 느꼈다.

(병을 유발시킨 <인자>! 새세대에 속하는 그 청년에게 과연 그런 너절한 사심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그만큼 혐오스러운 일이었다.

갑자기 영애는 수술칼을 푹 멈추었다. 동시에 심장도 푹 고동을 멈춘듯 하다. 눈에 뜨일라말라 하는 가는 모세혈관 하나가 팔딱팔딱 살아 숨쉬고있는 것이 아닌가.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랐다. 향금이의 삶이, 그의 아름다운 미래가 보내는 가냘프나 그지없이 완강한 미소의 불꽃! ...아, 이것을 모체로 혈관 이음수술을 진행한다면!

《고맙다, 향금아 정말... 정말 고맙다!...》

자신에 대한 수술

자동차가 독산어름에 다달은것은 자정무렵이었다. 긴장한 수술과 혈관확장치료로 간밤을 꼬박 밝힌 영애는 운전칸에서 졸다가 갑자기 눈을 홑떴다. 눈앞에 하늘을 치밀을듯 우뚝 솟은 거대한 산 하나가 용암을 뿜는것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이 아닌가. 희한한것은 그 용암이 여려가닥으로 정연하게 줄지어 흘러내리기도하고 산정점으로 꿈틀꿈틀 기여오르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자연의 인력법칙을 거스르는 그 기괴한 울리흐름은 영애에게 전율마저도 불러일으켰다.

《아바이, 저게... 저게 뭐예요?》

영애는 몸을 떨며 운전사의 팔을 건드렸다.

《꿈인줄 아셨소?》 나이지숙한 운전사는 껄껄 웃었다.

《그게 유명한 독산이라우. 사람들이 여기 와선 다들 잠을 췌버렸단니.》

영애는 비로소 호- 막혔던 숨을 내뿜었다. 절로 낮이 뜨거워졌다. 먼눈으로도 쉽게 가려볼수 있는 화불의 행렬을 용암으로 착각하다니, 전투명령을 받은 돌격대원들이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리라는거야 뻔하지 않는가.

불쑥 한길수의 그 지킴은 목소리가 되살아올랐다.

《어떤 사람들을 치료하려고요?》

(정말 내가 이리도 몰랐었던 말인가?...)

까닭모를 초조감이 가슴을 침질하기 시작했다. 그가 독산으로 떠나오기 전에 들렸던 병원에서 향금은 이렇게 속삭였었다.

《군의장동지, 우리 대대장동지를 나쁘게 생각지 말아줘요. 그분은... 무척 훌륭한분이예요. 제발은 제가 부주의해서 그만...》

그때 영애는 야릇한 기분에 휩싸였었다. 《그분》이라는, 총각에게 붙이기에는 멋스러운 존칭에서 환기된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간절한 빛으로 파들파들 떨리던 향금의 눈동자때문이었는지... 혹시 향금이가 대대장을 몰래 사랑하는건 아닐가? 그게 사실이라면 한길수에 대한 자기의 부정적리해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예측대로려단지휘부천막은 텅 비어있었다. 전 화직일을 서는 처녀 하나만이 외로이 앉아있다가 반씩하며 정치부장동지의 지시이니 오늘 밤엔 아무것도 할 생각 말고 푹 쉬라고 권했다. 그러나 영애는 무작정 작업장으로 떠났다.

불의 바다! ... 누구라할것없이 골재를 쏘아진 돌격대원들이 화불방망이를 चु켜들고 까마득한 산정을 향하여 치닫고있었다. 눈어름으로도 50도는 실히 될 철벽같은 길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야 영애는 돌격대원들이 걷는것이 아니라 앞서잡의 발꿈치를 손으로 떠받치고 밀며 한치한치 포복전진하듯 한다는것을 알았다. 그 손들은 모두 꾸둑꾸둑 언 감탕범벽이었다. 자동차로 오던 길에는 장판지를 칠만큼 쌓였던 눈, 그 눈이 독산의 이 벼랑길에서는 모두 녹아없어졌다. 돌격대원들의 쉬임을 모르는 발길에 짓이겨져 가쁘게 몰아쉬는 후더운 입김에 녹아!

불같은것이 치밀어 영애는 제잡담 그 흐름속에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우줄거리는 한 처녀의 질통을 힘껏 떠밀었다. 순간 처녀의 땀에 젖은 얼굴이 핵 돌려졌다.

《싫어요!》 처녀가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싫어요! 날 무슨 꼴로 만들자고... 싫어요!》

아득한 하늘층전에서인듯 비장한 노래소리가 메아리쳐왔다.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눈앞의 처녀가 그 노래를 따라불렀다. 숨에 가빠 토막토막 끊기기는 했으나 격정적인 목소리였다. 어느사이 노래소리는 온 독산을 뒤흔들었다.

영애의 불이 눈물에 젖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빈몸으로도 툴아오르기 힘겨운 벼랑길을 그것도 밤낮을 이어 쉬임없이 극복하도록 떠미는것일까? 이들의 심장속에 타끓고있는것은 과연 무엇일까?...

새벽녘, 산중턱의 가독나무아지를 부여잡고 잠시 숨을 돌리고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정치부장이 불쑥 나타났다.

《잘하오, 잘해. 파시 군의장답소!》

정치부장은 정중 영애의 질통을 빼앗아메고나서 손을 내밀었다. 열결에 그 손을 잡고보니 동상초기의 그 화끈 달고 벌겋게 부어오른 감축이 마쳐왔다

《정치부장동진 언제 손을...》

《들기 싫소!》 정치부장이 와락 영애를 잡아 일으키며 소리쳤다.

《그만큼 돌격대물을 먹었으면 군의장의 몸이 어디에 필요한가 하는것쯤은 알았어야지. 동무까지 애를 먹이면 난 어찌라는가?》

《...》

《그러니까 겨우 쫓아보낸 한길수도 놓치지 않았는가!》

《예?!》

《그의 손이 어떤지 봤소? 역시... 동상이 심하단 말이요!》

피득 영애는 군의소복도에서 자기에게 휘둘러대던 한길수의 유별나게 시커멓던 손이 상기되었다. 그래서 그 손을 굳이 모자속에 감추려 했었구나!

정치부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향금이가 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러단이 독산

의 암거식 우회물길굴착작업을 끝낸것은 이틀만이었다. 그러자 물길콩크리트타입에 쓸 골재가 당장 딸리기 시작했다. 도로에 눈이 쌓인데다가 연유까지 긴장하여 자동차수송이 결린것이였다. 이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것이 한길수대대장이였다. 그는 독산반대권 계곡으로 흐르는 산골강의 얼음을 깨고 모래를 찾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시간씩 차례지는 잠시간을 바쳐 몰래 진행하는 탐색이였다. 대대장의 의도를 알면 대원들이 가만있지 않을터이니 결국 온 대대의 잠을 다 빼앗고말것이기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지휘관들이 소리소리질러가며 강다짐으로 겨우 재우는 대원들이였다. 그럼에도 몇대원이 끝내 눈치채고 대대장의 뒤를 따라나섰다.

《...거기에 향금이도 끼웠소. 생각해보오. 이런 추운 겨울날에 얼음물속에 들어서서 몇시간씩 강바닥을 파헤치자니 손발이 어떻게 됐겠나. 그러고도 모래를 찾고는 서로 부둥켜안고 만세를 불렀다오. 향금이의 발목은 그 다음에 부서졌소. 시료배낭을 메고 벼랑을 뚫던 남동무들이 그 연발때문에 실수하여 굴러떨어지는걸 막았다는거요!》

아, 기특한 향금이! ... 영애는 불쑥 노여움같은것이 치받쳐 울먹울먹 소리쳤다.

《정치부장동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뭘니까? 난 정말... 제 손건사도 그렇게 하니 대원들까지 본을 따르지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정치부장은 다시 폭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옳지 않지... 옳지 않았소. 대원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몰랐으니... 자격이 없소. 자격이! ...어쨌든 군의장동무가 왔으니 한숨 나가오. 도와주오. 이렇게 등짐을 질게 아니라 빨리 자기 일을 해달란 말이요!》

영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치부장의 말이 옳았다. 그리고...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식은 얼마나 행복한것인가.

하지만 아침에 각 대대들을 돌아본 영애는 자기가 할 일이 거의 없다는것을 알고 다시한번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천막들은 외곽구들고래를 뿔아 돌격대원들의 언 신발을 제때에 말리우도록 설비되어있었고 동상에 좋은 민간치료제들인 콩마대며 생강, 마늘, 무우 등이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있었던것이다. 천막벽들에는 십여가지의 민간요법을 소개한 의학상식패도까지 걸려있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대원들에게는 또 빠짐없이 비닐박막버선도 차례졌다고 했다. 신발의 습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여 발이 어는 시간을 지연시키자는 착안이었다.

그동안 정치부장이 직접 뛰어다니며 세운 대책들이라는것을 안 영애는 목이 메였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는!...)

한낮이 거의 되어서야 영애는 정치부장이 특별히 부락한 한길수대대장을 찾아낼수 있었다. 어디선가 두문벌을 받고 콩자루속에 두손을 잠그고 있을거라던 그는 물길벽체콩크리트키기장에서 웃

등을 벗어제끼채 헹헹 삼질을 하고있었다.

한길수는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래는듯싶더니 반죽종게 히죽 웃으며 제 먼저 성큼성큼 마주왔다. 그리고는 아귀센 손으로 영애의 손회목을 꼭 움켜잡았다.

《향금동무의 발을… 살려냈지요? 그래서 이렇게 왔지요?!》

《난 군의소도주자를 <체포> 하러 왔어요!》

영애가 짐짓 심술궂게 말했으나 한길수는 여전히 빙글거렸다.

《그래도 향금동무 불구로 만들고는 여기에 얼굴을 못내밀었을겁니다. 집으로 도망치면 찢어. 그렇지요?! … 고맙습니다, 군의장동지!》

영애는 그의 눈에 핑 눈물이 어리는것을 보았다. 몹시 맑은, 지어 따갑게까지 느껴지는 눈물이었다. 군의소에서는 그 눈에 그리도 감싸사나운 번개불이 번쩍거렸었다.

《어째서 제게 인사를 해요? 판 의사가 수술했을수도 있는데!》

《군의장동지가 했습니다!》 한길수가 고집스레 버텼다. 《그날도… 전 믿었었습니다. 군의장동진 향금동무를 위해 기적이라도 창조해낼거라구요. 다만 전 군의장동지의 반발심을 더 크게 부채질하자고 모욕적인 말을 했던겁니다. 군의장동지야…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어쩔수없이 영애는 웃고말았다. 지금껏 그를 원망하고 분노까지 터뜨려온 일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솔직한 청년!… 모름지기 그날 군의소에서 자기의 《죄》를 주저없이 시인한것 역시 이 솔직성에서 나온것이리라.

전쟁로병이며 원산수산대학의 부교수인 어머니로부터 엄한 교양을 받으며 자란 영애였다. 어머니는 늘 이런 말로 딸을 훈계하곤 했었다.

《사람의 가장 큰 미덕은 솔직성이다. 어떤이들은 솔직성이 무슨 천성인듯이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자기자신을 스스로 이기려고 결심한 사람의 용기에서 생기는거란다.》

바로 그 용기를 지닌 사람이 자기앞에 서있는 것이었다. 구차한 변명으로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줄 모르는, 그것을 경멸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되여 <병의 유발인자>로까지 보게 되었담? 자기를 볼줄 아는 눈이 커야 남도 잘 본다던데 확실히 내 눈에 문제가 있는가 봐!)

영애는 어떤 친밀감에 사로잡혀 가방에서 한길수가 떨구고 간 털모자를 꺼내여 내밀었다.

《자요, 다신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 잊지 않았군요. 그러잖아도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했더랬는데.》

《감기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순순히 <체포>에 응하겠어요, 아니면 정치부장동지를 불러올가요?》

한길수는 그제야 생각난듯 얼른 두손을 모자속에 감추었다가 부질없다고 여겼는지 한숨을 내쉬

었다. 그 다음 영애의 어깨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난 향금동무를 막 욕했습니다. 그 부서진 발목을 보니 눈물이 나고… 자신이 너무 미워나서… 그랬더니 그가 뭐랬는지 압니까? <대대장동지, 그럼 어떡하십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 막 주저앉고싶을 때가 있지만 누군지, 무엇인지 엄하게 지켜보며 질책하는것 같아 제깍에 화닥닥 뛰쳐일어나게 되는걸요. 매번 그러곤 했어요. 그게 누군가 하고 아무리 눈밝혀 둘러봐도 절 주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저 멀리 백두산만 승엄히 솟아 굽어볼뿐이었어요. 그제서야 전 깨달았어요. 지금껏 절 늘 지켜보며 채찍질해온건 저 백두산이라고요. 그래요. 백두산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쓰러져요? 어떻게 잠시라도 마음의 탕개를 늦춰요?> …》

영애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기다리기도 한듯 저 멀리 밀림의 바다우에 하얀 눈을 떠이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웅자가 눈을 부시게 했다. 가슴이 쿵 울렸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비켜요! 날 무슨 꼴로 만들자고!》하던 처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되살아왔다. 그래서였을것이다. 저 백두산의 순결무구한 흰눈처럼 한점 티도 없는 마음을 지니고저, 그앞에서 한점 부끄러움도 없이 살고저 그 처녀도 향금이라도 한길수도 몸부림쳐오고있을것이다!

(그날 밤 영애의 일기)

《의사는 수술할 때마다 우선 자기자신을 먼저 수술한다고 한다. 지금껏 나는 이 말을 수술의 어려움과 정신적긴장, 책임감 등의 총체에 대한 형상적비유로만 리해했었다.

하지만 한길수대대장은 오늘 그 리해에 결정적인 수정을 가해주었다. 남에게 수술칼을 대기 전에 자기자신을 먼저 해부해보라고, 어떤 심장을 지니고 어떤 자각속에서 수술에 림하고있는지 먼저 검토해보라고! … 결국 백두산을 안고사는 돌격대원들앞에서는 그네들과 다름없이 한점 티도 없는 심장을 지녔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이 집도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것이다!

그때 나는 한길수와 더 가까이 사귀고싶은 심정에서 왜 아직도 장가를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난 안됩니다. 처녀들이 날 대대장으로는 봐도 총각으로는 치부하지 않으니깐요.>

<아이구 무슨 소린지, 향금이란 봐도 대대장동무를 여간 생각지 않던데.>

<향금동무가요?!>

그의 눈에서 반색의 불꽃이 반짝 튀는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인차 시무룩해서 도리질을 했다.

<군의장동진 이런걸 생각해봤습니까? 한 처녀가… 절 오빠처럼 따르고 스승처럼 존경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거기에 믿음은 있어도 뭔가 조심스러워하고 또 몹시 잘 보이고싶어 몸을 비다듬

는... 그렇게 몰래 애쓰는 처녀다운 수집음이랄지 교태랄지 그런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총각이나 처녀로가 아니라 꼭 선생님으로만 대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일까요?>

또다시 한숨, 그러니 한길수는 향금이를 마음에 두고있는게 분명했다. 하지만 향금이는? 한길수가 대대장(그것도 리더적으로 높이 떠받들리우는)이라는 점때문에 엄청나게 짝이 기우는 인격자라고 지레 겁먹고 단념한건 아닌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잘하면 내가 이들의 사랑을 유발시키는 <인자>가 될런지 어이 알라!>

진단

《...<인자>노릇도 간단치 않다. 향금이에게 한길수소리를 술쩍 비쳤더니 그는 필쩍 뛰었다.

<아유- 민망해라! 어른이 뭐 어린애를요? 그래요. 대대장동지에 비하면 전 정말이지 철딱서니 없는 계집애일뿐이에요. 늦잠꾸레기라고 그분한테서 몇번이나 욕먹었다구요. 눈이 쑥 튀어나오게!>

아무리 납득시키려 해도 향금이는 요지부동이였다. 기막히기란!... 백두산에 오기전엔 그가 정말로 <철없는 계집애>였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처녀로 성장했는지를 안다면!... 아니, 그것을 모른다는데 더 아름다움이 있고 매력이 있는게 아닐까. <어른>이 되려는 자기완성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테니까.

이런 깨끗한 성정을 나도 본받아야겠다. 자신이 정의<어른>이 다 되었다고 스스로 만족한다면 사람들앞에서 교만해질진 물론 자질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마저 포기하기가 심상하기예.

사실이 그렇다. 제3외국어로 정한 중어자습을 1년째 해오는데도 여적 의학원서를 절반이상이나 사전에 매달려서야 해독하는 정도이다. 의학의 <어린애>-리영애, 정신차렷!>

《오늘 향금의 발목을 보니 죽은 살색이 많이 가서지고 지압흔도 뚜렷했다. 피가 순조로이 흐른다는 증거이다. 만세! 정담컨대 향금아, 두달이면 넌 대지를 광광 활보하게 될게다. 그때 쫓아내고 한길수의 사랑을 의젓하게 받아들여라!...》

《내 딸 수영이의 생일날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깜박 잊었다. 긴급수혈환자에게 피를 좀 뽑아준다는게 량을 너무 초과했는지 의식을 잃고말았던것이다.

깨어나보니 저녁무렵인데 남편이 내 침대머리에 앉아있다가 반색하며 말한다.

《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댔소. 할머니가 꾸민 생일상을 차려주어 동생 영재랑 함께 즐겁게 보냈다고. 엄마가 몹시 보고싶기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랑 선생님들이 백두산돌격대부부의 딸이라고 늘 칭찬하고 내세워주니 어깨가 으쓱해지고 공부를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도 커진다면서 자기의 걱정은 말라더군, 허허...》

눈물이 나왔다. 그림고 그리운 나의 자식들, 지금까지 어떻게 떨어져 지내왔는지... 하지만 내가 곁에 끼고있을 때보다 그 애들은 더 빨리 성장하는것 같다.

이것도 언젠가 남편이 말한 <백두산바람>이 이엄마를 거쳐 그 애들한테로 풍겨가기때문이 아닐까!

남편은 앓는 몸에 피까지 뿜고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걱정한다. 아닌게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는것 같고 눈앞이 핑핑 돌면서 식은땀이 계속 나온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궁지감을 허물수는 없다. 사실 우리 백두산돌격대원들의 모습은 온 나라가 지켜보고있다. 자기들모두가 닮아야 할 모습, 백두산의 모습이기때문에! 그러니 일어나자. 일어나야 한다!>

《아, 꿈결에도 그리워 달려가 안기곤 하던 우리의 아버지장군님께서 소문도 없이 여기 삼지연 땅을 찾아주셨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돌격대원들이 일떠세운 백두관이며 러관, 국수집, 문화회관 그리고 각이한 형식의 멋진 살림집들... 등등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정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전의 그날부터 구상해오셨던 강성대국의 진짜모습이라고 분에 넘친 치하를 해주셨다고 한다.

종일 감격과 흥분으로 진정할수가 없었다.

아버이수령님 구상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 펼쳐가시는 강성대국의 진짜모습, 그것을 다름아닌 우리가 이 백두대지위에 현실로 꽃피워놓은것이다. 멀지 않아 온나라에 그대로 옮겨질 이 희한한 별천지를!

향금이는 나를 불안고 웃고울었다.

<군의장동지, 난 어떡해요? 아버지장군님께서 저희들에게 백두산지구의 전기화를 보다 완성할 삼수발전소건설을 새롭게 맡겨주셨다는데 선참 달려가 첫삽을 못뜨면 난 뭐가 되요? 뭐가 되요?...>

삼수로!... 러단이 온통 뚫어번지고있다. 나의 머리도 새로운 계획과 착상들이 련속 꼬리를 물고 샘솟아오르며 끓고있다...》

...그날 영애는 자기 머리가 이처럼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지금껏 그저 환자들의 꿈무니나 따라다니는것으로 만족해온 이 못난이! 삼수에 가면 우선 모든 대대들에 몇들어진 세목장부터 꾸러놓아야겠어, 최고급의 한증탕이 결달린. 우리 대원들이 선남선녀들로 미끈하게 가꾸고다니게! ... 더 중요한건 100%가 동물보장이야. 그러자면 대대군의모임을 그저 림상총화만으로 굶때지 말고 자질향상학습을 1시간씩 하는 체계로 바꾸어야 해. 약초밭도 조성해서 자체로 고려약을 만들뿐아니라 대원들에겐 끼마다 각종 약차를 마시게 할테야! ...>

(아이, 수영이 아버지진 이럴 때 달려와 날 도와줄 생각은 왜 못만담?...>

속에 불이 난 영애는 한달음에 남편의 대대에 달려갔다. 그러나 남편은 없었다. 갑자기 어느 송전망을 돌아본다면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온 러단의 전주가공을 전문 맡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분야도 아닌 현시송전망에 무엇때문에 관심한담?

남편 김정수는 밤이 껴 깊어 제발로 안해앞에 나타났다. 신발이며 바지가랭이가 푹 젖은 상태로였다.

《당신 머리를 좀 빌려야겠소!》 김정수는 영애와 마주앉자 지금껏 쫓던 생각을 놓칠가 겁내듯 성급히 말했다. 《여보, 우리 철근과 세멘트가 부족해서 임시로 목주를 기본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작업전기를 끝자고 하오. 그런데 습기대들에선 그걸 얼마 못가서 썩고마오. 그때마다 전기를 끄고 술한 나무를 찍어 새전주를 세운다는건… 삼수발전소건설공사가 어떤 공사요.》

남편은 영애앞에 세멘트회전로만치나 길어보이는 건조로설계도면을 펼쳐보였다. 즉 나무는 송진이 배여있어 벌레나 균들의 부식을 활성화시키므로 로속에서 달구어 그 송진을 말짱 뽑아치우는 것이었다.

《당신이야 수학공이 뛰어나지. 좀 제격 계산해주오. 가열온도와 지속시간… 잘못하면… 전주목을 구워먹을수 있거든.》

그러고보니 남편 역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에 충격을 받고 머리가 《끓기》 시작한셈이었다. 영애는 웃음집이 막 흔들렸다. 남편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절로 찾아와준것이다.

《여보세요, 수영이 아버지. 제게 원목 두차만 해결해주면 귀가 번쩍 열리는 방도를 대드리지요. 어때요?》

《아니, 계산을 부탁하는데 방도란 또 뭐요?》

영애는 호호 웃었다.

《아이구머니, 고작 송진이나 뽑는걸 궁리해내고선!

…전주수명을 한 열배쯤 더 늘일 욕심은 없어요?》

《뭐 열배를 더?!》

《전주에 습기가 아예 스며들지 않게 착색재를 바르자는거예요. 레하면 물유리같은걸. 여기 외장재연구소에서 광광 뽑아내고있잖나요!》

김정수의 부리부리한 눈이 잠시 꺼벅거렸다. 별안간 그는 와락 영애를 덮쳐안았다.

《그거요, 그거! 하하… 난 그저 비싼 뽕끼생각만 하다니니… 이젠 됐소!》

김정수는 무슨 계산같은것은 다 잊고 도면을 와락 말아들며 돌아섰다. 한시바삐 그 문제를 러단에 상정시키지 못해 오금이 쭈신 모양이었다.

영애는 황급히 남편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어마, 값도 안치르고 달아뺄내기에요?》

《값?…》

잠시 덩돌해있던 김정수는 이윽해서야 비죽이 웃었다. 그의 눈길은 떠보듯 영애의 얼굴을 더듬

었다.

《아이, 무슨 공공이속이에요?》

《당신… 생각나오?》 여전히 웃음띤 얼굴로 남편이 입을 열었다. 《몇해전 양지동의 뇌혈전환자로인을 6개월간이나 찾아다니며 완치시킨 일… 그때 로인이 울먹거리며 말했다고 했었지. 반년 켜이나 매일 왕진 오는 당신에게 제손으로 밥 한 그릇 지어 대접 못한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사랑 한봉지를 억지로 가방에 넣어주더라고… 그걸 들고와서 어린애처럼 자랑하던 당신 모습이 아직도 선하구만.》

영애는 얼굴이 서서히 달아올랐다. 그날… 그는 남편에게 행복에 겨워 속삭였었다.

《글쎄 의사로서 응당 할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리 고마와할가요? 애들이나 좋아할 사랑… 그래도 내겐 이게 큰 표창이예요!》

남편이 굳이 그 일을 상기시킨 의도는 명백했다. 자기는 《머리를 빌려준》 덕에 나라가 리득을 얻는것자체에서 행복을 맛볼 대신 그 보상을 요구한것이다!

《됐소, 됐소. 삼수에 가서 일을 더 잘해보자고 그랬겠는데… 원목대신 제체쪽데기를 잘 골라 커서 뒤차보내주겠소. 좋지?!》

영애는 남편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존경담아 쳐다보았다. 훌륭한 남편! 멋진 남편!

…삼수에 도착하자 영애는 정치부장의 지지밑에 한길수대대의 문화후생시설을 꾸리는데 달려 붙었다. 그의 대대를 시범으로 내세워 전 러단에 일반화하자는 것이었다.

검진과 현장치료의 짹짹이 토피블로크찍기부터 시작했다. 발전소언제기초굴착에 총동원된 대대전투원들을 세목장짓기때문에 따로 떼지 말자는 것이었다. 밤은 밤대로 군의들의 자질향상강의에 한시간씩 출연했고 차체목표에 따른 원서독과며 림상경험집정리도 놓치지 않았다. 거기에 허천강과 운총강합수목비탈에 점찍어둔 약초발개간과 약초씨확보도 미룰수 없었다.

그러다나니 영애의 등실하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입술은 조각이 들어 늘 러실러실했다. 무엇보다 자기 육체를 내부로부터 야금야금 갉아먹어 오던 병의 급작스러운 발작이 그를 긴장시켰다. 경험많은 의사의 룩감으로 영애는 병이 이번에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리라것을, 최악의 경우 삶과의 결별까지도 각오해야 하리라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아니, 죽음을 생각는건 의사로서의 행위가 아니야. 그렇지만 남은 삶을 더욱 혹사시켜 더많은 일을 해야 하는것도 참인간의 행위이지 하루가 1년은 되도록!)

한길수대대장이 누구보다 야단야단했다.

《난 군의장동지를 러단으로 쫓지 않을수 없습니다. 뭐 어젠 한증탕에 쓸 타일값이 모자란다고 시계까지 벗어 내놓았다면서요?! 우릴 뭘로 아는 겁니까? 우린 수백이지만 군의장은 하나란 말입니

다!》

《호, 요란하군요. 그래 요구조건은 뭐예요?》

《첫째, ब्ल록썩기에서 완전히 손을 떨것, 둘째, 약초발개간을 우리 대대가 맡도록 승인할것, 이젠 처벌조치로 리해해야 합니다. 셋째...》

《셋째!》하고 영애는 웃으며 받았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향금이한테 면회를 가지 않아 그를 울리지 말것!》

젊은 대대장은 어이없어하는 중에도 낯을 붉히며 솔직히 고백했다.

《저... 겁나서 못갔습니다. 군의장동지가 내 속마음을 다 폭로시켰으니... 그 동무의 존경을 잃었을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사랑을 얻게 될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향금이 왜 동무를 대대장으로만 보는걸까요? 지휘관은 엄해야 하지만... 우선 똑같은 혁명동지부터 되어야 하잖을까요?》

마침 이웃려단의 군의장이 혈떡거리며 나타나 영애를 잡아끌었다. 사연인즉 자기 려단의 한 청년이 특발성피저로 혜산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당장 팔을 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것이였다.

《...헌데 그 친구가 꼭 영애동무의 진단을 받아보고야 팔을 자르든지 어쩌든지 하겠다고 소동을 피우고있소. 이거 어쩌면 좋소?》

영애의 의술이 널리 소문나 사처의 려단들과 중앙지휘부에서까지 무시로 왕진을 청하는터여서 별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영애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의 출현이 그곳 도급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명백한 불신으로, 교만한 무시로 받아들여질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더구나 난치성질병인 특발성피저는 복잡한 진단을 요구하는것도 아니며 절단기 상례이기도 한만큼 자기가 간다고 별로 도움될것 같지도 않았다.

《에- 스물한살나이인데...》 이웃려단군의장은 딱해하는 영애를 결눈질하며 탄식을 터뜨렸다. 《삼수발전소를 완공하고 입당까지 한 다음 당당하게 인민군대에 나간다면 늘상 외우더니 참!...》

영애는 갑자기 흠칠 몸을 떨었다. 총을 잡아야 할 손!... 그 꿈을 이루지 못할가봐 청년은 까맣게 속을 태우며 자기를 찾고있다. 다른 누구도 이번 백두산돌격대의 군의를!

지금껏 뭔가 바제인 자신에게 화를 내며 영애는 결연히 말했다.

《가겠어요!》

아닐세라 청년의 손은 첫눈에 보기에 동맥벽이 두터워져 피흐름이 차단되면서 전반적으로 썩어드는 특발성피저증상 그대로였다. 이제 더 시간을 지체하면 감염이 심해져 팔굽까지도 잘라야 한다.

(아니 무슨 생각을?!) 부르르 진저리치며 영애는 어금이를 앙다물었다. (절단이라는 결심에 앞서 이게 어떤 손인가를 잊어선 안돼. 이 백두대

지와 전변을 안아온 손, 그리고 우리의 백두강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야 할 손!... 그러니 무조건 초소에 내세워야 해!)

여러차례의 세밀한 검사끝에 영애는 특발성피저이기는 해도 원인모를 병조때문이 아니라 어릴적에 입은 화상으로 피출변형이 와서 피흐름이 차단되었다는것, 따라서 일단 혈관을 열어주는 수술을 잘만 하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집도를 제게 맡겨주세요. 혹 실패하면 전 책임지겠습니다.》

의사들이 의아쩍게 쳐다보는것을 영애는 모르는척 했다. 잘라버리기로 한 손을 시험삼아 수술하는데 책임이란 또 뭐가 하는 표정들이였다. 그러나 영애는 책임이란 말을 전혀 달리 뇌였었다. 그것은 자기의 손을 이어붙여서라도 청년을 무조건 초소에 세우리라는 무서운 결심, 무서운 목표를 굳힌것이였다...

끝내 이번에도 영애는 수술을 성공시켰다. 금시 쓰러질듯 비틀거리며 수술실을 나설 때 그의 머리속에서는 (아마 난 운이 무척 좋은가봐!) 하는 왕청같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토록 어려운 수술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지어 자신만만하게 척척 해낸 자신이 저으기 신기해서였다.

그러나 영애를 부축하여 휴게실까지 따라나온 혜산병원 외과과장의 입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정중한 말마디가 흘러나왔다.

《동문 오늘 우리를 보기 좋게 후려갈겼소. 지금껏 의사의 진단은 엄밀한 립상학적검지에서 내려지는것 하나밖에 있을수 없다고 여겨온 우릴 말이요. 동문... 의사들에게 먼저 보진일군다운 자격을 갖추었다는 량심의 진단이 스스로 내려진 다음에야 환자를 진단할수 있다는걸 보여주었소. 그 자격이 뭐겠소. 책임지는거지. 생명을... 생명의 모든 요소를 다!》

기진한 속에서도 영애는 부끄러웠다. 칭찬때문만은 아니였다. 이처럼 허심한 의료진을 자기는 오해한것이였다. 무시당한 자존심의 뿔을 세우지 않을가 하고... 그러니 인간의 자기완성이란 얼마나 많고 깊은 폭과 너비의 체험분야를 포괄하는것인가!

풍토순화

또다시 겨울이 왔다. 엄혹한 북방의 추위는 허벅다리까지 잠기는 첫눈을 앞세우고 공사장에 들이닥쳤다. 그사이 허천강을 가로질러 아찔한 절벽처럼 치솟던 언제체쌍기가 일시 중지되였다. 언흙을 다지면 해도무렵에 무수한 공극이 생길수 있기때문이였다. 대신 중심강토장에서는 수백여메터에 달하는 특대형천막을 쳐놓고 진흙다짐이 더욱 맹렬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천막안에는 백여개의 난로가 이끌거리며 언 진흙덩이들을 녹여 말리웠다.

그 난로에 화목을 댈 명령이 려단의 두개 대대

에 떨어졌다. 영애도 그들과 함께 화목장으로 갈 준비를 서둘렀다. 자진하여 현장치료대를 책임진 것이었다.

그때 향금이 군의소에 뛰어들었다. 어찌서인지 늘 그윽한 미소가 떠돌던 처녀의 아름다운 눈매는 성이 나서 꼬리가 신경질적으로 쳐들려있었다.

《군의장언니, 어쩔 좋아요? 난 정말... 우리 대대장동지 미워죽겠어요!》

《?!...》

밀도끝도없이 내쫓는 그의 말에 영애는 속눈썹을 한껏 치켜올렸다. 무엇보다 《미워죽겠다》는 표현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분》이라며 갖은 존경어를 다 붙이곤 하던 향금이 마치 동격의 돌격대원처럼 한길수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은참,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하렴.》

《언니!》 향금은 갑자기 정색하고 영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군의장언니 자기가 한 수술을 믿어요? 책임질 수 있나 말예요?》

얼핏 들으면 모욕적인 질문 같았으나 영애는 곧 향금이 자기의 발목을 들고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아뉘. 확신이 없으면 의사 수술칼을 들지 않는 법이야!》

《아이, 그럼 됐어요!》

향금은 제갑담 달려들어 영애의 팔을 틀어잡았다. 그리고는 문밖으로 잡아끌며 흥분하여 웅얼거렸다.

《이제 당장 우리 대대장동지한테 가자요. 가서 제발은 눈길 천리를 내달려도 끄떡없다고 증명해 줘요. 글썽 날더러 대대와 떨어져 혼자 난로불이나 때라지 않아요. 난 혼자 있기 싫어요. 싫어요!》

영애는 비로소 모든 것이 리해되었다. 한길수가 향금의 발목을 녀려하여 깊은 수림속에서의 화목작업에서 그를 빼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향금은 대대, 구체적으로는 한길수대대장과 떨어져있기 싫어하고있는 것이었다.

《《미워죽겠다》고 했지! 몇달전 같으면 그런 허물없는 소리를 감히 내뱉지도 못했을 향금이, 그러니까 한길수동무가 이제 총각으로 향금의 눈에 비쳐들기 시작한게야!...》

까닭없이 즐거워난 영애는 땀속 향금의 어깨를 그러안으며 호호 웃었다.

《애, 난 싫다. 알겠니? 그런 문제라면야 너희들이 자체로 해결해야지. 다 큰 처녀가 아직도 보호자를 찾다니 온...》

그의 마감말은 요란한 전화종소리가 동강났다. 수화기를 드니 삼지연의 남편한테서 걸려온 전화였다. 《화목장으로 간다지?!》

《아이, 소식도 빠르네. 그건 언제...》

《당신네 리더정치부장이 대주더구만. 당신 고집을 꺾을 수 없더라고 말어요. 하기가 전기 한가 지인 당신을 누가 이길라구.》

전기기술자의 눈으로 안해를 보아서인지 김정수는 영애를 늘 《전기》라는 용어로 비유하곤 했다. 하지만 남편의 숨결을 가까이 호흡해버린 한

안해의 직감으로 영애는 김정수가 괜히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언가 바재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 말씀을 끊어요?》 저으기 긴장하여 영애는 송수화기를 귀에 꼭 눌러댔다. 《정치부장동지가 수영이 아버지에게 뭔가 말했지요? 저에 대한 무슨... 그렇지요?!》

예측대로였다. 수화구에서는 거북한 군기침끝에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당신이 언제부터 앓기 시작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자꾸 캐묻더군. 그러면서 아이들도 만나볼겸 몸조리를 위해 휴가를 떠나게 설복하라고 당부했소. 혹시 당신 병이 몹시 심해진게 아니요?》

영애는 느닷없이 눈앞이 탁 흐려졌다. 누구에게도 내색치 않은 자기의 병을 정치부장은 다 꿰뚫어 살펴온 것이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성미를 고려하여 남편과의 《협공》을 조직한 것이었다.

《수영이 아버지.》 목이 메어 영애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저야 의사인데 제 몸상태를 모르겠어요? 걱정마세요. 언젠가 제 말했지요. 꼭 백살까진 살 욕심으로 의사가 되었다고요!》

그것은 그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의사가 되었느냐는 김정수의 물음에 영애가 통조로 한 말이 었었다. 기실 진심이기도 했었다. 이 홀룡해보이는 남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백년쯤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심정이 북받쳤던 것이다.

그것을 상기했는지 남편의 목소리도 저으기 밝아졌다.

《그래그래. 내 다 아오. 당신이야 이젠 이 백두산땅에 깊이 뿌리내린셈인데 쓰러질리 없지. 쓰러져서도 안되구. 그렇지?!》

《그럼요! ... 그럼요!》

열렬히 호응하였으나 영애는 자연히 생각이 깊어졌다. 《백두산땅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 과연 그럴까?

불쑥 지난 여름 군의장강습차로 삼지연에 갔다가 우정 찾아가보았던, 푸른 잎새를 한껏 떨치고 가볍게 살랑거리던 《자기의》 봇나무가 떠올랐다. 3년 이상을 견디기가 힘들다던 봇나무, 그러니 아직도 한해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확실히 풍토순화되어 더이상 쓰러질 녀려가 없겠는가는!

영애는 그때까지 지켜서 애원하듯 쳐다보는 향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가자. 우리 같이 가서 눈보라에 쓰러지지 않고 꺾꽂이 건디는 모습을 보여주자!》...

화목장의 조건은 몹시 어려웠다. 노상 기온이 령하 30℃아래로 떨어지는데다가 숲속에 드문드문 있는 강대나 진대만을 골라 찍자니 눈속에서 종일 헤매여야 했다. 거기에 연유사정으로 찍어낸 나무들은 70리나 되는 토장까지 발구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영애가 아무리 뛰어다니며 주의를 주고 치료대책을 세워도 귀와 손

발을 걸구는 대원들은 없어지지 않았고 먼길을 하루 두번씩 왕복하느라 지칠대로 지쳐 바줄을 몸에 휘감은채 쓰러지는 대원들도 생겼다. 그런 대원들의 어깨에는 레외없이 바줄이 파고들어간 협상스러운 상처가 뱀처럼 짙혀있곤 했다.

그속에서도 돌격대원들은 서로 부족하고 떠밀며 씩씩하게 노래를 불렀다.

...

묻지 말아 우리 심장 왜서 불타는지
말해줄거야 우리 래일이 말해줄거야

신통히 영애가 사랑하는 노래중의 하나였다. 영애는 눈물이 나왔다. 우리의 래일,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쉬임없는 선군장정길을 따라 펼쳐지고있는 강성대국에서의 존엄높고 복된 삶일것이다. 장군님의 그 걸음을 따라 우리 돌격대원들이 피와 땀으로 열여가는, 안아오는!

영애는 발구행렬속에서 특별히 웅근 목소리로 노래를 뽑으며 내달리는 정치부장을 띄여보자 한 달음에 달려가 그의 바줄을 나누켰다.

《정치부장동지!》

《이걸 놓소!》 정치부장은 눈을 부라리며 버럭성을 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강제휴가를 주고말테요. 내 모르는줄 아는가. 체 병을 숨기다못해 어제 밥한끼도 못먹었다면서? 무슨 녀자가 그리 모진가, 영?!》

영애는 기가 막혀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간밤 허리병을 치료받으면서 무거운 짐은 끌지 않겠노라고 루루이 맹세한 정치부장이 오히려 제편에서 호통치고있지 않는가.

《그럼 정치부장동진 뭘니까? 어린애처럼 말도 잘 안듣고... 정 그러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말겠어요!》

《여보 군의장!》

바빠맞은 정치부장은 열결에 사위를 휘둘러보며 손을 내저었다. 그 동작이 신통히 어린애같이 천진해보여 영애는 입을 싸쥐지 않을수 없었다. 정치부장도 허허하고 웃었다.

《에-참, 어쩔수 없거든. 어찌겠나, 군의장. 대원들이 힘겨워하는데... 이겨내야지!》

영애가 말없이 바줄에 어깨를 들이밀자 정치부장은 미심쩍게 결눈질하더니 불시에 활기를 띠며 그에게 닦추 허리를 굽혔다.

《그러니까... 항일유격대원이 된 심정으로 이 길을 한번 헤쳐보고싶다, 이거지?!》

《아이!...》

《그럼 좋아, 딱 한번만이야!》

어떤 승업하고 경건하기까지 한 감정이 영애의 가슴을 그들먹 채웠다. 항일유격대원!... 자기와 동등한 의미로는 전혀 비교해보지 못한 부름이었다. 그러면서도 내내 그런 지향속에 심신을 불태워온듯이 자연스럽게, 후덥게 받아들여지는 부름이기도 했다. 그렇게 항일유격대원들은 이 길을 앞서 헤쳐오리라. 그것도 단 하루나 열흘, 한달이 아니라 15성상 긴긴 세월 눈보라, 불보라를 뚫고

억척같이 걸었으리라. 하다면 그분들이 앞서간 이 길을 우리는 어찌하여 꼭같이 걷지 않으면 안되는것인가. 또 기겁게 걷게 되는것인가?

어깨를 파고드는 바줄에 몸을 휘청거리면서도 영애는 갑자기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구인가 자기를 주의깊이, 엄하게 지켜보는듯 한 감촉을 받은것이었다.그러나 사위는 뻔뻔이 들어선 원시림의 장벽뿐이었다. 눈보라가 일기 시작하여 앞뒤에서 발구를 끌고 내달리는 돌격대원들의 모습도 희미했다.

영애는 불안간 숨을 딱 죽였다....

《...백두산! 그렇다, 항금이가 앞서 느꼈듯이 그것은 마음속에 늘 자리잡고있는 백두산에 대한 신성한 의식이었다!

이제야 모든것이 석연해지는것 같다. 우리 백두산돌격대가 왜 무어졌겠는가. 두말할것없이 혁명의 성지 백두산지구를 강성대국의 모습, 그 표본으로 훌륭히 꾸리자는데 있다. 그러나 보다는 우리 세대가 투사들의 그 정신, 그 결연세를 몸과 마음에 꼭 배이도록 익히지 않고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앞장서 헤쳐가시는 멀고도 준엄한 선군혁명의 길을 탈선없이 끝까지 따라갈수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나역시 여기 백두산에 올라 선군시대의 아름답고 억센 한송이 꽃으로 새로 피자고, 길이 지지 말자고 이 길을 걷고있는게 아닐가!》

돌격대원들의 건인불발의 투쟁으로 화목전투는 짧은 기간에 결속되고 그들은 기세충천하게려단으로 돌아와 설명절을 쇠었다.

한생 잊지 못할 설명절이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6.18건설돌격대가 정말 큰일을 한다시며 특별비행기편에 갖가지 선물식료품을 보내주신것이였다.

모두가 감격에 넘쳐 풍성한 음식상을 앞에 놓고 서로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영애는 혼자 발전소언제우에 뛰어올라갔다. 새해의 첫 태양이 벌써 반나마 물이 차기 시작한 대인공호수의 얼음판우에 붉은 반사광을 아낌없이 쏟고 있었다.

영애는 저도 모르게 두팔을 하늘높이 뻗었다.

(아야 얼마나 복받은 삶인가. 백두에 뿌리박은 우리의 삶은! ... 난 길이 살테야. 이 삶을! 이 삶만을!...)

그로부터 보름만에 북막염으로 변진 급성중수염환자를 해산으로 후송하려고 길떠날 차비를 하던 영애는 갑자기 무섭게 엄습하는 동통에 허리를 꼬며 주저앉았다. 눈앞이 새까맣졌다. 손발도 마비가 온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내부로부터 끓임없이 번져나오는 날카로운 아픔이 이발만 딱딱맞쫓게 했을뿐이었다.

간호원이 질겁하여 주사기통을 들고 달려왔다. 피독 주사약의 약명을 스쳐본 영애는 가까스로 한손을 쳐들었다.

《정신나갔니? 그 주사약은... 저 환자에게 필요한거야!》

《안돼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괜한 소리!... 그래 의사인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모험하겠니?》

지독한 아픔이 새롭게 밀려들었다. 이를 앓다 문 영애의 머리속으로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적인 생각이 스쳤다.

(이건 병의 4기발작중세지. 내가 치료해온 환자들의 통증과 좀 다른 이 과정을 기록해둬야겠어. 그러면 훌륭히 써먹을 때가 있을걸!...)

《빨리 혜산으로!... 환자의 수술을... 더 끝면 위험해!》

저도 모르게 손목시계에 눈길이 갔다. 지난봄 한길수대대의 한증탕에 불을 지피던 날 그 젊은 대대장이 별스레 성난 사나운 얼굴을 해가지고 쑥 쥐어준 사치한 너자용고급손목시계였다. 그때 한길수는 이렇게 말했었다.

《우릴 두번 다시 욕되게 하지 않으려거든 받으십시오. 시간을 따져가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맥박도 정확히 재십시오. 알겠습니까?》

대대전투원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모아 샀다는 영애의 헌신에 대한 소박한 감사의 기념품이었다. 한길수는 영애가 거절할가봐 짐짓 무섭게 굴었었고!... 바로 그 시계가 지금 새벽 두시를 가리키고있었다. 그러니 이제라도 최대속도로 달리면 충수염환자는 살려낼수 있을것이니 자기는 한길수의 부탁대로 시간을 따져가며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시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셈이었다.

구급차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마산령을 뚫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영애는 자기가 꿈속같은 혼몽한 상태에 빠져드느것을 깨닫고 당황해졌다.

(야단났어. 한잠 푹 자고나면 내 병의 발작순서나 통증의 규칙성같은걸 싹 잊어버릴수도 있는데... 현대 손이 말을 안들으니 어쩔담?...)

《순옥이!》영애는 간호원이 자기의 말을 잠꼬대로 착각할가봐 겁을 내며 초조히 불렀다. 《내 가 방에... 립상경험기록장이 있어. 그걸... 빨리 꺼내서 적어줘. 내가 부르는걸!》

《군의장동지!》

어째서인지 간호원의 목소리는 흐느낌처럼 들렸다. 왜 이리 방정맞게 구는가. 좀 편히 쉬지도 못하게 원기를 돋구어야 수술집도도 멋지게 해낼게 아닌가!

《너... 저 환자때문에... 겁내는게 안야? 걱정마. 아까 놓은 주사약효가 이제... 한시간은 더 갈테니까. 그러니... 눈물은 그만 짜고... 내 부르는걸 적거나 해!》

그러나 지긋은 잠은 영애의 생각을 갈래없이 흐트러놓았다. 그는 자기가 의식을 잃었다는것을 몰랐다. 대신 꿈이 그를 사로잡았다. 남편 김정수의 땀손을 꼭잡고 딸 수영이와 아들 영재가 자기앞으로 달려오는 꿈이었다. 영재와 수영은 무엇이 그리도 신나는지 경충경충 모두발뺨을 하며 입모아 소리치른다.

《엄마! - 엄마가 심은 봇나무에- 세번째 새순이- 돋-았-어-요!-》

아닐세라 하얀 분을 들쭉듯 한 날씬한 봇나무

의 아지들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방긋거리며 고개를 내밀고있었다. 옮겨심을 때보다 거의 배는 키가 자란것 같은 싱싱하고 아름다운 자태였다. 어쩌면 저리도 하얗가. 꼭 백두산의 흰눈이 고스란히 물들여진것 같애. 난 끝내 풍토순화시켜낸거야!

영애는 방긋 웃었다. 그러면서 저으기 흥분해서 속삭였다.

《순옥이, 계속 써. <백두에 풍토순화된 인간들만이 선군의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 자격과 가치를 가질수 있다!>...》

×

영애의 꿈은 두달후의 현실이 앞당겨져 의식에 투영된것인듯... 아직도 눈이 무릎을 치게 쌓여있지만 어디서나 봄빛이 막을수 없이 흘러넘치는 3월 어느날 김정수가 수영이와 영재 두 자식의 손을 잡고 옛 강원도려관군의소자리에 뿌리박고 서있는 한그루 봇나무앞에 서있었다.

김정수는 싹을 틔우려고 봉긋하게 부풀어오른 나무가지들을 살피보면서 안해가 남겨놓은 일기장의 한구절을 상기해보았다.

《...어느 책에선가 나는 죽음이란 가장 힘든 인간의 마지막과업이라는 문구를 뇌리에 깊이 새겼었다. 뭇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아마 내게도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자기 할바를 깨끗이 해야겠다는 자각이 은연중 떠오른것인 모양이었다...》

안해는 결국 그 《마지막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영애의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정당원으로 받아들일데 대해서와 신문방송을 통하여 널리 소개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삼수발전소건설장에서는 리영애에게 조선로동당 당원증과 사회주의 애국희생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크게 진행되였다. 그 모임에서 영애의 아들 영재는 자작시를 읊었다.

...어머니, 전 울지 않아요
백두의 아름다운 꽃으로
선군시대의 《안영애》로
어머니는 오늘도 웃고계시거니
이 아들의 가슴은
자랑과 행복으로만 높뛰여요
어머니를 그대로 닮을
맹세로만 불타요...

제일 먼저 연단으로 뛰어올라 영재를 꼭 붙안은것은 한길수대대장과 향금이였다. 한길수는 눈물이 글썽해서 속삭였다.

《그래, 네 어머니는 우리의 군의장이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재의 눈길은 하얀 봇나무의 가지마다에서 움터나기 시작하는 아직 발갛한 싹들들에 못박혀있었다. 봇나무는 백두에 길이 뿌리내린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누런 이삭 물결치는 들

박정애

멋이로구나
마을 지붕마다 빨갛고 누런
고추며 강냉이도 불만 한데
흰구름꽃 송이송이 흰 파아란 가을하늘아래
끝없이 물결쳐 설레이는 누런 벼바다

설레이는 그 소리
귀기울여 들어보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소곤소곤 무거이 고개숙이고 인사하는듯
기쁨으로 가슴 들먹이게 하는 풍요한 들

공민이라면 누구나
너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있더냐
너와 떨어져 산 사람들이 있더냐
바람결에 설레며 감격드는
토실토실 잘도 익은 벼이삭들아

탐스럽기도 하구나
봄내 여름내 땀흘려 살피준
류다르게 바쳐진 우리들 사랑 모르지 않았구나
포기포기 애정을 따듯이 부었지
포기포기 살뜰히도 안아키웠지

너는 흙속에 뿌리내려 자랐더냐
씨를 뿌리며 어린 모를 옮겨심으며
가을을 그려 보는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렸지
우리 흘린 땀을 감땀며 자랐지

온 한해
너의 구수한 들향기
우리 체취처럼 옷섶에 폭 배어있었고

너와 함께 비에도 젖고
너와 함께 노래도 불렀지

흘린 땀 없이 기울인 정이 없이
그 어이 살붙이처럼 안아볼수 있으랴
정을 준 그만큼 너도 느끼는것 아니라
들이 넘치게 알찬 열매로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있으니

네가 설레여 내 마음도 설레이는
들아 내 사랑아
고난의 날 눈물겹도록 뼈저리도록
땅이 목숨같이 귀함을 깨달은 우리
그래서 너에게 바치는것은
곧 나에게 오는 행복의 무게라는것을

마음껏 안아보자 이삭들아
어서 이 가슴에 안겨들라
너희들은 내 기쁨
얼마나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던가
말없이 재여보게 하는 량심의 열매

인사를 드리자 큰절을 드리자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되고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되어 물결치는 들
아름다운 가을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멋이로구나
들 한끝 마을 지붕에는 가을을 채색하는
빨간 고추 노란 강냉이
어울려 어울려 물결치는 벼바다
풍성한 조국의 부강을 받드는 나의 벌이여
긴긴 해를 지우며 들에 취해 서있고싶은 벌이여

농민의 가을

한승길

손톱박을 째도 없이
땅땅 여문 강냉이이삭이며
무겁게 고개숙이고
논두렁에 몸을 기댄 저 벼포기들은
가을이 절로 가져온게 아니여라

저 설레는 벼이삭들은

눈발이 날리는 매운 날에도
땀흘려 쌓아놓은
거름더미에서 영근것이 아니었던 말이나

등판의 강냉이발
그루마다 엮결린 이삭들은
우리 땀을 단젓인양 모금모금 빨고 자라

한어머니 등에 업힌 쌍둥이마냥
크고작음이 따로 없어라

비오나 눈이 오나
들에서 산 날들이 있었기에
빈틈없이 알이 박힌 강냉이이삭에도
빈자리를 남기지 않은
농장원의 출근부가 있는것이니

농민은 가을과
새롭게 상봉을 하지 않았다

가을은 농민이 안고산 모든것이기에
사시절 몸에서 떼여놓지 못하고
품을 들어 키웠노라

아, 온 한해 가을에 살며
성실하게 자래운 풍요한 그 가을을
조국에 삼가 드릴 때
가을은 농민의 한해자서전!
가을은 농민의
삶과 같은 부름이여라

가을 (외 1 편)

리근지

하늘땅 그 어디에 서야 다 보라
끝없이 굴실대는 이삭의 바다

봄내 여름내 벌에서 살며
낱알을 익혀온 우리의 땀이 숨배인 이삭

설레이는 바람아 조심해다오
벼알 떨어지면 농장처녀들 울음 터칠라

벼단안고 웃음짓는이 어찌 농민뿐이라
온 한해 벌 안고산 이 땅의 사람들 함께
웃는 가을

아 해저물도록 넓어진 벌 걷고걸으시며
장군님 솟눈우에 찍어가신 자옥자옥

그 사랑의 자옥자옥이 영글인 알알이여서
벼 한이삭조차 두손에 받들기 무거운 가을이여!

상쾌한 아침

이슬젖은 쌀냄새 가득 안고
퍼지는 해살에 몸을 씻으며
호함진 벼포기 끌어안은 가슴
절로 기쁨 터치는 상쾌한 아침

저봐라 한논배미 또 넘으며
땀속에 환히 웃는 젊은이들
밀려오고 달려오는 벼포기포기
낱알에 감는 일손 흥이 났는데

뒤따라 허리쉽도 잊은 너인들
흐르는 소매자락 썩 걸으며

벼포기속에 낱알을 번쩍이는
젠 일숨씨 또한 멋이로구나

일년내 논물을 보아온 아바이
벌좁게 동가리 쌓으며 신났는데
따라온 복슬강아지 설레는 나락에
저도 흥이 나서 펜스레 짚어대네

아, 은혜로운 사랑 이 넓은 벌에 넘쳐서
받아안은 은덕 가슴에 넘쳐서
뜨거운 마음들 새벽을 열고
벌에서 사는 상쾌한 아침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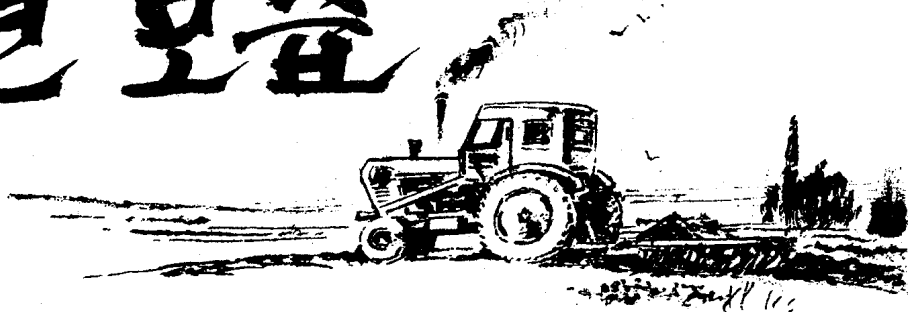
유모아

《오늘 뺨스에서 두 로인이 빈자리를 하나 놓고 서로 앉으라고 양보하는것을 보니 정말 감동되더군.

한참 서로 양보하더니 결국 나이가 좀 더 많아보이는 로인이 앉더군!》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보았지!》

7련보습



김능균

흐린 하늘을 희무레하게 밝혀주던 해가 고비산 너머로 사라졌다. 숨막힐듯 한 어둠이 서서히 압박해왔다.

《제길, 바람이라도 콧 불게지.》

말뚝처럼 서있던 영관은 가슴이 답답한 모양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고나서 한숨을 내쉬었다.

실패! 그렇다, 그들은 오늘 또다시 실패했다.

실패에는 이미 면적이 생긴 영관이다.

오늘 여기 1반에서 영관이네 기계화반이 스물 한번째로 만든 6련보습시험이 있었다.

전번 스무번째 실패를 고려하여 지지바퀴위치를 3번으로 옮기고 벧각도 2도씩 낮추었다.

그런데 반전(흙밥뒤집기)은 커녕 날은 그냥 땅에 들어박히기만 하였다. 꼬리매인 황소처럼 요동치던 트랙터가 발동을 걸기 바쁘게 주저앉아버리곤 하였다. 벌써 여섯번째였다.

《에익!》

운전수 광수는 시동돌리개를 꽂아넣은채 가버렸다. 연유가 떨어졌다는것이다.

멀어져가는 광수의 뒤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던 영관은 (이쯤 실패에 주저앉아서야 안되지. 자, 똥보동무! 또 시작을 해봐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자기자신을 다잡았다.

똥보란 영관이 자기 스스로 부르는 별명이었다.

1970년대 중반기의 어느해 봄에 《상송리똥보》는 련결차를 달고 읍까지의 수십리 비료수송에서 하루 4량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군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무슨 일이나 큰 몸집을 내대고 완강하게 내밀곤 하여온 영관의 성격에 잘맞는 별명 《똥보》, 그래 똥보 영관이는 또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부터?...

그제야 영관은 후련한 작업복을 걸친 자기 몸을 지금 결코 《똥보》라고 부를수 없다는것을 새

삼스럽게 느꼈다.

×

상송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보습창안을 하기 시작한것은 1991년 정영관이 반장사업을 시작한 그 다음해부터였다.

어느날 그는 어느 기술잡지에서 소 한마리의 일능률이 0.7마력정도라는 자료를 보게 되었다.

0.7마력짜리 소 두마리가 연장 하나를 끄는데 왜 28마력짜리 《천리마》호 트랙터르는 3련보습 밖에 못끌겠는가.

더구나 우리 상송리 땅은 모래매흙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에서 시작한 그들의 창안은 3년만에 5련보습을 성공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5련보습도 《변대뒤틀》로 불리우는 1작업반 노랑찰흙발만은 갈아엎지 못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논밭같이 용 연유공급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비부속품들도 떨어져갔고 다이야가 없어 서는 트랙터들이 늘어났다.

그러면 같이를 하지 못한 논들에 꼬장모를 내야 하는가.

종전의 1.5배의 능률을 내는 5련보습을 시험도 입한 결과 다행히 급한 고비를 넘겼다...

영관은 반원들앞에 나섰다.

《동무들, 이제부터 나는 우리의 보습창안에 대하여 보습창안전투라고 부르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아버이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피눈물의 맹세를 지키느냐 마느냐, 우리 장군님을 실천으로 받드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이 전투에 달려있소.》

사람들이 흥분했다.

호소성이 강한 영관의 말마디들이 우뢰처럼 그들의 고막을 때렸고 심장들을 높뛰게 했다.

보습창안전투에서 제일 걸린 문제는 철이었다.

영관은 각 작업반들과 집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철물만 보이면 구슬리든 대용품을 만들어주는 어쩔든 《뺏어》오곤 하였다.

보습창안에서 다음으로 걸린 문제는 전기였다. 전기절단기는 침묵을 지키고있는지 오랬다. 그러면?...

모두가 메를 잡았다.

중전에는 절단기로 단숨에 자르던 두꺼운 철판을 절단도끼를 대고 한치한치 먹어 나갔다.

밤에는 현장에 화불이 타올랐다.

《땅, 땅, 따당, 땅!》

맞잡아때리는 메질소리가 마치 백열전을 이룬 전투장의 총소리처럼 야무졌다.

철판에서 불찌와 함께 날카로운 쇠조각들이 튀어나 메잡은 손들에 팍팍 박힐 때도 있다. 더구나 절단도끼손잡이를 잡은 사람의 손들에는 장갑을 파고드는 쇠조각들이 때없이 박히곤 하였다.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얼굴에서는 땀이 흘렀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 작업복에 소금버캐가 허영게 돋았다. 그리고 실참에는 실참대로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

메자루를 잡았던 손들이 곱아서 퍼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어느날 영관의 안해 위순숙이 《병기창》(종길이 작업장에 붙인 새 명칭)에 《후방사업》을 하려고 나왔다.

후방사업이라야 쑥과 강냉이가루를 절반씩 섞은 떡이다.

그러나 허기진 병기창주인들은 그 쑥떡에 저가 락들을 대지 못하였다. 뭐 사양들 해서가 아니라 손이 곱아서였다.

위순숙이 돌아가며 입들에 물려주니 전투원들은 그것을 주먹으로 밀어넣으며 씹었다.

이렇게 그들은 한해를 보냈다.

그사이 작업반원들의 파절수집반경은 이웃작업반, 이웃리, 이웃군으로 넓어졌다.

×

요즘 영관이의 두툼한 입술은 더 무거워졌다.

때때로 반원들을 통쾌하게 웃기던 결죽한 룡담이 없어지고 필요한 작업지시외에는 항상 무슨 생각인가 움해있곤 하였다.

집에 들어와서도 밤새워 책을 보았다.

책을 보다가는 학습장에 무엇인가 그려놓고 그 다음엔 한참동안 골똘히 들여다보고 그러다간 《제길!》하고 돌아누워 큰대자로 코를 골았다.

어느날 아침에 막 출근을 하려는데 새로 부반장사업을 하는 라창호가 찾아왔다.

《관리위원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반장동무는 읍에 가지 말고 관리위원회에 오랍니다.》

《허, 그렁소?...》

고금속사업소 지배인에게 오늘 오전중으로 가겠다고 연락했는데 어쩐다... 부반장동무가 좀 가주오. 거기 지배인이 련결대로 쓸만 한 환강자투리며 뭐 쓸만한것들을 좀 모아놓았다오. 갈 때 대품을 가져가오. 미안하오. 내가 가야겠는데... 몸도 불편한 부반장동무 40리나 걷게 하누만. 그리고 이 콩은 거기 선별공들에게 전해주오. 거기 지배인이 상송리 <불가사리>들을 도와주자고 호소하니 선별공들이 꼬박꼬박 철토막들을 모아놓는다고.》

영관은 콩자루를 밀어놓은 다음 펼쳐놓았던 두툼한 책을 집어 들고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농기계편람》이었다.

《후-》 그는 한숨과 함께 책을 라창호에게 내밀었다.

《군도서관에 돌려주오. 이젠 머리가 굳었는지 잘 안들어오누만. 난 요즘처럼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것을 후회해본적이 없소.》

그때 내 어제 밤엔 군대에 간 우리 수광이한테 편지를 썼소. 너는 꼭 대학공부를 해야 한다고, 지금부터 짬짬이 대수공식이랑 외국어단어를 외워두라고... 아마 그 애들이 제대되어 올 때쯤이면 우리 <병기창>에 콤퓨터가 놓이게 될게요. 허허.》

라창호는 머리맡에 놓인 학습장에 눈길을 돌렸다.

7련보습그림과 몇각, 코날각들을 구하는 공식에 여러번 덧동그라미가 그려져있었다.

담배불찌가 떨어졌는지 각을 표시한 곳에 콩알만한 구멍이 뚫어져있었다.

...강옥수관리위원장은 초조히 기다리고있은듯 영관을 보는 인상이 밝지 않았다.

《비료실러 차 5대를 보내야겠어요.》

《당장은 3대밖에 없습시다.》

영관은 짝어서 천천히 대답했다.

《왜? 21호와 27호는 아직 못살렸나요?》

50살을 바라보는 암팡진 녀인 강옥수는 영관의 철색얼굴에 눈그루를 박았다.

《다른 부속들은 그러저럭 맞추었는데 다이야만은 어쩔 방법이 없습시다. 원천이 전혀...》

《어떻게 해결받은 비료인지 알기나 해요? 동무에겐 등짐으로라도 비료수송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책임적인 의무가!》

관리위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열두삼천리벌의 한끝에 자리잡은 상송협동농장, 군적으로 무슨 일이 제기되어도 제일 마지막으로 부르고 경영위원회 비료공급명단에도 맨 뒤자리이다. 상송리농사가 군 전체 수확고에 주는 영향이 적다나니 군일군들의 머리속에서 상송협동농장은 늘 뒤전에 밀려나있었다.

이번에 받게 된 비료도 알곡수확을 많이 낸 농장순서로 배당되었던것을 관리위원장이 일군들을 팔이 닳도록 찾아다니 해결받은것이다.

《그럼 5련보습은 몇개나 만들었나요?》

래년부터 다른 작업반들에 나누어줄 보습을 몇 개나 만들었나 말이에요?)》

영관은 한동안 어금이를 깨물었다.

《5련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적어도 7련은 왜야 <천리마>호프락포르 마력수에 어울리는 보습입니다. 저는 보습을 연구하는 과정에 이미 쓰고있던 3련보습의 약점을 적지 않게 알아냈습니다.

우선 우리가 만든 5련보습과 종전에 쓰던 3련보습이 무게가 같다는데 있습니다. 언제 설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강철이 그리 부족하지 않을 때 만든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강제 한그람이 귀중한 오늘날에 너무도 생각되는것이 많지 않습니까? 보습 5개를 만들 철로 3개를 만들다니 전국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강철을 낭비했겠는가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거운 보습을 차고 다닌 프락포르들은 또 얼마나 많은 연유를 하늘로 날려보냈겠습니까.》

영관의 말은 여기서 툭 끊어졌다.

자기 눈을 빨아들일듯이 마주보는 강옥수의 눈길은 붉게 상기돼있었다.

원 이런... 그래 관리위원장은 비료때문에 며칠째 군으로, 비료공장으로 나가 살지 않았는가. 자기 임무를 수행 못한 기계화작업반장이, 농사가 잘 안돼서 안타깝게 돌아가는 너인에게 무슨 군소리를...

영관은 한동안 제풀에 씨근거렸다.

아무튼 요즘의 모든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아서 어쨌든 끄고 봐야 하는것이다.

《미안합니다. 제 말이 길어와서...

저도 지금 여기서 말다툼이나 하고있을 사이가 없다는것을 압니다.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고 오늘 밤, 아니 래일 새벽까지 세탕을 하겠습니다. 다이야가 터지면 등짐을 저서라도 수송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마주앉읍시다.》

강옥수는 영관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썩 부드러워졌다.

《그래... 동무네 보습일도 잘되지 않아 반장동무가 고충이 많겠는데... 새벽까지 자신있어요?》

《해내야지요. 믿으십시오.》

영관은 의자를 소리나게 제쳐놓고 문쪽으로 걸어들었다.

강옥수관리위원장은 그의 듬직한 잔등을 미덥게 바라보며 자기가 그들의 보습창안에 관심이 적었으며 아무리 바빠도 그들에게 실속있는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1996년의 봄이 왔다.

어디선가 종다리 울음소리가 아지랑이 피여오르는 대기를 간간히 흔들고있다.

영관은 지금 1반 변대뒤를 논두렁에 곱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다.

무릎을 세우고 잔뜩 웅크려뜨린 그의 모습은 정말 겨울난 꿈이 내가에서 물고기를 덮치려는 그 모양과 신통히도 비슷했다.

《여기 있는걸 온데 찾아다녔군요.》

라창호가 그의 곁에 와 털썩 앉았다.

창호의 말을 못들었는지 영관은 진짜 큼직한 산천어를 노리는 곱처럼 곱짝 앉고있었다.

《아, 돌부처가 됐소?》

라창호가 어깨를 쳐서야 영관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가관이였다.

입술을 잔뜩 찡그러 두툽한 주름살들이 고랑졌는데 눈빛만은 정기로 번뜩이고 웃음기까지 넘실거린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제야 라창호를 알아보았는지 영관은 《오, 반장이요?》 하면서도 한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글쎄 내 금방 큰 형제를 하고 오는 길ियो.》

종전에 영관은 새굴에 갔다가 1작업반 반장 정식이네 셋째가 물이 새고있는 수로의 틈을 삼으로 손질하고있는것을 보게 되었다. 아마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물이 새는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었던 모양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보습문제로 정식사와 한번 마주 앉으려던 영관이었던지라 그 애에게 다가갔다.

그 애에게 아버지께 대해 물으려던 영관의 눈길은 문득 애가 파 뒤집는 삽날에 가 멎었다.

뒤집히는 흙의 너비가 삽날너비보다 확실히 더 넓다.

언제나 보습생각에 움해다니는 영관인지라 그의 머리속엔 번개같은 생각이 스쳤다.

(저것이다. 모든 흙은 점성이 있으니 삽날너비보다 더 넓은 흙을 안고 뒤집히는것은 자명한 리치가 아닌가.

그러니 보습날너비를 좁게 하여도 똑같은 뒤집기효과를 얻을것이며 또 좁아진만큼 흙의 갈이저항은 적어질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천리마>호가 넉근히 7날을 차고 나갈수 있다.)

생각이 예까지 미친 그는 무작정 애의 손에서 삽을 빼앗아 흙을 푹푹 파뒤집어보았다.

애는 그냥 삽질만 하는 반장아저씨를 울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됐어! 될수 있어! 성공할수 있구말구. 하하하.》

영관은 송이구름이 떠가는 하늘을 향해 한동안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였다.

그 애는 웬일인가 하여 영관을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새김질하던 누렁황소도 움쭉 일어나 《음메-》하고 통방울눈을 뜨부럭거렸다.

그러거나말거나 영관은 달리기 시작했다. 빨리 누구든지 만나 별을 따안은듯 한 이 불같은 속을 털어놓자.

발이 땅에 닿는줄 모르고 뛰어가던 영관은 그만 1반 변압기줄에 걸려 허공 나가떨어지면서 논고에 곤두박혔다.

논고에 곤두박지면서 유아등 받침판에 어찌나 무릎을 세게 짓조았는지 눈물까지 찔끔 났다.

짓조은 무릎을 감싸안고 아픔을 참느라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있다가 넘어진 곳을 둘러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다.

분명 5련보습시험때 그리도 애를 먹이던 변대뒤틀의 노랑찰흙땀기가 틀림없었다.

《이노-음!》

영관은 오랜 적수나 만난듯이 버그루터기가 털가시처럼 돌아있는 땅에 눈그루를 박았다.

(그래, 변대뒤틀! 5련땀 그렇게도 애를 먹이더니... 이제 너를 먹어버리겠다. 먹어버릴 방도를 찾았던 말이다. 어림없어.)...

《허허, 그래서 돌부처가 돼서 여기 웅크리고있었구만요.》

라창호는 그제야 알만 하다는듯 얼굴에 빙글빙글 웃음기를 띄웠다.

《그런데 부반장! 뭐니뭐니해도 철판이 또 문제구만.》

영관의 생각은 그냥 앞서나갔다.

라창호는 말없이 앉아만 있었다.

한참후에야 라창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반장이 큰것을 발견했는데 이 부반장도 뭘 좀 해야지요. 철판걱정은 말고 들어가서 오늘 발견한것을 잘 여물거보십시오.》

점심에 소달구지를 끌고 집에 들어온 라창호는 창고기와를 벗기기 시작했다.

《아니, 갑자기 기와는 왜 벗기시우?》

토끼풀을 한입 해이고 들어오던 창호의 안해 최성련이 풀바구니를 마루에 놓으며 물었다.

《산양리에 철판교섭을 가야겠소.》

《철판교섭이라니요?》

《거기 제재소지붕을 철판으로 씌웠단 말이요. 일전엔 책임자령감을 끝내 설복해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우리 보습을 위해 꼭 뺏어와야겠소.》

《그런데 당장 토끼들이 새끼를 낳게 됐는데 그걸 벗기면...》

《토끼?! ... 당장은 토끼장들에만 비닐박막을 씌워놓소. 그리고...》

최성련은 이 마음어진 남편이 언제부터 《우리보습》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지 딱히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최성련은 《당신은 우리 보습을 위해 우리 집은 아예 잊었소?》 하고 언성을 높였었다. 그러

자 라창호는 처음으로 다 큰 애들앞에서 자기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 지금이 어떤 때요? ... 난 지금이야말로 오늘도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을 마음속 가장 깨끗한 랑심과 의리로 받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오...》

최성련은 창고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쉼나무단을 안고 나왔다.

라창호는 《오늘은 어떻게든 뺏어와야겠소. 여보, 리해해주오.》하고 지붕에서 안해를 내려다보며 사정하듯 말했다.

...《병기창》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보습의 무계를 한결 줄일수 있게 한 영관의 발견은 작업반성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고 대중토의를 하는 과정에 더욱 심화완성되어갔다.

현장에는 밤새도록 총성같은 메질소리가 울렸다.

《난 반장동지가 보습을 영 잊었나 했지요? 한동안 우리 손들이 이렇게 나긋해졌으니 말입니다.》

종길이가 자기 주먹을 내흔들다가 이마의 땀을 뻘 씻었다.

《잇다니, 난 하루도 잊은적이 없어.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이때 보습창안을 잊는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의 신념에 금이 갔다는 소리나 같소.

나는 입당하는 날 당기발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소. 뼈가 부서지고 이 몸이 천백조각으로 찢겨져나간대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만을 받들어나갈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겠다고, 내 목숨바쳐 받들다가 쓰러지면 이 몸 감싸안아 줄 붉은 당기에 그 어떤 사소한 티도 끼지 않도록 살겠다고 말이요.》

영관은 지금도 그 맹세를 다시금 가다듬는듯 들직한 자기 주먹을 내흔들었다.

《올해도 녀달이나 지나갔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껏 다져온 맹세들을 지킬때가 왔소.

자, 종길이, 순혁이, 노래를 부르자구. 민중의기 붉은기는 전사의...》

영관이가 웅글게 선창을 떼자 삽시에 온 작업반의 합창으로 넘어갔다.

영관은 웃음을 벗어놓고 메를 잡았다.

《땅, 땅, 따당, 땅!》

작업장은 또다시 총성같이 야무진 메질소리로 가득 찼다.



6련보습은 성공했다.

7련은 달았다가 변대뒤틀에서 걸렸기때문에 하나를 떼냈더니 수월히 나갔다.

논밭갈이가 제일 뒤떨어졌던 3반이 6련보습덕에 수백키로그램의 디젤유를 절약하면서도 1반

다음가는 순위에 들어섰다.

영관은 지금 군병원침대에 누워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혼수상태에서도 가끔 《x각을 재야겠소.》, 《보습을 움직이지 말라.》고 헛소리를 쳤다.

오늘 아침 영관은 변대뒤통을 기어이 먹어치우겠다고 7련보습에 직접 올라타고 시험을 시작했었다.

...보습날이 땅에 박혀서 트랙포트가 요동치기 시작하자 영관은 지지바퀴 손잡이를 돌리며 깊이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보습날이 좀 띄여지자 노랑찰흙이 터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보습날이 땅에 박히는 깊이를 깊게 하자.

역시 《탕, 탕, 탕》하고 트랙포트가 숨가쁘게 들썩거렸다.

영관은 보습벗의 각도에 화살같이 눈길을 박았다.

순간 《타당!》하고 한껏 탕개가 저있던 트랙포트가 흙밥을 제끼며 움썰 앞으로 나갔다.

그찰나에 영관의 몸이 뒤쪽으로 쏠리며 허궁나가떨어졌다. 그 서슬에 보습련결대가 그의 뒤통수를 되게 쳤다. 영관은 정신을 잃으며 땅에 덩굴었다.

《정신차리오. 눈을 뜨란 말이요.》

현장에 있던 1반반장이 영관을 안아 일으켰다.

한참후 정신을 차린 영관은 《트랙포트를 움직이지 마오. 그 상태에서 각을 재야겠소.》라고 겨우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영관은 즉시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영관이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상처의 아픔을 지독스레 느끼기 시작했을 때 라창호가 관리위원장과 함께 왔다.

강옥수는 갈비뼈가 상했고 뇌진탕일수 있다는 외과과장의 말을 듣고는 영관을 잘 돌봐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수고했어요. 이 관리위원장이 동무의 일을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정말 불도젤같은 반장동무덕에 이번에 우리 농장 논밭갈이가 제일 앞서게 됐어요.》

《위원장동지가 L형강 200키로그램과 3미터철관 열평방을 천리마구역농기계작업소와 교섭해놨는데 래일 실으러 가려고 합니다.》

영관의 눈길이 번쩍했다.

《그렇단 말이요? 하,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영관은 강옥수쪽으로 손을 뻗었다.

《온 참! 이런, 진정해요.》강옥수는 영관의 큼직한 손을 감싸쥐었다.

아픔으로 이그러졌던 영관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떠올랐다.

만일 지금 강옥수관리위원장이 영관에게 부러진 갈비뼈가 당장 붓고 빠개질듯 한 머리아픔을 깨끗이 멈추어줄 그런 약을 들고 왔다고 해도 그처럼 기뻐하지 않았을것이다.

《열평방이면 7련보습을 5개 만들고도 반평방은 남을게고...》

영관의 머리속에서는 벌써 철관재단이 시작되고있었다.

강옥수와 라창호는 마주보며 웃고...

1997년 7월 12일 밤 평원지방의 하늘은 맑지 못했다.

떠가는 구름장사이로 하현달이 가끔 내려다보며 상송리소재지마을을 떠나 신정저수지쪽으로 가는 커다란 다람쥐모양의 물체를 비쳐주고있었다.

그 커다란 《다람쥐》가 바로 자기 몸집길이만 한 7련보습을 꼬리에 치켜들고 가는 1반트랙포트 28호였다. 그동안 머리에 붕대를 감고 병원에 갇힌 영관은 군도서관에서 털어낸 농기계편람, 농업기계화잡지들, 농기계자료들이 실린 학보까지 파고들었다.

퇴원후 그는 농기계연구소와 련결농기계공장들에 다니며 자기 머리가 터지면서 얻어낸 보습날의 각도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드디어 영관이네들이 새롭게 7련보습을 조립한 오늘의 저녁이 왔던것이다.

한여름의 긴긴 해가 지평선을 막 넘으려던참이였지만 누구나 보습을 시험해보기 전에는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7월이라 어느 포전에나 농작물들이 자라고있었다.

그들은 산정저수지 수역지(모내기때 물을 뽑아 쓰면 드러나는 저수지바닥)로 향했다.

《<불가사리>들! 밤중에 어델 가나?》

5반마을을 지나는데 리도석이 건너보며 하는 말이다.

올해 일흔살나는 리도석아바이는 영관이네의 호소에 의하여 집앞의 물도랑을 건너 댄 철판다리, 닭우리문짝을 비롯한 적지 않은 철물을 기계화반에 보태주었었다.

《7련보습 시험검사 갑니다.》

영관이가 보습을 가리켰다.

《허- 거 보습이 길기도 하다. 이번엔 뭇직한가?》

《예. 이젠 끝장을 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보습에 적지 않게 보탬을 한 아바이가 살아계실 때 덕을 보게 못하면 이 영관이를 사내라 하겠습니까.》

우당탕거리며 가는 큰 《다람쥐》를 처음 보는 지라 삼살개 뒤마리가 자신없이 쾅쾅거렸다.

《오늘은 별로 긴장되는데...》

운전수 광수는 수역지 떠발에 보습날을 박으며 중얼거렸다.

트랙포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긴장은 곧 쪼릿한 환희로 바뀌었다.

고르로운 발동소리...

그렇다, 지금 트랙포트는 순조롭게 정상속도로 나가고있다.

50미터, 60미터... 100미터... 다시 돌아서 120미터, 130미터...

《성공이다!》

종길이가 손에 든 화불망치를 휘둘렀다.

《그래, 성공이다. 성공!》

영관이라도 화불을 든 주먹을 내흔들었다.

여기는 변대뒤틀보다 질긴 띠뿌리가 엉킨 수역지, 지금 뒤집혀지는 검은 흙바닥에 끊기우는 띠뿌리들이 허영게 보였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던 그 모든 난관들을 갈아엎으며 7련보습이 시원하게 나가있었다.

《성공이다!》

뒤따르던 라창호는 뒤번져진 이랑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종길이는 어찌나 화불을 휘둘러대는지 불티가 꽃보라처럼 날랐다.

뜨락뜨르는 네고괘를 돌고 와 멈춰섰다.

《흐지부지없구만요. 반장동지, 이 보습을 기념으로 나에게 주십시오.》

광수가 소리쳤다.

《그래그래, 흐지부지 걸릴것도 없이 잘 나가누만. 하하.》

영관의 눈에서 불찌같은것이 번쩍었다.

《암, 흐지부지없는 성공이지요.》

라창호며 둘러섰던 사람들의 눈에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흐지부지라니?!...》

원, 우리 나라에 없던 보배같은 7련을 성공했는데 좀 고상한 말을 써야지.》

리원학이 눈굽을 찍으며 정색하여 말했다.

그렇다. 시대앞에 진실한 땀과 뉘을 바쳐온 이들, 이 소박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창조물을 찬양할 화려한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더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가슴마다 보석이 가득찬 인간들이었다.

가사

책바람 좋다

어른들도 책 아이들도 책
로동자도 책 간부들도 책
군대에서 불어온 사연깊은 책바람에
너도나도 모두다가 책 안고서 들썩이네
아 책바람 좋다

설참에도 책 길다너도 책
휴식날도 책 출장길도 책
소설책의 주인공은 생활의 길동무요

그 옥같은 마음이 지금 그들의 눈굽에 그윽히
고여오르고 반짝이며 방울져 흘러내리고있었다.



영관이네 7련보습이 1등을 했다.

전국 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의 상장과 메달, 시상품들이 정영관, 라창호, 리원학의 가슴들에 안겨졌다.

수여식이 끝난 후 그들은 인민문화궁전의 현관안을 거닐었다.

높은 천정의 은은한 불빛이 대리석벽으로 흘러내리며 전람회참가자들의 마음에 은근한 감정을 불러주었다.

《에이, 난 아까 땀이 다 났겠수다. 그 간부동지가 상장이랑 메달, 시상품을 안겨줄 때 뒤통수에 땀이 흐르더라니까.》

라창호가 자기가 입고있는, 몸에 잘 붙지 않는 제깅양복과 넥타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땀은 왜?》

《글쎄 술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으리으리한 주석단에 다가서니 어쩐지 속이 별나게...》

리원학이도 거북스러운지 자기 차림새를 내려다보았다.

《라동무야 7련보습을 위해 술한 땀을 흘렸는데 이 훌륭한 궁전에 와서까지야 허-》

땀, 영관이네들은 지금 소금버께가 허영게 돈은 자기들의 작업복을 생각했다.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그들은 소금기 뻥 작업복을 입은 어깨우에 스스로 량심의 덧집을 올려놓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을 묵묵히 따라왔다.

그들은 열두삼천리벌의 평범한 기계화작업반원들,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실천으로 받들어온 말수 적고 평범한 이 나라의 공민들이었다.

박 영

과학의 새 정보는 비약의 날개일세
아 책바람 좋다

첫돌상도 책 먼저 잡는 책
한생토록 책 놓지 않을 책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질주하는 내 조국의 열풍일세
아 책바람 좋다

10 월 달력을 펼치고

박세일

10 월-
달력을 펼치니
이 무슨 인연인가
10 월은 우리 당의 날들로 뜻깊구나

10 월 17 일은
《트.ㄷ》의 비옥한 토양우에
투쟁의 불씨되어
만복의 꽃씨되어
당의 씨앗 깊이 뿌리내린 날

10 월 10 일은
백두에서 안고오신 붉은 기폭에
우리 수령님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겨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펼 펼 나뭇겨주신 날

10 월 8 일은
광복으로 넓으신 품에
인덕으로 뜨거운 품에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안으시고
사회주의수호의 선군장검 추켜드신

일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날

신비하다
1 년 열두달중 다른 달도 아니고
뜻깊은 이 10 월에
우리 당의 명절들이
약속한듯 다 모여있나니

10 월의 이날들로 하여
태풍이 분대도
지진이 인대도
당이라는 큰 집은 끄떡없어

나에겐 생각되어라
그래서 사람마다 목메어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 부르는 당의
품에선
아이들도 어른들도
인생의 계절 따로 없이
세월의 풍파 두렵없이
누구나 창조와 행복의 열매를 수확하며
복된 삶을 가꿔가는것이라고...

림기응변의 시재

조선봉건왕조시기 학자였던 성삼문(1418-1456년)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있던 일이라고 한다.
성삼문이 시를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던 그 나라의 어느 한 선비가 찾아왔다.

《시 한수를 청하러 왔소이다.》

《어떠한 시를 바라오이까?》

《저에게 귀중한 그림 한폭이 있는데 화제가 없소이다. 그래서 조선의 명시인의 시를 기념으로 담고저 하나이다.》

《하지만 그 그림을 보아야 화제를 남길것이 아니오이까.》

《그림은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볼것도 없소이다. 그저 백조 한마리를 그린것이오이다.》

《그렇소이까?! 백조라!》

성삼문은 더 따져묻지 않고 곧 붓을 들어 대뜸 첫 두귀를 지어내려갔다.

구름으로 옷을 지었고

옥으로 신발을 만들었도다
먹이를 찾아 갈대의 물가를
얼마나 기웃거렸던고

그제서야 시를 청한 선비가 빙긋이 웃으며 성삼문앞에 그림을 꺼내여 펴보이였다. 먹으로만 그린 새까만 그림이였다.

그러니 이런 그림에다 구름으로 옷을 지었다느니, 옥으로 신발을 만들었다느니 하는것은 맞지 않는 형상으로 된것이다.

순간 성삼문은 시를 청한 선비가 자기를 떠보러 왔다는것을 직감했고 그의 빙긋이 웃는것도 꿀탕을 먹지 않았는가 하는 야유임을 알았다.

그러나 성삼문은 결눈질로 얼핏 그림을 본 뒤에 놀라거나 당황한 빛이 전혀 없이 놀리던 붓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련이어 휘둘러대였다.

우연히 산음현을

날아지나가다가
왕희지의 벼루씻은
런못에 잘못 빠졌도다

이 시를 들여다보던 선비는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서 얼굴이 굳어졌다.

산음현이라는 고장에 한 런못이 있는데 이 못
에는 옛날 글씨를 잘 썼다는 왕희지가 벼루를 씻
군 하여 검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소이다.》

성삼문이 붓을 놓고 그 시를 선비앞에 내주자
선비는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죄송하오이다, 죄송하오이다.》

《죄송이라니요?》

성삼문이 모르쇠하고 반문하였다.

《조선에서 이름난 시인이라고 하기에 서둘러 시
험해보자는 외람된 생각을 가지고 나섰소이다.》

《하하, 그렇소이까? 그럼 시험에 락방이나 되
지 않았는지?...》

《아니오이다. 세상에 이처럼 립기웅변의 시재
를 가진 사람이 더 없을가 하나이다. 참으로 당
신은 시재가 뛰어난 분이오이다.》

이리하여 성삼문은 뛰어난 시재로 널리 전해오
게 되었다고 한다.

김정설

평론

시는 시로 되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시들을 중심으로-

리동수

시가 시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시가 서정으로
충만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것이다.

참신하고 풍만한 서정이 차넘치는 시에는 사색
의 흔적과 생활철학이 강렬한 느낌과 주정을 타
고 류창하게 흐르기마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설이나 극작품에 끌리면서도 서정미가 짙은 시
를 즐겨 찾는다.

서정의 미

시의 독특한 맛은 풍부한 서정미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재미있고 실감있는 이야기로, 극작품
은 극적견인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지만 시는
풍부한 서정미로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시의 풍부한 서정미는 생활해서 환기된 정서를
형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 얻어진다. 시인은 생
활속에서 받은 정서적체험과 충격을 내적심리정
서세계에 굴절시켜 사색하는 과정에 아름답고 승
고하고 영웅적이며 비상한 미적감정에 휩싸이게
되며 거기에서 마침내 시적인것을 발견하고 정서
적으로 무르익혀나가는 과정에 서정적핵을 잡아
쥐게 된다. 서정미는 바로 이 서정적알맹이를 시
형상으로 재현해나가는 과정에 생겨나게 된다.

여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서정적알맹이이다.
시인이 발견한 서정적핵은 시를 시로 되게 하는
근본요인이며 시에 풍부한 서정미를 돈구어주는
원천으로 된다. 그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있던지
서정적알맹이는 현실에서 가장 전형적이며, 본질

적이며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 삶의 철리를 안
고있으면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감성적이며 생활
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독창적인것으로 되어야 한
다.

시인 조기천은 서사시 《백두산》을 노래하기에
앞서 《백두산호랑이》라는 서정적알맹이를 잡아
쥐였다. 이 서정적알맹이는 쉽게 얻어진것이 아
니다.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천고의 백두밀림을
헤치며 백두의 주인공의 불멸의 업적과 기상을
그속에 담기 위해 피와 열을 뿜이는 과정에 얻어
진것이다.

이 서정적알맹이를 발견한것으로 하여 눈보라
치는 광대무변한 백두광야를 주름잡으며 피어린
력사를 수놓아오신 전설적위인의 거룩한 영상을
감명깊게 재현할수 있었다.

이처럼 서정미를 떠나서 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때문에 이 땅의 력대시인들은 한생 서정의 참
맛을 알고 시에 풍만한 서정미를 담기 위해 피를
끓이고 사색을 무르익혔다. 한때 이전 고전가들
이 시를 《서정의 왕국》에 비겨 말한것도 바로 여
기에 연원을 두고있을것이다.

서정미는 두말할것도 없이 서정적알맹이, 정수
적인 서정속에 깊이 숨배여있다. 그것을 발견함
이 없이 시다운 시를 얻어보려고 요행수를 바라
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시 《어머니》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오
늘까지 즐겨 읊어지는것은 젖조차 변변히 먹여주
지 못하던 수수한 농촌아낙네를 그렇듯 숭엄하고
위대한 당에 비겨온 송구스런 감정에 휩싸여 영

원히 아이적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라는 서정적알맹이를 잡아쥐고 그 생활 정서를 시가전편에 풍부한 서정으로 뜨겁게 펼쳐 나갔기때문이다.

지금 우리 시단에 철학이 없고 여운이 없고 좁이 없는 메마른 시들이 가끔 눈에 띄이는것은 시인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기름내, 땅내가 풍기는 서정적알맹이를 잡아쥐지 못하고 많은 경우 탁상문학을 하고있기때문이다.

서정미는 또한 서정적핵을 시가형상에 구현하는 과정에 얻어진다. 시는 주관적체험과 느낌의 산물이다. 서정적주인공의 내적인 정서심리상태, 주관적느낌에서 일어나는 인정심리적굴곡상태가 사실에 대한 털거나 서술식묘사로서써가 아니라 주관적감정도로와 정서적호소로 충만될 때라야 서정미가 풍부히 차넘치게 된다.

정서적체험과 느낌은 구체적이며 감성적인것으로부터 출발되지만 거기엔 언제나 시인자신의 태도와 립장이 반영되기마련이다. 이것은 서정이 단순한 감성의 산물이 아니라란것을 말해주고있다. 서정이란 감성과 결합된 사상적지향이 형상적사유를 거쳐 얻어지는것으로서 그것은 언제나 정서적느낌과 호소, 주정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시에 어떤 과정이나 설명, 서술식묘사같은것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제나 계기로 주어져야지 그자체를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시에 서정성을 구현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감성적인것에 치우치거나 사상적지향만을 노리는것과 같은 편향에 떨어져서도 안된다.

시에 서정미를 구현하기 위한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시가 주관적인 느낌의 산물이라는 명백하고 단순한 리해와는 달리 객관화되고있다는 그것이다. 적지 않은 시들이 딱딱하고 지루감이 난다는 느낌을 받도록 견인력을 잃고있는것은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적극적인 태도의 정서적느낌, 그로부터 폭발되는 강렬한 주정과 정서적호소가 약화되고 사실라렬과 설명에 기울어지고있기때문이다.

서사시 《백두산》도 줄거리를 가진 시이기때문에 서사적요소들을 안고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서적체험과 느낌과 주정을 조건지어주는 바탕으로 밀착되어있기때문에 전편이 하나의 정서적덩이로 서정화될수 있었다.

...

철호 무덤을 판다
소나무밑에 영남의 무덤을...
파다가는 한숨 쉬고
한숨 쉬고는 또 파고...
어찌 이곳에 그를 묻을줄 알았으리-
그 생을 즐기던 소년을

이 나라의 강물인양 그 맑은 마음을
그 조국에 꿰뚫은 심장을!

...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이
헤여보라 몇만이나 되는고?
어느 고개 어느 팔각기에
어느 나무 어느 돌밑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히었노?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달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자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

마치 한편의 정교한 서정시를 방불케 한다. 시인은 무덤을 파는 철호의 모습을 과정이나 설명으로 준것이 아니라 내적체험세계에 대한 정서적 분석과 절절하고 격동적인 주정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시는 무엇을 보여주든지 대상에 대한 시인의 체험세계, 정서심리상태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씌여져야 한다. 풍부한 서정미와 강한 여운은 심장이 격정으로 끓어번지고 느낌과 주정이 강렬할 때 생기는 법이다.

서정미는 객관화된 과정이나 설명과 털거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관화된 체험과 느낌, 뜨거운 주정과 격조높은 토로에 있다. 론박할수 없는 이 기정사실화된 리치가 어찌하여 실천에서는 무엇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지 리해할수가 없다. 지금 일부 우리 시들은 대체로 과정이나 설명으로 되어있고 체험된 생활에 대한 주정은 마지막 한 두련의 결구로 처리되고있는데 이것이 어느덧 도식으로 굳어지고말았다. 이렇게 되면 서정은 말할것도 없고 시가 독자들을 잃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시는 어디까지나 시인의 내적체험세계의 토로가 위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인의 개성도 살려낼수 있으며 서정미도 풍부히 구현해나갈수 있다. 같은 대상을 노래하는 경우에도 거기엔 개개의 시인의 개성에 따라 그 정서적색갈과 양상, 시적표현과 작시법적특성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 이렇게 될 때라야 시가 각이한 색갈과 목소리로 서정미를 부각시켜나갈수 있으며 한 본새로 격식화되거나 미화분식되어가는 경향을 극복하고 생활을 참신하고 진실하게 펼쳐보여지게 된다.

시의 서정미는 또한 음악적인 흐름새와 조화로운 음감에 의하여 담보되는 아름답고 류창한 운률에서도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시의 음악적흐름

새와 음감에는 사색적인것도 있고 격동적인것도 있으며 비장한것도 있고 경쾌한것도 있다. 시의 정서적내용에 맞게 운률을 조화롭게 조성하는것은 시의 서정미를 풍부히 살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시의 운률은 박자와 흐름새를 통해 운률단위에 규칙적인 대응과 반복을 보장해주며 운률에 다양한 굴곡과 굴림새를 줌으로써 음악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시의 서정미를 돈구어준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시인들은 정서적내용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서정은 파지 않고 사실을 설명하는데 기울어지고있으며 시의 음악적흐름새와 톨동감을 살리기 위한 운률작업에 거의나 낮을 돌리지 않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시가 서술식문장처럼 되어가고있으며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다. 글자수나 맞추고 시술을 적당히 끊어놓는 식으로 시를 써가지고는 시다운 시를 지어낼수 없다.

지금 일부 시인들은 시의 정서적내용에 맞게 소리마디의 수량과 소리길이, 소리색갈을 고려하여 시어들을 주의깊이 선택하고 호흡량과 운률적 관습에 맞게 음절군을 배열하고 시술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작시작업에 힘을 적게 들이고있다.

오늘의 서정미는 거기에 시대생활의 기본지향과 시대미감이 선명하게 조명될 때라야 가치를 가진다. 시대정신, 시대미감이 비끼지 못한 서정미란 있을수 없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강성대국의 밝은 려명을 향해 비약의 나래를 펴고 총진군하는 선군시대의 벽찬 현실은 격변하는 시대에 맞는 기세차고 격렬하고 격조높은 정서를 요구한다. 시대의 번두리를 예들면서 읊조리는 평온하고 안온한 정서, 맥빠지고 늘어진 과거의 뒤떨어진 정서는 선군시대의 서정미와 인연이 없다.

격조높이 솟구치는 아름답고 숭엄하고 장엄한 서정, 시련을 맞받아 미래어로, 미래어로 확신성있게 줄달음치는 격렬하고 량만적인 서정, 이것이 오늘 우리 선군시대의 주되는 서정이며 기상이다.

시의 서정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장시 《폭풍의 생애》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장시 《폭풍의 생애》(김만영 작, 《조선문학》잡지 6호)는 길은 서정, 독특한 서정미로 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장시는 시란 어떤것이며 선군시대 시의 서정미란 어떤것인가를 실천으로 시사해주는 성공적인 명작이다. 시는 읽을수록 맛이 나고 되새길수록 가슴뜨거워지는 핵이 있고 철학이 있고 주정이 강렬한 시다운 시다.

...

창밖엔 무성한 원시림이 설레이고
눈보라 세차게 불어치는
백두산빨찌산의 집
우리 장군님은 태어나 첫걸음부터
폭풍치는 백두의 광야를 걸어가셨거니
아, 장군님의 생애엔
아늑한 아래목이 없었구나

...

아, 김정일장군
그이의 생애는
백두의 눈보라였다
세기의 폭풍이었다
력사의 폭풍이었다

...

그렇다! 그이의 생애엔 《아늑한 아래목》이 없었다. 그이의 생애는 《백두의 눈보라》였다. 《세기의 폭풍》이었다. 시인은 여기서 벌써 이 시의 서정적알맹이를 잡아쥐었다. 그이의 생애는 《폭풍의 생애》였다. 얼마나 생활적으로 찾아온 구체적이면서도 폭이 있고 무게있는 정수적인 서정인가. 이렇듯 발견이 깃든 형상적인 서정적핵을 잡아쥔것으로 하여 시인은 충만된 내적정서심리상태를 뜨거운 열정으로 절절히 터칠수 있었으며 자기의 형상적의도를 거침없이 펼쳐나갈수 있었다.

장시 《폭풍의 생애》는 주장이 명백하고 주정이 강렬하며 격렬하고 호방한 음률미로 하여 하나의 완결된 서정시의 표본으로 높이 부각되고있다. 시에는 과정보다 설명이 없다. 시적인 묘사와 시술조차 정서적주정속에 용해되어 유착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옹곤 서정적덩어리로 안겨오고있다. 바로 이것이 서정시로서의 본색을 살린 이 시의 장점이며 특성이다.

여기에 위인의 폭풍의 생애를 말해주는 한토막의 사연깊은 이야기가 있다. 전사들을 찾아 전선길을 달리던 야전차가 벼랑길 중턱에서 발동이 멎었다. 온 천지가 눈속에 묻혀 갈수도 되돌아설수도 없게 된 순간 80리길을 앞에 둔 준령우에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수원들에게 《군마를 가져오라!》눈바람을 멈춰세우는듯한 그이의 음성- 시에 설정된 서술적이야기는 이 한토막의 격동적인 세부 하나뿐이다. 허나 이야기자체가 시적정서를 양양시키는 극적인것일뿐아니라 여기에 강렬한 주정이 밀착되면서 시의 서정은 고조에 이른다. 이 한토막 이야기는 폭풍을 맞받아나가는 그이의 담대한 기상과 고난에 찬 한생을 특징지어주는 전형적인 세부로서 이 시의 서정적알맹이를 감명깊게 부각시켜주는데 큰 몫을 하고있다.

시인의 주정은 다시 련이어 폭발된다.

...

그이는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
허나
그이는 인간이시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전설적인간

그이는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태어나시여
거창한 산줄기의 대기를 호흡하시며
달리는 말단등에서 성장하신분

백두광야가 그대로
그이의 고향집뜨락이었고
백두대밀림이 그대로
그이의 요람이었고
이 세상천지가 그대로
그이의 활무대였다

그때문에 그이는
한평생 아래목을 모르신다
그때문에 그이는
한평생 아늑한 정원을 모르신다
...

그이의 사색은 선행고전가들처럼 《서재의 깊숙한 의자》나 《조용한 정원》, 《하얀 백사장》을 거닐며 무르익힌 사색이 아니었다. 《격랑치며 노도치며》, 《폭풍치는》 속에서 무르익힌 사색이었고 《우등불가》와 《달리는 야전차》가 그이의 《서재》이고 정원이었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창조는 전선길에서 마련되었으며 그래서 전선길은 그대로 폭풍치는 생애의 길이었다. 그때문에 《눈보라》와 《우등불》, 《산악》과 《풍랑》, 《하늘》과 《땅》이 그이의 생애와 그리도 잘 어울리는 것이었으리. 그렇다. 《력사와 세계를 종횡무진하는 것이/그이의 성격/하늘 땅 바다를 휘어잡고/천변만화하는 것이/그이의 지략/난관을 맞받아 짓부셔 버리는 것이/그이의 기질》.

이렇듯 시인의 사색과 열정, 탐구정신은 그이의 《폭풍의 생애》를 파고들며 끊임없이 고조되고있는바 이것은 참으로 《야전장군》의 폭풍같은 생애에 끝없이 매혹되고 더없이 흠모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의 뜨거운 심장에서만 분출될수 있는 열과 정의 산물이 아닐수 없다.

시인은 《폭풍의 생애》라는 서정적책을 형상으로 재현해나가면서 거기에 담겨진 인생철학을 예리한 정치적분석과 폭넓고 웅심깊은 지성으로 심오히 밝혀냄으로써 령장과 인간과 혁명에 대한 삶의 철리, 심오한 인간철학을 서정미가 넘치는 풍만한 정서로 감명깊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장시 《폭풍의 생애》는 선군시대의 주도적감정에서 핵을 이루는 정수적인 서정을 깊이 파고들어가 폭풍속을 뚫고온 위대한 령장의 한생을 집약된 형상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선군서정에서 주도적인 정서를 이루는 격렬하고 기세차고 랑만적인 격조높은 서정이란 어떤 것인가를 실천으로 확증하고있다.

시는 또한 강렬한 주정으로 충만되어있는것으로 하여 개성이 뚜렷한 시로 이채를 띠고있다.

령장의 한생을 《폭풍의 생애》로 함축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뿜어올린 주정세계, 령장의 담력과 지략, 기질을 단 몇마디의 시어로 특징지은 시어들, 분식이 없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시화된 무게있는 정치적표현들, 시원스럽고 활력있는 시문체, 대가 굵고 폭이 넓고 립체화된 서정구조와 류창하게 흘러가는 활달하고 약동적인 음률 등에서 시인의 개성적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있다.

생활의 정서와 시의 서정

생활이 환기시킨 정서는 생활속에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 모든 정서가 시적충격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안고있는것은 아니다. 시인은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풍부한 서정미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생활의 본질이 담겨진 참신하고 감명깊은 시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피라는 노력과 고뇌를 바친다. 그런 결과로 얻어진 귀중한 결실을 우리는 상반년 시작품들을 두고 론하게 된다.

시초 《웃으며 가는 길에 행복이 온다》(1호)는 현지에서 희한한 체험을 한 여러 시인들이 한 대상을 각이한 목소리로 노래한 5편의 시로 묶여져 있다. 시초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유훈을 어느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깊이 마음써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희한한 경질유리꽃그릇을 안겨주신 위대한 사랑과 은정의 세계를 각이한 계기와 시점에서 서로 다른 문제점을 잡아가지고 색채있게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관심을 끈다.

시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왔는가》(류동호 작)는 신문지우에 변변치 못한 사발을 놓고 밥을 먹던 인민들을 보시고 우리가 이런것을 위해 혁명을 했는가고 안색을 흐리시던 수령님모습을 어느 하루도 잊지 못하시고 그 마음을 오늘의 기쁨속에 실으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후덥게 노래하고있다.

시에서는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수령님의 유훈과 관련된 가슴후더운 세부에 력점을 찍고 감명깊게 해명하고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또한 《웃으며 온 길 웃으며 가자》(주광일 작), 《초소에서 편지가 왔네》(한광춘 작), 《우리 집 부엌이 밝아졌어요》(도명희

작), 《꽃을 피우는 처녀》(박정애 작) 등도 꽃그
릇을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동된 심정
을 개성적인 체험으로 참신하게 형상하고있다.

이밖에 《홍남의 환희》(서진영 작, 2호), 《철산
봉》(리연희 작, 3호), 《선군과 녀인》(럼형미 작,
5호)과 같은 시초들과 함께 《내 사랑 푸른 숲이
여》(한기운 작, 4호), 《이 나날들을 간직하라》(박
천걸 작, 1호)와 같은 편시작품들이 실렸는데 그
중 《선군과 녀인》, 《내 사랑 푸른 숲이여》가 시
인의 얼굴을 엿볼수 있게 하는 개성적인 시들이
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끈다.

시초 《선군과 녀인》은 녀인이 보는 시점에서
선군시대 녀성들의 정신세계를 파고든 색깔있는
작품이다.

지난날 《칠거지악》과 남녀칠세에 동성을 불허
하던 봉건의 질곡에서 눈물짓던 우리 녀성들이
오늘은 선군정신으로 총대와 인연을 맺고 혁명의
격랑속에 뛰어들고있으니 이 어찌 놀랍고 벅찬
일이 아닐수 있으랴. 오늘의 선군시대 녀인들의
내적체험세계, 녀인들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고 모대긴 흔적을 뚜렷이 엿볼수 있는것만도 참
으로 기특한 일이다.

고난의 죽가마도 저어보았고
피눈물의 그 언덕에 꽃을 엮으며
슬픔의 눈물도 닦아본 손

...

이렇게 시작되는 시 《녀인의 손》은 《아이도 키
우고 시도 쓰고/집안의 크고작은 일 많이도 치르
고/일터에선 보배손으로 사랑받는 손》 그런 녀인
의 손은 또 얼마나 작고 부드럽고 재간스러운가.
사랑이 샘솟는듯 한 그렇게 끝고 연연한 손에 만
약 총이 쥐여진다면... 시인의 사색과 환상은 여
기서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이렇게 펼쳐진다.

...

허나 그 손이 총을 친다면
사나이손처럼 커지리라
대장부주먹처럼 강해지리라

오, 사랑하는만큼 증오도 서리차거니
그날에는 사랑의 모든 혈관들이
증오의 힘살로 천백배 뻗치려니

주저없이 맡겨달라 조국이어
녀인의 작은 손에
제일 크고 무거운 총을!

정서적호소가 뜨겁고 주장도 명백하고 설명도
없다. 시초의 모든 시편들이 선군과 녀인과의 필
연적인 인연속에 탐색되면서 시적계기와 정서적

충격과 같은 형상요소들이 생활적으로 자연스럽
게 잘 맞물려지고있다.

시 《사랑의 담보》, 《별많은 밤에》, 《선군과
녀인》 등이 다 그렇게 착상되고 탐구된 시들이다.
특히 마감시 《선군과 녀인》은 시초를 품위있게
결속지으면서 이 나라 녀인들의 성격과 생활을
섬세하게 파고들어가 감성적이면서도 지성이 있
게 폭을 넓혀나간 시적일반화의 솜씨를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시초에서는 선군이란 의미를 요란한 정치적표
현이나 선언적인, 직선적인 시어들로 추상화하지
않았다. 녀인들의 생활과 가까운 소박하고 구체
적이며 생활적인 표현에 비겨 노래하면서 선군과
녀인과의 인연관계를 운명적인 문제로 승화시켜
폭이 있게 펼쳐보여줌으로써 선군이야말로 녀인
들이 하늘처럼 믿고 사는 삶의 기둥이며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된다는 깊이
있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만약 선군이 없었다면 이 나라 녀인들은 노예
의 자식을 낳아 기르며 피눈물로 가슴을 적셔야
했으리. 허나 선군이 있어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엄마의 품에서 아기가 웃고 처녀의 손에서 꽃이
웃고 아기의 눈동자에서 꿈이 웃고 알뜰한 집안
에서 녀인이 웃을수 있었던것이다.

시인은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우리 장군님의 신념인 선군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라는 말
삶이라는 말
사랑과 창조로 숨 벅찬
평화라는 말!

하기에 떨어저선 못산다
헤여저선 못산다
심장처럼
태양처럼
이 나라 녀인들은 순간도 못산다
선군을 떠나서는!

생활속에서 받아안은 정서적충격을 내적체험속
에 굴절시켜 사색하고 탐색하고 환상을 펼치는
과정에 얻어지는것이 시인의 목소리로, 서정의
미로 된다.

시초는 보다 전형적인 계기, 전형적인 생활을
선택하여 총과 군대와 인연을 맺고사는 선군시대
녀인들의 주도적인 정신세계에 력점을 찍었더라
면 하는 아쉬운감이 없지 않으나 개성적인 목소
리와 향기를 풍기는 시다운 시를 들고나오려고
심혈을 바친 흔적 또한 귀중하다고 본다.

련시 《내 사랑 푸른 숲이여》도 일정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좋은 시라고 본다.

련시는 한생을 숲에 살면서 거기에 온갖 사랑을 기울이고 숲을 살지우며 땀을 바쳐온 로병의 남다른 기쁨과 긍지를 참신한 서정과 개성적인 목소리로 노래하고있다. 련시의 시편들을 읽노라면 최전선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불탄 산천을 아프게 바라보실때 전호가에 타다남은 애솔 나무를 가슴에 새겨안던 그때로부터 머리에 백발을 엮을 때까지 숲과 함께 웃고울며 정을 엮고 땀을 바쳐온 숨은 애국자-전쟁로병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눈곱을 적시게 된다.

시 《내가 사는 집》, 《산에 사는 기쁨》, 《꽃과 뿌리》, 《숲속을 먼저 걸어보시라》 등이 말해주는것처럼 련시에서는 한생을 기꺼이 푸른 숲과 바꾼 서정적주인공의 숭고한 인생관을 구체적이고 섬세한 생활정서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세상향해 말하고싶은
그 인생철학을
내게 묻지 말고
온갖 푸른 잎새들의 속삭임 들으며
푸른 숲을 먼저 걸어보시라

그러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높은 뜻 받들어
한생을 이 푸른 숲과 기꺼이 바꾼
나의 백발도
그대들 눈에 푸르게 보이리!

(시 《숲속을 먼저 걸어보시라》 중에서)

이처럼 시는 설명이 아니라 생활이 환기시킨 정서 다시말하여 시인의 의도와 사색이 안아온 시적의미를 열렬한 주정으로 뜨겁게 뿔어올릴 때 감동은 그만큼 크고 여운도 남는 법이다.

시 《산에 사는 기쁨》에서 시인은 노래한다. 화창한 봄날의 기쁨은 빈땅에 옮겨심은 어린 나무가 석비레땅에 뿌리 박고 움이 틀 때 여름날의 환희는 설레는 숲속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 동식한 등지에 알 낳을 때, 가을날의 보람은 아지마다 무거이 첫 열매 드리울 때,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일까?

...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숲에서 사람만 보아도
뒤돌려 뿔 차비하는 노루, 사슴들
나를 보면
풀 뜯으며 마주오는 때...

아 남다른 기쁨이랴오
숲에서만 누리는 기쁨이랴오
산에 사는 류다른 행복
말로 맺은 정보다
땀으로 맺은 정 뜨거워

숲에서만 누릴수 있는 남다른 기쁨은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다. 오직 숲에 뿌리를 박고 땀과 정을 다해가며 숨의 온갖 비밀을 한몸으로 체현한 체험자만이 맛볼수 있는 기쁨이며 정서인것이다. 참으로 소박하고 진실한 체험속에서만 우러나올수 있는 생활이 담긴 참신한 서정이다.

시초는 백발을 이고 숲과 한생을 살아온 로병의 체험중에서 가장 인상깊고 전형적인 생활계기를 선택하여 거기에서 받은 시적충격을 특색있게 재현함으로써 숲과 애국과 인생에 대한 삶의 철학을 감명깊게 펼쳐고있다.

특히 시인은 숲에서만 맛볼수 있는 싱그럽고 청신하고 풍성한 숲의 특유한 정취를 생동하고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향기가 있고 서정미가 짙은 시로 되게 하였다. 물론 모든 시편들이 손색없이 꾸려진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 시편들에 담겨진 서정적핵이 뚜렷하고 그것을 개성적인 정서로 가꾸기 위해 바친 고뇌의 흔적이 력력한 점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상반년잡지에는 《선군길에 부치여》(권오준 작, 1호), 《어머니들을 축복하노라》(송양란 작, 3호), 《어랑천》(전승일 작, 3호)과 같은 여러편의 장시들도 실렸다. 그중 《어랑천》이 비교적 인상에 남는다. 진실한 체험속에 땀내가 배어있고 시인의 열정과 탐구정신이 시줄들에 스며있다.

장시는 만년성벽의 대언체로 솟아난 어랑천발 전소건설전투장을 무대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안아온 놀라운 위훈의 세계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장시는 돌격대원들과 피땀을 함께 바치며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위훈과 열정의 세계를 심장에 새긴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장시는 뜨거운 7월의 불빛과 11월 북방의 세찬 눈보라를 맞으시며 돌격대원들 가슴속에 거세찬

혁신의 불길을 지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선군시대의 혁명적서정을 뜨겁게 펼치고있다.

...

-어랑천 대언제여
너의 기초에는
장군님 맞으신 7월의 불별이
만년토록 달아있고
너의 머리우에는
장군님 맞으신 11월의 눈보라가
억년토록 녹지 않고있거늘

물과 돌과 세멘트만이 아닌
땀과 소원과 량심이 더 많이 섞여
만년성벽으로 굳어진 대언제
이 승리한 건설자 첫 명부에
우리는 삼가 적어넣으리라
어랑천을 위해 온넛을 불태우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존함을!

장시는 돌격대원들의 피끓는 심장과 량심으로 굳어진 만년성벽의 대언제를 한가슴에 불안고 거기에 깃든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얹혀진 창조의 기적과 위훈의 서사시를 감동깊은 시적세부들에 의탁하여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다.

선군시대의 서정을 격조높이 노래한 서사시적인 작품들인 서정서사시 《정일봉》(백하 작, 2호), 서사시 《만년성벽》(최윤철 작, 1~2호) 또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있다.

서정서사시 《정일봉》은 백두에서 시작된 총대정신, 총대의 위력으로 원수 미제를 굴복시키고 선군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정일봉》에 상징하여 전설적위인으로 노래하고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항일대전의 격전장
총대의 우뢰속에
백두산악을 뒤흔들며 솟아오른
백두의 거성
빨찌산의 아들
...
오직 총대로
지구우에서
침략과 예속을 끝장내려
서슬푸른 장검바위를
백두의 하늘에 높이 추켜들고

폭풍과 얼음의 산악에
탄생의 봄우뢰를 터친
이 세상 오직 한분
김정일장군!

...

시에서는 설한풍 휘몰아치는 백두의 천만산악을 거머쥐시고 《요영구》정신, 총대정신을 의지로 새기시며 총대로 개척하신 수령님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같은 신념의 세계를 조각가 정호룡의 성장과정과 교차시켜나가면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시인은 결구에서 환상의 나래를 정일봉마루우로 펼치고있다.

...

백두산정우에
철의 산악 정일봉이
거대한 한자루의
총대되어 솟아올랐나니
조선의 거봉 정일봉
무적의 총대봉 정일봉

빛나라
인류의 희망봉 정일봉이여!
찬란한 태양봉 정일봉이여!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억만년을 빛나리라!

그렇다. 천출명장 장군님의 의지는 곧 총대이며 정일봉은 곧 총대봉이라는 사상이 이 시의 서정적알맹이로 부각되어온다.

그러나 시인의 이런 환상적의도가 형상적공간 속에 비약이 있고 서정적핵을 내적정서심리세계의 개방을 통해 일관성있게 관통시켜나가지 못한 아쉬움으로 하여 풍만한 형상으로 안겨오지 못하고있다. 서정서사시에서는 어디까지나 서사적내용이 격동적이면서도 그를 정서적으로 안반침해주는 서정적요소들이 총만상태에서 밀착되어야 한다. 이런 좋은 경험은 이미 서정서사시 《장군님의 어머니》에서 시인이 창조한 경험이였다.

서사시 《만년성벽》이 거둔 성과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서사시는 광복목장제방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 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에 대한 이야기로 엮여지고있다. 시인의 얼굴과 창조적기백이 엿보이는 서사시는 인물의 성격도 있고 아슬아슬한 극적인 장면과 정황도 있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과 락천적인 생활도 있다.

시에서는 제방건설자들의 위훈의 세계를 감명 깊은 시적화폭속에서 견인력있게 끌고나가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와 사랑에 의하여 솟아난 만년성벽이야말로 핵탄보다도 강한 일심 단결의 성벽이라는 사상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그렇다!

이 땅에 솟아오른

만년성벽이여!

너는 정녕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라

장군님의 신념

장군님의 의지

장군님의 사랑이

장군님을 닮고 솟은

단결의 성벽이다

...

서사시는 특히 필요한 계기와 정황들에서 사실과 사건을 정서적으로 양양시켜주는 강렬한 주정을 자연스럽게 밀착시켜나간 형상력과 활달하고 표현력있는 생동한 시어들로 노래된 간결하고 탄력있는 시줄, 극적인 생활을 안고있는 몇개의 전형적인 정면들로 엮여지고 인물들의 대사를 넣을 때 장의 골자를 암시한 특색있는 구성조직을 시도한것과 같은 좋은 점들이 있는 반면에 정서적으로 일관성있게 승화되어나가는 감정선이 서사시의 바탕에 줄기차게 굽이치지 못하고 도간도간 끊기는듯한 아쉬운감도 없지 않다.

상반년 시들중 참신하면서도 인상깊고 여운있게 안겨오는 시들로서는 《새들아》, 《들꽃 한송이》(홍철진 작, 3호), 《아무도 모를겁니다》(김선화 작, 1호)와 같은 작품들이다.

인상깊은 하나의 시적세부를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생의 최후를 앞둔 통일애국투사의 내적체험세계를 승엄하고 락관적인 서정으로 펼친 《새들아》, 《들꽃 한송이》는 조국통일성전에 한생을 바친 한 사형수의 굳은 신념과 혁명적락관의 세계를 짙은 여운속에 펼치고있다.

철창가에 올려놓은 콩보리밥알을 열심히 쪼아먹는 새들을 보며 사형수의 마음은 먹지 않아도 마음은 즐거워진다. 《너희들은 배가 부르고/나는 마음이 부르고》 배불리 먹고 힘껏 날아 꿈속에도 그리던 북녘하늘 고향의 푸른 들판을 《나를 대신하여/네가 다 보아주렴》.

생의 최후를 앞둔 투사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설명없이 파헤치면서 고향의 푸른 들판에 날개를 펼 새들에게 마음을 실어보는 시적화폭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승엄하고 정겹게 안겨오는가.

...

가거들랑 또 오너라

만일 철창가에

더는 밥알이 놓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알아다오

통일된 조국을 그리며

인심후한 이 사형수가

그 자리에 밥알대신

웃음을 남겨두고 갔음을

사람은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량심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는 참으로 눈물겨운 승엄한 화폭이다. 시는 끝났으나 사람들 가슴속엔 웃음을 남기고 간 투사의 모습이 뜨겁게 어려와 마음을 진정할길 없다. 겨우 4련밖에 안되는 짤막한 시인데도 시가 남긴 여운은 크다.

시 《아무도 모를겁니다》 역시 작은 생활세부를 잡아쥐고 위훈속에 맺어지는 청춘들의 열정과 사랑의 세계를 특색있게 노래하고있다.

달빛은

강물우에 고요히 흐르는데

내 마음

강물우에 가만히 실어보며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합니다

...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무뚝뚝한 성미같이 혼합물에 찢찢해진 청년돌격대 1 중대장의 작업복이다. 빨래하는 주인공은 처녀중대장, 설명은 이것뿐이다. 일에서는 승벽을 닦는 사이이지만 제가 꼭 빨고싶어 빨아주는 빨래인줄 아무도 모를거라는 서정적알맹이를 처녀의 내적체험세계를 거쳐 파고들어가 정서깊게 개방하는 방법으로 시를 꾸몄기때문에 외적행동의 세계를 이것저것 펼쳐보이는 식으로 씌여진 시들과 다르게 짙은 서정속에 매력있게 안겨온다.

시에서는 사랑과 열정으로 부풀어오른 처녀의 미묘한 체험세계를 섬세하게 파헤치면서 높아가는 언제와 함께 가슴속에 쌓여지는 《사랑의 연제》를 개성적인 목소리로 전하고있다.

...

1중대장 그 동무의 작업복은

승벽을 닦는 처녀중대장

바로 제가 꼭 빨고싶은걸
바로 제가 매번 빨아주는줄

아무도 모를겁니다
아무도 모를겁니다

높아가는 발전소언제와 함께
나도 몰래 가슴속에 돌기돌기 쌓여지는
이 작은 언제
내 사랑의 언제를

선군시대 청년들의 크나큰 위훈과 사랑이 비낀
생활정서를 특색있는 서정으로 묘하게 감아낸 바
로 여기에 이 시가 남긴 흔적이 있다. 생활의 정
서와 시의 서정은 바로 이렇게 구별되는것이다.

시 《토스레웃》(광명철 작, 1호)도 탐구가 엿
보이는 인상적인 작품이다. 지난 시기 머슴과 짚
신, 토스레웃과 같은 유물을 두고 사람들을 깨우
치는 계급교양주제의 시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태반이 사실렐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동소이한것들이였다. 그러나 이 시는 소
박하면서도 남들이 하지 않은 목소리로 진실 그
대로를 노래한것으로 이목을 끈다.

지난날 피눈물에 헐고 젖은 토스레웃, 그것은
《결코 가버린 그 세월이 벗어버린/흔적만이 아니
거니》, 《누구나 마음속에 입어보아야 할/계급의
유물》이었다.

...

오, 나라없던 그 세월엔
피눈물에 젖었던
저 토스레웃
한시라도 잊고 산다면
우리가 저 토스레웃을 입어야 함을
얼마나 절절히 깨우치고있는가

로파심이 앞서 하고싶은 말을 다 담아 이것저
것 펼쳐놓는것보다 꼭 해야 할 한마디 말을 골라
가슴속에 흔적을 남기게 하는것이 얼마나 큰 보
탸이 되는가. 토스레웃을 잊고 산다면 다시 그
웃을 입어야 함을 절절히 깨우친 분식없는 호소,
기성의 시들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시인의 남다
른 자세가 마음에 든다.

그밖에 위대한 장군님을 보통병사와 다름없는
병사이면서도 보통병사와 다른 《위대한 병사》라
는 사상을 생활적인 정서로 폭이 있게 노래한
《위대한 병사》(김석주 작, 4호), 감동깊고 인상깊

은 극적화폭을 펼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평민적
인 인덕의 세계를 담시적인 양상으로 시화한 《태
양의 축복》(김재원 작, 5호), 파장과 조소, 예리
한 풍자적수법으로 눈먼 군국주의 일체의 망상을
재간스럽게 짓몽개버린 풍자시 《소경제국》(류
춘선 작, 1호)과 같은 시들도 인상에 남는 좋은
시들이라고 본다.

다시한번 시의 서정미를 되새기며

시의 서정미를 논하는 기회에 다시한번 시의
본도에서 떠난 시들을 살피게 되는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수 없다. 불만스러운 점은 아직도 적
지 않은 시들이 서술식으로 지루하게 객관화되면
서 많은것을 주려고만 하고있는것이다. 한가지라
도 똑똑한 핵을 잡아쥐고 그것을 정서적으로 론
증(설득)하기 위한 주장과 주정을 펼치지 않고있
기때문에 시에서 주관적인것과 객관적인것이 범
벅처럼 되어버리고있다는것이며 다른 한편 음악
적인 흐름새와 음감의 결여로 시가 류창하게 흐
르지 못하고 산문식문장처럼 되고있는것이다.

시가 딱딱하고 메마르고 추상화되고있어 옳을
맛이 없고 지루감을 자아내고있는것은 결국 개성
적인 똑똑한 서정적핵을 잡아쥐지 않은채 서정을
쥐여짜고있기때문이다. 서정미란 결코 스스로 생
겨나지 않는다.

시 《철령의 선군전설》(박용전 작, 4호), 《학
당골》(한승길 작, 3호), 《학당골의 봄》(한찬보
작, 6호), 《이 땅의 4월》(리명근 작, 4호), 《동
강의 봄우뢰소리》(김승남 작, 5호)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시들이 이런 불만을 자아내게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시에
서 설명은 결코 사상을 강조하지 못할뿐아니라
시형상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빚어낸다.

시 《학당골의 봄》, 《학당골》은 같은 대상을
노래하고있으나 시점은 다르게 설정했다. 전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
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무으시여 온
나라 인민을 투쟁으로 부르신 혁명의 봄이라는
의미를 밝히는데 시점을 두었다면 후자에서는 학
당골자리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일떠서 학당
골은 오늘도 선생님의 숨결로 숨쉬고있다는 의미
를 부여하는데 시점을 두었다.

시점은 어쨌든 두편의 시들이 다같이 서정적알
맹이를 시인의 체험속에 굴절시켜 생활적인 정서
로 반증하는 식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이것저것

사실을 렇거해나가다가 결구에 가서 아, 오 하는 식으로 주정을 터쳤기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아 감회도 깊어라
그이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력사의 그 봄날이여
우리 수령님 광복의 새아침 불려오셨고
우리 장군님 선군의 새시대를 펼치시여
오늘은 이 땅우에
주체강국의 위용 누리에 떨치여라
강성대국건설 총진군의 북소리
선군의 기치높이 힘차게 울리여라

아, 봄이여
학당골의 봄이여
너는 력사의 새벽길 불려온
이 나라 혁명의 봄
정녕 너는 영원한
승리의 봄, 영광의 봄이여라

(시 《학당골의 봄》)

심리적으로 체험되는 사람들의 감동상태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감성적인데로부터 출발되기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비약시켜 지나치게 객관화하거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으로 호소해가지고는 감동을 불러내기 어렵다. 서정을 파지 않고 설명하는 식으로 시를 꾸미거나 서술식으로 라렬하는것과 같은 경향은 똑똑한 서정적알맹이를 잡아쥐지 못하고 시를 쓰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시 《농민의 력사》(김정경 작, 3호) 역시 뚜렷한 핵을 쥐지 못한채 땅과 농민의 력사를 개괄한 무난한 시라고 본다. 서정시라는 작은 그릇에 몇대에 이르는 서사시적인 농민의 방대한 력사를 담으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렸기때문에 정서적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시구사능력도 있고 시문장도 무리없이 흘러가지만 내용이 과다하다나니 시가 정서적균을 타지 못하고 서술식으로 엮어져 감동을 주지 못하고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중 지난해 발표된 《땅과 농민》과 같은 시만 한것도 많지 못했다. 개성적으로 탐구된 발견도 있고 서정미 질은 시로서 인상에 남는다. 땅에 바치는 농민의 수고를 1년 4계절 아기를 등에 업어 키우는 어머니의 정성에 비겨 뜻이 깊게 주정을 터친 시는 아직 있어보지 못했다. 이처럼 시인들은 추상이나 설명으로가 아니라 땅내가 풍기는 풍부한 서정으로 땅과 농

민에 대한 색깔있는 시들을 들고나와야 한다.

시 《철령이여》(리근지 작, 2호) 또한 서정적핵이 선명치 못한 라렬식으로 된 시라는 인상을 준다. 질은 서정을 펼칠수 있는 똑똑한 서정적알맹이가 심어지지 못했기때문에 설명이 앞서면서 시형상에 그늘을 던지고있다.

시 《봄비가 오니》(6호)와 같은 소박하고 차분하면서도 생활적인 정서를 안겨주는 시를 쓴 시인이 이런 딱딱한 시를 썼다는데는 가슴이 잘가지 않는다.

같은 철령을 노래한 《철령의 선군전설》 역시 생활과 떨어진 주관적인 표현들과 석연치 못한 비유들로 하여 시가 추상화되고있다.

《장군님과 아이》(김정곤 작, 2호)는 짧은 단시로 씌여졌지만 설명없이 얼마나 감명깊은 시상을 던져주는가. 위대한 장군님 넘으시는 최전선구역령길우에 전선마을 아이 하나 소년단경례 불이고 길녘에 서서 차창에 웃음을 물들이는데 《아아 장군님 시야엔/그 불꽃같은 웃음 한점/고지보다 더 크게/최전선전역을/꽉-채우며 마주 안겨왔》다는 시인의 주정은 인상깊은 여운을 남긴다. 시는 초점이 명백하고 발견이 있고 정서를 불러일으키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시 《이 땅의 4월》(리명근 작, 4호), 《동강의 봄우뢰소리》(김승남 작, 5호), 《숨은 애국으로 푸르다》(장명길 작, 3호) 등도 서정적알맹이가 뚜렷치 못한 설명조로 된 시들이라는 점에서 위의 시들과 큰 차이가 없다.

시의 서정미는 류창하고 박력있게 흘러가는 정서적물동감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금 일부 시들에 규칙적인 대응과 균형미를 보장해주며 운률에 다양한 굴곡과 굴림새를 돋구어주는 운률조성에 별로 관심이 돌려지지 못하고있다. 음감과 음색, 음의 길이를 비롯하여 시의 정서적색채와 양상에 맞게 시어들을 선택배렬하고 음악적인 흐름새를 살피나가는 섬세한 작시형상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시인들은 많지 못하다.

이제 이미의 작품 몇편을 들어보자.

...

수령님 손수 착공의 첫삽 뜨신
보통강개수공사장에
어머님 세워주신 우리 녀성들
오늘은 장군님 구상 받드는
강성대국건설장마다에 그날처럼 그날처럼
굳건히 서있고

...

(《5월의 보통강》)

시의 정서적내용은 내놓고도 규칙적인 대응관계에 파격이 생겨 음조미의 균형이 파괴되고있는가 하면 음감과 음색이 무시되어 랑송과 호흡에 걸리고있기때문에 시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있다.

...

한발과 해제끼고도
두드러진 굴천정때문에
끝끝내 세우지 못한 동발 한대를 두고
넘겨주어야 할 교대시간앞에서
탄부들은 막장을 떠날줄 몰랐거니

...

《(막장시간)》

시화되지 못한 생경한 시어들과 산문식으로 서술된 시줄들이 튀어나와 음악적틀동감을 느낄수가 없다.

...

작업반 탈곡장 넓은 지붕아래
잠간 이 비를 그을가
무슨 나약한 생각을...
총동원, 총집중!

또다시 주타격전선으로 온 나라를 부른
우리 당의 힘찬 호소가
우리를 지켜보고있지 않느냐
...

(《소나기》)

역시 운률적각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적지 않은 시들을 살펴보면 운률조성을 위한 음절군들의 조화로운 대응관계에 신경을 쓰거나 반복, 대조, 대구, 병렬, 점층, 각종 소리효과, 운, 수사학적보조수단과 같은 다양한 수법들을 적극 살려쓰고있는 시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앞으로 정서적내용과 함께 그를 서정적으로 담보하는 운률조성에 상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하고있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기백있고 약동적이며 격렬한 그리고 사색적이고 장중하고 숭엄한 양상으로 특징되는 아름답고 영웅적인 서정미를 창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나는 우리 시인들이 선군시대의 벽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풍부한 서정미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시들을 내놓으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붓을 놓는다.